

8000미터에서 하늘이 된 삶

산악인 서성호의 산



서성호

1979년 부산 출생. 1998년 부경대학교 제어계측학과에 입학한 뒤 산악부에 들어가면서 산과 인연을 맺었다. 2004년 북미 최고봉 데날리에서 고산등반을 시작, 2005년 푸모리 원정대원으로 히말라야에 첫발을 내디뎠다. 단일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의 대원으로 2006년 에베레스트를 시작으로 2011년 초오유까지 5년 만에 8000m 12개 봉을 올랐다. 그중 11개 봉을 함께 오른 김창호와 2013년 무동력 무산소로 인도양 바닷가에서부터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오르는 ‘0 to 8848’ 프로젝트에 참여,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에 성공한 뒤 하산하다 해발 7950m의 마지막 캠프에서 탈진으로 숨졌다. 부경대학교산악회 OB회원으로 부산학생산악연맹 이사와 부산산악연맹 총무이사를 지냈고, 부산산악포럼 최연소 회원으로 활동했다. 부산시장 표창, 체육훈장 맹호장, 부산산악상 고산등반상, 대한민국산악상 고상돈특별상, 금정대상 등을 수상했다.

8000미터에서 하늘이 된 삶

표지사진 에베레스트 남동릉에서 본 로체(8516m) 북면 정상부와 사우스콜(7906m) 전경.

북디자인 HADA DESIGN 장선숙

8000미터에서 하늘이 된 삶

8000미터에서 하늘이 된 삶

초판 1쇄 2023년 12월 12일

펴낸이 홍보성

펴낸곳 사단법인 서성호기념사업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4층

문 의 전화: 010-5675-3634

이메일: hobos2022@naver.com

출판등록 2015년 9월 3일 제2515-11-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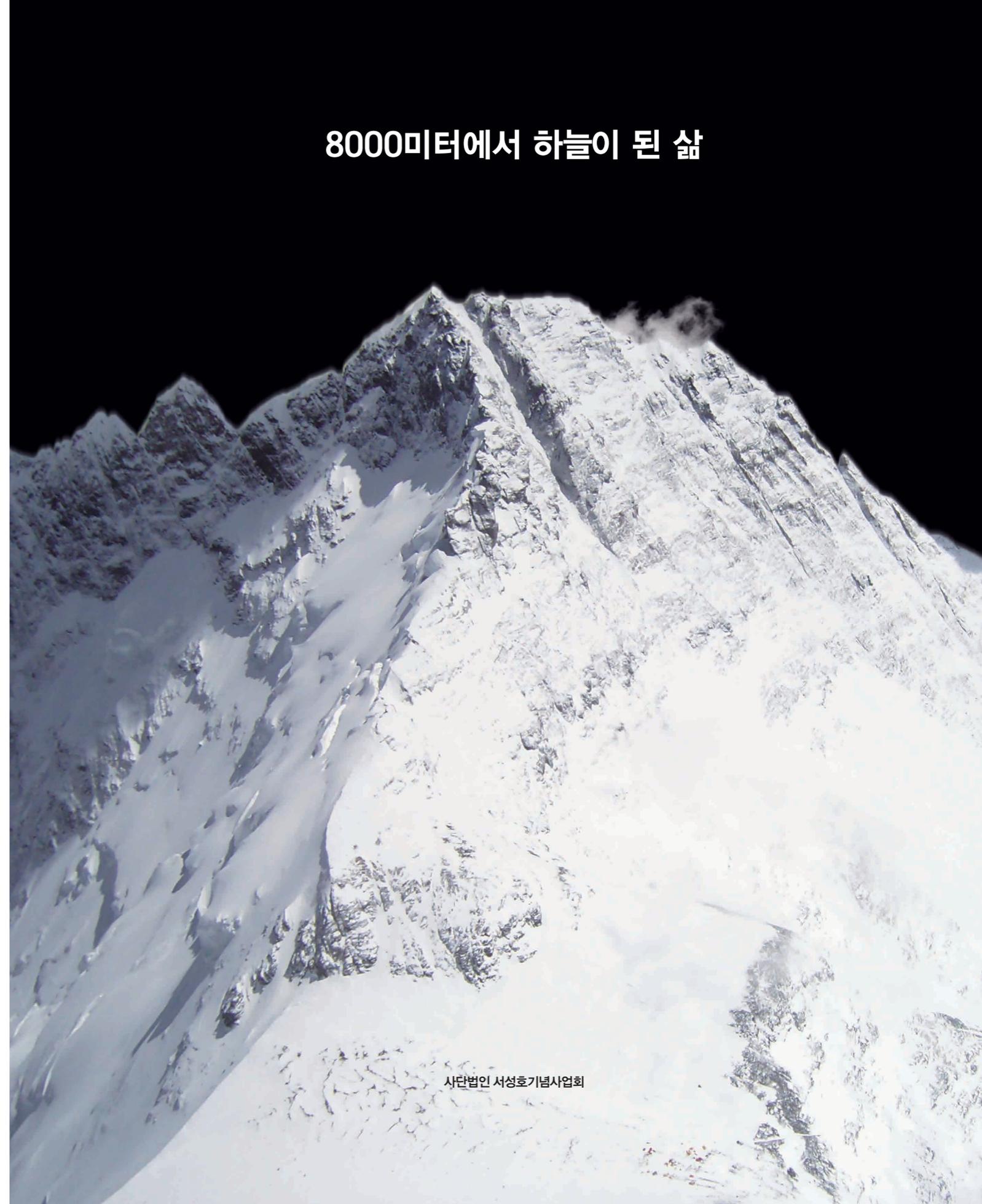
윤 문 이진규

디자인 HADA Design 장선숙

계 작 상지사

ISBN 979-11-956525-3-2 03690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서성호기념사업회

들어가면서 006

Start	산에 들어서다 013	Tharpu Chuli	8000m와 8000m 사이의 막간극 152
Denali	겨울 한라산에서 북미 최고봉으로 025	Kangchenjunga	일곱 번 오르내리고 네 번 두드린 끝에 열린 정상 164
Pumori	환희와 고통 – 첫 설산 등정과 동료의 죽음 041	Nanga Parbat	‘비극과 영광’의 무대 첫 파키스탄 거봉 등정 180
Imjatse	가볍게 치른 에베레스트 전초전 055	Shisha Pangma	악천후의 뗏을 뚫고 오른 거봉들의 막내 195
Mount Everest	‘첫 8000m’에 발을 딛다 065	Annapurna I	두 번째 도전에서 오른 희망 원정대의 난제 212
Makalu	한 해를 건너뛰고 다시 함께 한 희망 원정대 079	Gasherbrum I	삼세번 시도... 마지막에 하늘이 열어준 길 226
Lhotse	13일 만에 두 개의 8000m에 오르다 095	Gasherbrum II	허락된 시간은 보름, 기회는 단 한 번 243
Manaslu	길고 긴 폭풍설이 그친 사이 정상을 딛다 111	Cho-Oyu	희망 원정대와 오른 12번째 거봉 256
Dhaulagiri I	눈사태와 폭풍설, 강풍도 막지 못한 길 125	Mount Everest	두 번째 찾은 최고봉에서의 성공과 실패 272
Annapurna I	8000m에서 겪은 첫 번째 좌절 139	After that	그 후 287

서성호 참여 원정대 294

서성호 약력 296

들어가면서

2013년 5월 21일은 서성호가 그의 생애 최고의 꿈을 이루고 산에서 잠든 날이다.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의 히말라야 8000m 거봉 완등 과정에서 11개 봉을 함께 오른 서성호와 김창호는 인공산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한국 산악계의 숙원을 풀었다. 이로써 김창호는 한국인 최초로 8000m급 14좌 무산소 완등의 위업을 이뤘다. 하지만 이 빛나는 성공에는 서성호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뒤따랐다. 서성호는 하산 과정에서 해발 7950m의 텐트 안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1998년 시작한 산과의 인연이 2013년 끝을 맺었다. 부경대 신입생 시절 친구 따라 간 산악부실에서 얼떨결에 입회원서를 쓰고는 주말에 따라간 금정산 바위가 그를 히말라야로 이끌었다. 친구를 따라 산악부실에 갔다가 쓰게 된 입회원서도, 그런 뒤에 끌려가다시피 한 술자리에서 술김에 약속한 산행도 모두 우연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나선 금정산 무명암에서의 첫 암벽 등반 이후 산악부 활동과 등반은 오로지 그의 진심이었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하면서 다음 학기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 막노동과 목욕탕 때밀이도 했다. 생활고에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면서도 산에 대한 열정만은 놓지 않았다. 오랜 기간 병석에 있던 부친이 그가 군 복무하는 중 결국 세상을 뜨자 제대 후 복학해서는 학비는 물론 남동생을 건사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 그런 와중에도 산악부 후배들을 이끌려면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운동장을 달리고 철봉에 매달렸다. 이런 열정 덕분에 2004년 봄 휴학계를 내고 북미 최고봉 데날리 원정에 참여했다. 동경하던 하얀 산에 대한 첫 도전이었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등반은 기상 악화로 가로막혔고 뒤이어 한국팀이 조난사고를 당하자 구조에 나서면서 시기를 놓치며 등정의 꿈을 접었다.

데날리에서 고배를 마신 그는 몇 달 뒤 대한산악연맹의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에 참가하며 쓰린 마음을 달랠다. 심기일전한 그에게 곧바로 새로운 기회가 왔다. 부산 지역 5개 고교대학산악부 OB산악회가 꾸린 합동대의 일원으로 에베레스트 기슭에 있는 푸모리 원정에 참여해 정상에 섰다. 그러나 하산 도중 함께 오른 두 대원이 설벽 아래로 미끄러져 사라지며 그의 첫 설산 등정은 환희에 이은 고통으로 기억됐다. 이듬해 부산산악연맹의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선발돼 지구의 용마루에 거뜬히 올라 서며 부산을 대표하는 고산 등반가로 성장할 것으로 부산 산악계의 기대를 모았다. 키 173cm 몸무게 65kg, 고산 등반가에게 딱 맞는 체구를 가졌던 그는 고소 적응 능력 또한 뛰어났다. 6000m 대든 8000m 대든, 짐이 무겁든 가볍든 등반 속도가 일정했다.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급했던 그는 2007년 9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며 고산의 꿈을 접고 평범한 샐러리맨이 되며 생활인의 길에 접어들었다. 그해 예정된 K2와 브로드피크 등반은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다. 그가 없어도 원정은 성공리에 끝났다. 그런데 직장생활에 적응하려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새 산에 가 있었다. 산을 접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그의 각오는 원초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했다. 한 해를 건너뛰어 2008년 기어이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다. 그리고는 내쳐 2011년까지 쉽 없이 달려 희망 원정대의 완등을 함께했다.

초오유 등정을 마지막으로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의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이 마무리되자 숨 가쁘게 달려온 서성호의 등반도 쉽표를 찍었다. 2006년 희망 원정대의 첫 8000m이자 그의 첫 8000m이기도 한 에베레스트 등정 후 '먹고 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이듬해 K2와 브로드피크 원정 대신 생활인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햇수로 6년에 걸친, 한국보다 히말라야가, 평지보다 눈 덮인 고산이 익숙했던 삶을 접고 다시 생활인의 길로 돌아왔다.

하지만 한 해를 건너뛰고 2013년이 되자마자 산으로 가야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그를 다시 찾아왔다. 평범한 보통의 직장인으로 살고자 하던 그에게 히말라야 8000m 11개 봉을 함께 오르며 생사를 같이한 김창호가 도움을 청했다. 김창호는 8000m급 14좌 완등에 에베레스트 하나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김창호는 해발 8848m의 높이를 그대로 해석해 해수면에서 정상까지 연결하는 선을 구상했다. '0 to 8848' 즉 '해발고도 0m에서 에베레스트 정상 8848m까지' 프로젝트였다. 김창호는 그의 산악

인생에 방점을 찍을 기념비적인 등반에서 정상에 함께 오를 파트너로 당연히 서성호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산 아래의 세계에 자리 잡으려던 서성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무리 힘든 등반에서도 밝은 표정과 웃음을 잃지 않았던 서성호가 이때만큼은 진중하게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이내 그는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김창호에게 합류를 알렸다. 그렇게 김창호와 함께한 그 등반은 한국 히말라야 등반사에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승리이면서 동시에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하구에서 156km 구간을 카약으로 갠지스강을 거슬러 오르고 인도 평원과 네팔 테라이 평원 893km를 자전거로 달렸다. 이어 마지막은 두 다리로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무동력과 무산소로 인도양 바닷가에서부터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는 '0 to 8848' 프로젝트는 인간 능력의 극한에 다가가는 일이었다.

서성호는 단일팀 세계 최초로 8000m급 14좌 완등의 쾌거를 이룬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의 1등 공신이였다. 첫 번째 도전이었던 에베레스트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비록 생업의 길에 들어서면서 두 번째 등반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후 2008년부터 김창호와 환상적으로 호흡을 맞추며 완등 레이스를 펼쳤다. 북미 최고봉 데날리 등반과 히말라야의 7000m 대 초반 봉우리인 푸모리를 등정했을 뿐이었던 초보 산악인이 5년 만에 8000m 12개 고봉을 올랐다. 8000m 14개 봉 가운데 파키스탄 카라코람에 있는 K2(8611m)와 브로드피크(8047m) 2개 봉만을 남겨뒀다.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가 2011년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하자 국내 외 산악계는 서성호의 14좌 완등에 기대를 걸었다. 남은 2개 봉을 2013년 여름까지 오르면 세계 최단기간 14좌 완등은 떼 놓은 당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귀한 알피니즘이나 인간적 휴머니즘과는 다른 차원인, 속세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 14좌 완등 타이틀에는 관심이 없었다. 완등보다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을 선택한 그는 2013년 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 섰다. 당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서 만난 한 선배가 그에게 완등에 대한 의사를 묻자 그는 "14좌 완등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 대신 세계 최고봉 무산소 등정으로 제 한계를 극복하는 길을 택했다"고 고민의 결과를 말해줬다. 누구라도 욕심낼 만한 타이틀이지만 서성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첫 에베레스트 등정으로 마치 밤하늘의 유성처럼 나타나 짧은 기간 빛나는 등반 활동을 펼쳤다. 그러고는 두 번째 에베레스트 등정에서 가장 밝은 빛을 뿜어내고는 스러졌다.

그렇게 그가 에베레스트에 잠든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세월이 지나면 뭐든 잊히기 쉽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이가 많다. 그리고 그가 더 오래도록 기억됐으면 바라는 이도 많다. 부산 금정산과 서울 북한산에 새겨진 작은 추모 동판과 추모비는 그를 기억하고자 하는 활동의 작은 부분이다. 2015년 그의 '첫 바위'였던 무명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설치한 추모 동판은 그와 함께 산을 다녔던, 그리고 그의 산행을 기억하는 지역의 동료, 선후배 산악인들의 마음을 담았다. 2005년 푸모리에서 앞서 떠나간 정상군 김도영을 기리는 동판이 함께 있어 외롭지 않다. 북한산 산악인 추모공원의 추모탑에 그를 기리는 작은 오석 비는 그를 뒤따라간 김창호의 비와 이웃해 있다. 서성호의 이름을 딴 기념사업회도 세워 헌신과 희생으로 대표되는 그의 정신을 기렸다. 서성호기념사업회는 그의 생전 바람대로 후배 산악인을 지원하는 일에도 나섰다.

작은 추모비처럼, 기념사업회처럼, 그가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는 작은 욕심으로, 서성호가 산에 남긴 발자취를 정리했다. 1998년 금정산부터 시작해 2013년 에베레스트까지 16년간의 산악인으로서의 활동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2004년 북미 최고봉 데날리에서 시작해 10년간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린 해외 설산의 등반을 상세하게 담았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수월하게 때로는 온갖 난신고를 겪고 오른 산에 대한 기록이다.

그는 진정한 휴먼 알피니스트였다. 산을 다니며 자신이 힘든 것은 참았지만,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은 참지 못했다. 베이스캠프에서 그는 항상 바빴다. 외국팀의 솔루션 시스템을 고쳐주는 사소한 일부터 의사 노릇까지 했다. 심지어 제 몸 하나 간수하기 버거운 7000m 대의 고소 캠프에서 힘겹게 올라오는 외국팀을 보면 캠프사이트를 짊어놓기까지 했다. 이것이 그의 성품이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우월하다고 현지인을 막대하는 이를 가장 싫어했던 그는 고소 포터 쿡 키친보이 등과 친숙하게 지냈다. 뛰어난 등반 실력에 14좌 완등보다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을 택한 순수 알피니즘을 추구한 산악인. 여기에 더해 누구보다 앞장서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셰르파와 포터를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정을 나눴던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진다.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깊은 곳을 보았던 서성호가 좋은 산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오래 남았으면 한다.



Start

1998 봄

대학 입학과 신악부 입회,
그리고 첫 바위의 추억



산에 들어서다

서성호가 산의 세계에 발을 들인 건 '낭만' 때문이었다. 바로 산사람만이 느끼는, 산에서의 낭만 때문이었다. 여전히 밤공기가 차가운 초봄 산에서 처음 맛본 바위와 별과 야경이 그를 산의 세계로 끌어들이었다. 대학에 입학하던 해, 풋풋한 신입생이던 시절 맞은 봄에 그는 산의 매력, 아니 산의 마력에 빠져들었다.

1998년 부산의 부경대학교 제어계측과에 입학한 서성호는 4월 초 산악부실 앞에서 서성였다. 앞서 산악부에 가입한 같은 과 동기에게 입회를 권유받은 또다른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던 차였다. 한참을 기다리다 지친 그는 별생각 없이 산악부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뒤이어 기다리던 친구도 산악부실을 찾아왔다. 학기 초 신입 회원들을 모집하느라 혈안이던 산악부 1년 선배는 두 사람에게 입회원서를 내밀었다. 다른 선배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 호랑이 굴 안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에서 입회원서 작성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서성호는 '일단 써서 내고 안 나오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원서를 적어냈다.

선배들은 곧바로 신입 부원들을 데리고 산악부실을 나가 학교 앞 술집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그는 그만 코가 꺾이고 만다. 1990년대 말의 대학 분위기가 그렇듯이 산악부 선배들은 후배 사랑의 정도를 '술'로 표현했다. 난생처음 코가 비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신 서성호는 얼떨결에 주말 금정산 산행을 약속했다. 별생각 없이 들어간 산악부에서 얼떨결에 약속한 금정산 산행이 그의 등산 인생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산행의 느낌이 너무나 강렬했다. '첫 바위'는 무명리지 '야바위'였다. 선배는 그가 어설픈 동작으로 안전벨트를 차자 로프를 내려주고 벨트에 걸라고 한 뒤 곧 위로 올라가 그의 시야를 벗어나 버렸다. 암벽 루트는 물론 기초적인 등반 기술조차도 가르쳐 주지 않고 선배는 사라졌다. 순간 황당했지만 서성호는 어렵사리 뒤따라 올랐다. 슬랩을 올라가 바위틈에 소나무가 뿌리를 내린 테라스에서 쉬던 그의 시선은 눈앞에 펼쳐지는 시원한 부산 시가지 풍광에 사로잡혔다. 그리고는 바위 위

◀ 금정산 무명암 리지에서 하강하는 서성호.

로 떠오르는 밤하늘의 별과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선배가 해주는 산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생각해도 낭만적인 밤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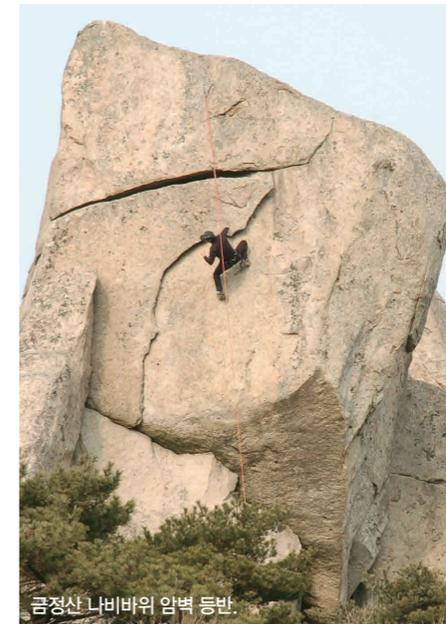
그렇게 배운 산에 그는 무섭게 빠져들었다. 주말 이들은 꼬박 바위에 붙어 지냈고, 여름과 겨울 방학에는 집에 붙어 있는 날이 드물 정도로 산악부 장기 산행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2000년에는 당시 산악인들의 필수 경력인 낙동정맥 종주도 마쳤다. 부친의 오랜 투병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없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지만 산과 운동을 떼어놓지는 않았다. 학년이 올라가며 후배들을 받은 그는 이들을 이끌려면 체력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에 건설 현장 막노동을 하던 때에도 일을 마친 뒤 운동을 빼먹지 않았다. 군 복무 중이던 2001년 부친이 세상을 뜨자 실질적 가장이 된 그는 2003년 복학 후에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도 산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와 전국체전에서 남자대학부 우승을 차지한 게 바로 그해였다.

돈을 벌려고 휴학을 거듭한 그였지만 산에 가기 위해 휴학하기도 했다. 2004년 봄 학기에 휴학계를 내고 ‘2004년 부경대학교산악회 데날리 원정대’의 일원으로 생애 첫 해외 고산에 도전한다. 그의 본격적인 고산 등반의 첫걸음이었던 데날리 원정은 다음(22~37쪽)에 자세히 살펴본다. 결과만 본다면 설산이라고는 한라산과 설악산 동계 등반 경험이 전부였던 그는 조난한 다른 등반대 구조와 뒤이은 악천후로 북미 최고봉 정상에 서겠다는 꿈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데날리를 경험하고 돌아온 그해 여름 본격적인 등반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해외의 산을 찾을 기회가 그에게 왔다.

대한산악연맹은 2001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산악지대 깊숙한 곳의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접근이 쉽지 않은 오지를 찾아 탐사대를 파견했다. 2004년에는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 중국 사천성 캉딩지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산군, 뉴질랜드 남알프스 산군, 멕시코 푸에블라 산군 등 5개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오지 탐사대는 여름방학 때인 7~8월 20여 일간의 일정으로 파견했다. 비록 기간이 짧고 등반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대상을 골랐을 뿐이지 탐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느 고산 등반의 축소판과 같았다. 등반하려는 산까지의 접근, 장비와 식량의 준비, 베이스캠프 건설과 등반 과정까지 모두가 고산 등반과 마찬가지로 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등반

▶ 금정산 최장 임로길인 무명암 리지 등반.





금정산 나비바위 암벽 등반.



설악산 트마골 형제폭포 빙벽 등반.

능력을 갖춘 대학 산악부원을 대원으로 선발했다.

서성호는 김종욱 대구산악연맹 고문이 단장을 맡고 이병철 전남산악연맹 이사가 탐사대장을, 전남대 학생이던 김재우 광주·전남등산학교 강사가 등반대장을 맡은 '2004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 탐사대'에 장비 담당으로 참가했다. 탐사대에는 이들 외에도 홍보성 부경대산악부 선배와 박아숙 부산산악연맹 이사, 김병권 경기도산악연맹 구조대원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했고, 대원으로는 서성호와 동갑내기인 이동훈(영남대)을 비롯해 김광섭(한남대) 홍민진(경희대) 이지연(상명대) 권지선(우석대) 등 6명이 함께했다.

이들이 탐사에 나선 파미르 고원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국에 걸친 황량한 산악지대로 6000m 이상의 봉우리가 100개 넘는 곳이다. 이 가운데서도 탐사대가 등반한 알라이 산맥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을 이루는 산군으로 최고봉은 레닌 봉(7134m)이다.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에는 레닌 봉과 코뮤니즘 봉(7495m), 코르제네프스카야 봉(7105m) 등 3개의 7000m 대 봉우리가 있다. 탐사대의 목표는 레닌 봉에서 멀지 않은 코르제네프스키 빙하를 따라 바리카디 산군의 탐사와 그 주봉인 스파르타키아다 봉(5541m)을 등반하는 것이었다.

◀ 금정산 무명암 티롤리안 브리지 훈련.



한라산 장구목 설릉에 오른 서성호.

서성호는 데날리 원정에서 귀국한 지 50여 일 만에 다시 탐사대에 합류해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하루를 묵은 탐사대는 차량편으로 국경을 넘어 키르기스스탄의 오슈로 이동해 탐사 허가를 받고 식량을 구입한 뒤 해발 2300m의 탈딕캠프로 들어갔다. 며칠 전까지 한국에서 겪었던 장마에 뒤이어 찾아온 여름 더위가 언제였느냐는 듯이 기온은 점점 내려가고 빙하 녹은 물이 도로 옆 개울을 가득 채웠다. 본격적인 캐러밴으로 해발 3000m 대의 코르제네브스키 빙하 초입에 들어서자 몇몇 대원이 가벼운 고소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성호는 낮은 곳과 다를 바 없이 가볍게 움직이며 캠프지를 만들고 장비와 식량을 정리하는 등 힘든 일을 도맡았다.

북미 최고봉 데날리(6194m)에서 완벽하게 고소에 적응했던 서성호는 높이는 거의 비슷하지만 위도가 한층 낮은 스파르타키아다 봉의 등반이 한결 수월하게 느껴졌다. 그런 덕분에 베이스캠프(3900m) 도착 다음 날, 서성호는 다른 대원에 앞서 가이드와 함께 장비를 지고 올라가 캠프1(4300m)을 설치하고 내려왔다. 다음 날에도 다른 대원들과 함께 다시 캠프1로 진출한 뒤 캠프2까지 정찰을 다녀왔다. 그러나 베이스캠



한라산 장구목 설상 훈련.

프에서 캠프1까지 거리가 예상보다 멀어 시간과 체력 소모가 많은데다 캠프2까지의 경로도 비슷한 상황이라 탐사대에 주어진 시간과 대원들의 체력을 고려하면 일정이 빠듯했다. 더욱이 정상에 도전하려고 했던 날 새벽, 밤새 내린 폭설이 무릎 깊이까지 쌓였다. 결국 고산 등반 경험이 일천한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정상 등정은 무리라고 판단한 탐사대는 코르제네브스키 빙하 탐사로 목표를 바꿨다.

며칠간의 빙하 탐사로 아쉬움을 대신하고 베이스캠프로 되돌아온 탐사대는 레닌 봉 베이스캠프를 거쳐 다시 오슈로 돌아오면서 탐사를 마무리했다. 이들의 도전은 비록 코르제네브스키 빙하에서 끝났지만 파미르 고원을 찾는 트레커들의 베이스캠프인 오슈와 중앙아시아의 수도로 불리는 타슈켄트의 문화 탐방에 나서 유적지를 비롯해 박물관과 고려인 집단농장을 찾기도 했다. 또 한때 실크로드의 교역기지로 번창했던 사마르칸트를 찾는 등 역사문화 탐방을 이어갔다. 서성호에게는 알라이 산맥을 찾아간 길이 탐사도 탐사지만 낯선 중앙아시아 국가의 문화를 접하고 이국적인 풍광 속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면서 시야를 두루 넓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면서 두 달 전 북미 데날리에서 삼켜야 했던 쓴맛도 달래며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스파르타키아다 베이스캠프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대원들.
뒤로 보이는 산이 스파르타키아다 봉(5541m).

▶ 코르제네브스키 빙하에서 훈련 중인 대원들.



Denali

2004 여름 시즌

데날리 — 6194m — 5615m 도달





겨울 한라산에서 북미 최고봉으로

서성호의 첫 번째 해외 설산 원정의 대상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최고봉이었다. 북위 63도, 서경 150도, 흔히 북극권으로 치는 북위 66도에서 위도로는 3도 남쪽, 300km 거리의 태평양 연안에서도 그 용자를 자랑하며 알래스카의 대지 위에 우뚝 솟은 데날리(Denali). 지구상 일곱 대륙의 최고봉을 일컫는 '세븐 서미트' 중의 하나인 데날리는 미국 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의 이름을 따서 매킨리로 불리다가 2015년 또 다른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 의해 원래의 이름을 되찾았다.

데날리는 알래스카 원주민 말로 '위대한 산' 또는 '가장 높은 산'이라는 뜻이다. 세븐 서미트 가운데 높이로는 세 번째로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6960m)와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5895m) 사이다. 그렇지만 등반이 어렵기로는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히말라야 8000m 14개 봉의 뒤를 잇는다. 그 이유는 바로 데날리가 자리한 위도다. 북극권에 가까운 데날리는 지구상의 주요 고봉 가운데 기상 조건이 가장 최악인 곳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특히나 데날리는 광활한 툰드라 지대 위로 5000m 넘게 가파르게 솟구친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절대 고도는 훨씬 높지만 베이스캠프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고도는 데날리가 500m 정도 더 높다.

설산 등반 경험이라고는 한라산과 설악산 동계 등반이 전부였던 서성호는 '2004년 부경대학교산악회 데날리 원정대'의 일원으로 생애 첫 해외 고산에 도전한다. 아이거를 등정했던 박준범 원정대장과 일본 북알프스 동계 등반 경험이 있는 소진호를 제외하면 서성호를 비롯해 장종욱 강대희 안소현 등 나머지 대원의 설산 경험은 대동소이했다. 그래서 서성호를 비롯한 대원들은 6개월간 15차례에 걸친 하중·빙설훈련, 그리고 데날리 등반에 필수인 산악스키 교육을 받으며 동계 등반 능력을 길렀다. 특히 용평스키장에서 이틀간 실시한 산악스키 강습에서 유한규 대한산악연맹 산악스키이사는 지구력이 월등한 서성호를 산악스키 선수로 키울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데날리는 해마다 수백 명의 등반가가 찾는 산이지만 또 그만큼 많은 산악인

◀ 카힐트나 빙하로 가는 소형 세스나기에서 내려다 본 알래스카의 광활한 툰드라 지대.



카힐트나 빙하 활주로(2180m)에 착륙한 소형 세스나기.

이 좌절을 맛보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도 한국 에베레스트 초등자인 고상돈이 1979년 도전했다가 산화한 곳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에베레스트 초등자이자 홀로 북극점에 도달했던 우에무라 나오미도 1984년 이곳에서 실종되며 생을 다한 인연이 있다. 한 마디로 스물다섯 아마추어 산악인 서성호에게는 쉽지 않은 첫 고산이었던 셈이다.

원정대는 2004년 5월 2일 부산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와 미국 시애틀을 거쳐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날아갔다. 이어 와실라를 경유해 탈키트나로 이동했다.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탈키트나는 데날리의 관문이자 데날리로 가는 경비행기의 전진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데날리 등반의 시작 지점인 카힐트나 빙하의 활주로까지 소형 세스나기를 타고 날아갔다. 맑은 날 비행하면—사실 맑은 날이 아니면 데날리로 가는 비행 자체가 어렵지만—여름 알래스카의 푸른 숲 너머 알래스카 산맥의 흰 봉우리가 보이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고 웅대한 봉우리가 데날리다.

해발 2180m의 카힐트나 활주로에서부터 등반이 시작된다. 각각 짐을 지고 썰매에 실어 끌며 카힐트나 빙하로 다가간다. 데날리에는 고소 포터가 없다. 그래서 짐



부경대팀 대원들. 왼쪽부터 반 시계 방향으로 소진호 서성호 강대희 안소현.



▶ 캠프3(3400m) 전경. 캠프지 뒤 언덕이 '모터사이클 힐'.



을 꾸리고 나르는 것부터 캠프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눈을 쌓아 방풍벽을 만드는 따위의 일까지 대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판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한다. 도착하자마자 밤새 많은 비가 내렸다. 다행히 아침이 되자 비가 잦아들어 고소 적응을 위해 스키 훈련을 한 뒤 산신제를 지내며 데날리에서의 두 번째 날을 보냈다.

원정대는 정상 등정 루트로 웨스트 버트레스를 골랐다. 1951년 브래드포드 워시번이 초등한 이 루트는 데날리에 개척된 20개가 넘는 루트 가운데 절대다수의 원정대가 선택하는 정상 등정 루트다. 랜딩 포인트에서 서릉을 따라 윈디 코너와 북봉 아래의 데날리 패스를 거쳐 정상인 남봉으로 오른다. 이들은 스키 등반으로 캠프 1(2400m), 캠프2(2980m)를 거쳐 3일 만에 해발 3400m의 캠프3에 순조롭게 올라섰다. 캠프3으로 가는 길은 밤새 내린 눈으로 외국팀을 비롯해 안동대팀, 대전연합팀과 함께 번갈아가며 길을 뚫었다. 썰매 하나를 놓쳐 미끄러져 내려가는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저녁 식사는 푸짐하고 텐트 사이트에서의 밤은 평안했다. 화이트아웃과 눈보라로 캠프3에서 하루 휴식을 취한 서성호를 비롯한 원정대는 5월 11일 윈디 코너(3960m)를 지나 드디어 4330m의 데날리 시티에 입성했다.

서성호는 이후 계속되는 고소 적응 등반에서도, 짐을 운반하러 가는 길에도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했다. 원정대원 중에서도 서성호의 고소 적응은 두드러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겪는 두통조차도 그는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날씨는 그도 어쩔 수 없었다. 눈보라에 강풍 아니면, 화이트아웃에 영하 30도를 밑도는 강추위. 악천후의 종합선물 세트 같은 날씨를 사흘간 겪고 드디어 등반 시작 13일 만에 정상 도전을 위해 하이캠프(5240m)에 진출했다. 이튿날은 정상 등정의 날이었다. 20일 오전 10시 30분께 마지막 캠프를 출발한 서성호는 정오를 조금 넘겨 데날리 패스(5600m)를 지나 해발 5615m 지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휘몰아치는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 날을 기약하며 하이캠프로 발걸음을 되돌렸다.

하지만 밤새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정상 도전의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께, 부경대팀이 정상 등정에 실패하고 하산할 때 정상으로 올라간 안동대팀과 대전연합팀의 조난사고 때문이었다. 구조신호를 접한 서성호는 소진호 장종욱과 함께 곧바로 구조에 나섰다. 데날리 패스까지 다시 올라간 서성호는 강풍과 화이

◀ 웨스트 버트레스에서 본 '데날리 시티'로 불리는 캠프4(4330m) 전경. 뒤 봉우리는 헌터(4442m).



하이캠프에서 본 웨스트 버트레스

▼ 웨스트 버트레스 헤드월의 가파른 사면을 오르는 각국의 원정대원들.



트아웃을 뚫고 수색하다 다음 날 새벽 3시 30분에야 하이캠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부경대팀의 데날리 등반은 거기까지였다. 등반 시작 20일 만에 하산한 원정대는 랜딩 포인트에서 탈기트나로 돌아가는 경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서성호의 첫 원정은 아쉬움 속에 이렇게 끝이 났다.

서성호는 2008년 <월간 산>과의 인터뷰에서 데날리에서의 경험이 이후 그의 등반을 결정지었다고 밝혔다. 그는 “항상 무사히 내려갈 일이 걱정됐다”면서 “그래도 매킨리 원정이 실패한 것이 다행이다 싶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첫 원정 등반에서 성공했다면 자만심에 가득 차게 됐을 거라고, 그리고 결국은 산에서 큰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이후 그의 신중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등반 스타일이 8000m에서의 성공을 이끌었지만 끝내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는 데날리에서부터 9년 뒤의 일이다.

▶ 정상부 아래 하이캠프(5240m) 전경.
왼쪽 능선 맨 아래가 데날리 패스(5600m).



Mount Hunter 4442m

Mount Foraker 5303m

Kahiltna Glacier

Denali City 4330m

하이캠프에서 본 카힐트나 빙하 일원 전경.
왼쪽 봉이 헌터, 오른쪽 봉이 포레이커, 아래의 캠프지가 데날리 시티.



Pumori

2005 봄 시즌 — 푸모리 — 7161m — 등정



환희와 고통 - 첫 설산 등정과 동료의 죽음

서성호는 데날리에서의 실패를 딛고 푸모리에서 처음으로 설산 등정의 쾌감을 맛본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곧바로 동료 두 명을 잃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다. 2005년 4월 1일자로 부산 지역 한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는 부산산악연맹 소속 원정대원 두 명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

‘히말라야 푸모리 봉 등정에 나섰던 부산 출신 산악인 2명이 하산 도중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외교통상부와 부산산악연맹에 따르면 연맹 소속 히말라야 푸모리 원정대 7명 중 정상군(51·부산 동구 초량동) 씨와 김도영(32·부산 동래 구 온천동) 씨 등 2명이 지난달 29일 정상 등정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됐다가 31일 대원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푸모리는 8000m 거봉이 즐비한 히말라야에서 산악인 사이에서나 존재감을 지닌 산이다.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푸모리를 검색하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레킹 과정에서 스치듯이 바라본 푸모리의 경관에 관한 설명이 사진과 함께 간단하게 올라온 게 대부분이다. 아니면 등산용품 브랜드의 제품명으로 사용되는 ‘푸모리’에 대한 포스팅이다. 더 아래로 내려간다면 ‘뉴스’ 분류에서 눈에 확 띄는 제목이 있다. 대부분 앞에 적은 대로 같은 날 ‘히말라야 푸모리에서 한국인 원정대원 2명 사망’이란 비슷한 소식을 전하는 제목이다.

푸모리는 눈이 깊을 때는 뽀족한 흰 모자처럼 보이고, 거센 바람이 눈을 날려 검은 바위가 드러나면 마치 잘 깎은 팥이를 거꾸로 세워 놓은 모양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산의 이름을 붙인 영국 산악인 조지 맬러리에게는 소녀처럼 보였던 모양이다. “산이 거기 있어 간다”라는 명언을 남긴 그는 티베트 방언으로 소녀라는 뜻의 ‘푸모(Pumo)’와 산을 의미하는 ‘리(Ri)’를 붙여 이름을 지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의 딸’이나 ‘빛나는 보석’이라는 별칭이 더 어울린다고나 할까? 이는 첩첩으로 겹친 능선 뒤로 하얗게 솟은 삼각형의 봉우리가 얼핏 보면 잘 다듬은 보석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푸모

◀ 칼라파타르(5550m)에서 본 푸모리 남동벽.

남체 바자르(3450m)에서 본 구름에 덮인 광데(6186m) 연봉.



리를 아마다블람(6814m), 마차푸차레(6993m)와 함께 네팔 히말라야의 3대 미봉으로 꼽는다.

루크라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에베레스트를 향해 가면 남체 바자르와 캉주마(3550m), 텡보체(3860m), 팡보체(3930m), 덩보체(4410m), 로부체(4910m)를 거쳐 해발 5180m의 고락셉에 이른다. 보통 트레커들은 고락셉에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로 가거나 칼라파타르에서 동쪽의 에베레스트를 조망하고 되돌아가곤 한다. 이때 칼라파타르의 북동쪽 지척에 바라보이는 봉우리가 바로 푸모리다. 에베레스트와는 불과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다. 푸모리 오른쪽으로 링트렌(6713m), 쿼부체(6639m)까지 네팔과 티베트의 국경을 이루는 능선과 봉우리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고 섰다. 쿼부체 동쪽에는 티베트 땅으로 들어앉아 에베레스트 북봉이라 일컫는 창체(7583m)가 빛을 발한다.

푸모리는 1962년 서독·스위스 합동대가 초등한 20년 뒤, 1982년에 한국 산악인으로는 남선우가 처음으로 올랐다. 이후 한국 원정대에게 딱 한 번 정상을 허락했는데, 1992년 정상을 등정한 부산 빌라알파인클럽 소속 대원 3명과 고소 포터 1명이 하산 도중 모두 실종됐다. 이때에는 2005년 부산팀보다 더 큰 희생을 요구했다. 이후 1984년, 1992년, 1994년, 2001년 네 차례에 걸친 한국 산악계의 도전이 무위로 돌아가고 2005년 봄 시즌 부산 합동대가 푸모리를 찾았다.

데날리에서의 등정 실패로 다소 의기소침했던 서성호는 그해 대한산악연맹이 파견한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타지키스탄 파미르고원) 대원으로 참여한 뒤 심기일전해 다시 찾아온 해외 원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경남공고, 동의공고, 경남정보대, 동주대, 부경대 등 부산 지역 5개 학교산악부 OB산악회가 꾸린 합동대에 서성호는 막내로 참가해 선배 4명과 함께 정상에 섰다.

3월 6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원정대는 태국 방콕과 네팔 카트만두를 거쳐 루크라에서 상행 캐러밴을 시작했다. 비와 눈, 안개를 뚫고, 때로는 화사한 햇빛을 받으며 앞서 말한 에베레스트 트레킹



렝보체(3860mm)에서 본 아마디블랄 서벽



전진 캠프(5800m) 아래 암벽지대에서 휴식하고 있는 대원과 고소 포터들.
 앞줄 왼쪽부터 주익 보테, 김도영, 유항미, 이종휘, 정상균,
 뒷줄 왼쪽부터 카지 세르파, 서성호, 푸창가 보테.

의 경로를 따라 카트만두 출발 8일 만에 해발 5300m의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 남동벽~동릉 루트를 택한 원정대는 하루 숨을 돌린 뒤 곧바로 등반에 나섰다. 먼저 전진 캠프(5800m)를 설치한 뒤 5일 동안 고소 캠프 2개(6100m, 6530m)를 설치하고 등반 물자를 올려 정상 등정을 위한 준비를 모두 끝마쳤다.

데날리 등반에서 뛰어난 고소 적응을 보여준 서성호는 물론 다른 대원도 모두 최상의 컨디션으로 정상 등정을 위해 캠프2로 진출했다. 등반 시작 10일째인 3월 29일 새벽 2시께 일어난 대원들은 등반 장비를 착용하고 4시 30분께 정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정상 도전의 날, 데날리에서와는 달리 바람은 강했지만 드물게 쾌청한 날씨의 도움을 받은 서성호는 고소 포터 푸창가 보테와 함께 전위봉을 거쳐 오후 1시 23분께 가장 먼저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게 몰아쳐 등정의 기쁨도 잊은 채 전위봉으로 내려와 후미의 대원들을 기다렸다가 다시 합류했다. 오후 3시 쯤 대원 5명과 고소 포터 3명이 모두 함께 정상에 섰다. 이날 두 번이나 정상에 오른 서성호는 세계 최고봉을 비롯한 쿵부히말의 고봉들을 바라보며 대원들과 함께 난생처음 고봉 등정의 기쁨을 나눴다.

▶ 남동벽 캠프1(6100m)~캠프2(6530m) 구간의 설벽을 등반 중인 대원들.



▼ 남동벽 해발 6100m의 설릉에 세운 캠프1.



하지만 강한 바람에 예상보다 늦어진 등반 속도가 이날 비극의 시작이었다. 하산 도중 유향미가 크레바스에 추락했다가 구조된 충격으로 다른 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정상군이 저체온증으로 탈진 증상을 보였다. 날카로운 동릉에서 맞은 강풍과 흑한에 너무 오래 노출돼 기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날마져 저물어갔다. 오후 6시경 동릉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내려온 서성호는 캠프2에 뛰어 내려가 침낭을 가지고 올라가 정상군에게 덮어주며 하산을 서둘렀다. 그런데 정상군이 덮고 있던 침낭이 자꾸 흘러내리자 김도영이 흘러내린 침낭을 덮어주다 침낭을 잘못 밟아 침낭과 함께 미끄러지면서 시야에서 사라졌다.

서성호는 완만한 경사에서 김도영이 스스로 제동하여 캠프2로 귀환할 것으로 확신하고 카지 셰르파와 함께 탈진한 정상군을 부축하며 하산을 서둘렀다. 얼마 후 정상군의 간청으로 고정 로프에서 하강기를 풀어 주는 순간 카지 셰르파와 정상군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다행히 카지 셰르파는 고정 로프에 발목이 걸려 추락을 모면했지만 정상군은 탈진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 푸모리 정상에 오른 대원들.
왼쪽부터 정상군 유향미 김명수 서성호 김도영.



▼ 고 정상군김도영을 기리는
푸모리 베이스캠프의 추모 케른.



추락해 실종되고 말았다. 누구보다 컨디션이 좋았던 서성호도 날이 저물어 두 대원의 추락 방향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사고 이틀 후 실종됐던 두 대원의 시신은 남동벽 해발 6100m의 설사면에서 발견됐다. 이후 베이스캠프를 고락셀(5180m)으로 옮긴 원정대는 고소 포터들로 시신 수습팀을 구성해 사고 11일 만에 두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여 헬리콥터 편으로 카트만두로 후송했다. 처음으로 산에서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동료를 잃은 서성호의 가슴에는 커다란 응어리가 생겼다. 푸모리는 그에게 정상의 희열과 동료의 죽음이라는 크나큰 아픔과 좌절을 동시에 안겨줬다.

한편으로 푸모리는 이후 서성호가 8000m 고봉으로 이어지는 발걸음을 내딛게 해준 발판이자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젊은 나이에 전쟁처럼 치른 두 번의 등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산을 대하는 자세에서나 등반 기술에서나 한 발 더 나아간 건 분명하다. 푸모리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등반 능력은 이듬해 그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로 이끌었다.

Pasang Lhamu Chuli(Jasamba)
7350m

Cho-Oyu
8201m

Ngojumba Kang I
7916m

Ngojumba Kang II
7743m

Gyachung Kang
7952m

Pumori
7161m

쿤부 빙하 웨스턴콤에서 본 마히랑구르히말의 고봉들.
가운데 봉이 푸모리(7161m).

Imjatse

2006 봄 시즌 — 입자체 — 6189m — 등정





딩보체(4410m)에서 추릉(4730m)으로 이동 중인 대원들.

가볍게 치른 에베레스트 전초전

1969년 결성돼 부산 산악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부산산악연맹은 회원단체로 가맹한 산악회나 지역 산악인으로 꾸려진 합동 원정대가 히말라야는 물론 유럽 알프스와 북미에서 눈에 띄는 등반 성과를 올리는 동안에도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2001년에야 히말라야 8000m급 14좌 가운데 하나인 초오유(8201m)에 처음으로 원정대를 파견했다. 다른 시·도의 산악연맹이 활발한 해외 원정을 벌이는 것과 비교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행보였다.

초오유 원정 이후에도 침묵기를 보내던 중 2004년 부산산악연맹 정기총회에서 21대 회장으로 추대된 하해룡 회장이 에베레스트에 원정대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해외 원정이 부산 산악계에 눈앞의 화두로 떠올랐다. 단지 세계 최고봉이라는 상징성뿐인 에베레스트 대신 등반성이 있는 다른 8000m 봉우리를 오르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부산이라는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우선 에베레스트를 등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힘을 얻었다. 그 결과 2006년을 목표로 원정 준비가 시작됐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대원 선발이었다. 부산산악연맹 가맹단체의 추천을 받은 44명 가운데 체력 테스트를 거쳐 33명이 훈련대원으로 선발됐다. 원정을 한해 앞둔 2005년에는 15명을 선발하고 다시 이 가운데 9명을 1차 원정대원으로 낙점했지만 4명이 개인 사정으로 포기했다.

서성호는 2005년 푸모리 원정에서 보여준 고소 적응 능력과 뛰어난 체력으로 훈련대원 15명에 포함됐다. 하지만 당시 학생 신분이던 그 또한 개인 사정으로 1차 원정대원을 선발하기 전 일찌감치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해외 원정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나 했지만 부산 산악계는 원정대원의 연령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후진 양성의 명분으로 젊은 대원 둘을 재차 설득해 합류시켰다. 정용석과 함께 합류한 스물일곱 서성호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막내 대원이 되어 설산으로 가는 길에 나섰다.

체력·등반훈련으로 1년을 보낸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이하 희망 원정대)'

는 2006년 3월 15일 80여 일간의 장도에 올라 인천과 홍콩을 거쳐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네팔을 통해 티베트로 넘어가 에베레스트 북면 베이스캠프에 들어가려던 원정대는 잠시 걸길로 들게 된다. 푸모리를 오른 서성호와 초오유를 등정한 김진태 권아섬을 제외하면 히말라야 등반 경험이 없는 다른 대원들의 고소 적응을 위해 6000m 대의 입자체를 오르기로 원정 계획을 변경했다. 서성호는 예정에 없던 또 하나의 설산으로 향하는 길에 나섰다.

네팔 쿨부 계곡의 로체 빙하와 로체샤르 빙하를 가르는 지렁이 솟은 입자체는 로체(8516m)를 사이에 두고 북쪽의 에베레스트 정상과는 채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1951년 영국 탐험가 에릭 십튼이 이끈 원정대가 이 일대를 탐사하다 덩보체에서 바라본 봉우리가 눈과 얼음의 바다에 뜬 섬처럼 솟았다고 해서 '아일랜드 피크(Island Peak)'란 이름을 붙였다. 히말라야 어느 봉우리인들 아일랜드 피크 아닌 봉우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1983년에야 지금의 이름인 입자체(Imjatse)로 바뀌었다.

에베레스트와 가까운 만큼 카트만두에서 입자체 베이스캠프로 가는 길은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로 가는 길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희망 원정대는 카트만두에서 루클라까지 경비행기로 이동한 뒤 상행 캐러밴을 시작했다. 문조를 거쳐 이틀째 남체(3450m)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먼발치에서 에베레스트를 눈에 담았다. 사흘째는 왕데(6186m) 연봉에 이어 로체, 아마다블람(6814m), 탐세르쿠(6618m)의 풍광에 취해 강주마(3550m)에 닿았다. 이어 팡보체(3930m), 덩보체(4410m), 추쿵(4730m)을 거쳐 해발 5070m의 입자체 베이스캠프에 발을 들였다. 베이스캠프 높이로만 따지면 티베트의 에베레스트 북면 베이스캠프(5150m)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곳이다.

상행 캐러밴에만 8일을 들인 데 비하면 입자체 등반은 짧게 끝났다. 베이스캠프에서 하루 휴식한 원정대는 다음 날 새벽 곧바로 입자체 등정에 나섰다. 하루에 고도 1100m 이상을 올려야 하는 일정이다. 비록 5000m 대를 넘나드는 트레킹으로 고소에 어느 정도 적응한 트레커들이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오르는 네팔의 대표 트레킹 피크 중의 하나이지만 입자체는 엄연한 만년 설산이다. 에베레스트 도전을 앞둔 이들에게 입자체는 호락호락하게 정상을 내주지 않았다. 대원들은 새벽 1시 30분께 영하 20도의 강추위에 텐트를 나섰다. 차츰 몸 상태가 나빠진 대원들은 중간에 등반을 포기하고 되돌아섰다. 결국 서성호와 김진태만 7시간 10분 만인 오전 8시 40분께 정상에



고소 적응을 위해 추쿵리(5550m)에 오른 뒤 하산길에 아마다블람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대원들. 왼쪽부터 김진태 서성호 권아섬 박종일 홍보성.

올랐다. 북쪽으로는 지척에 솟은 로체, 남쪽으로는 발아래 입자 호수를 비롯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을 발하는 산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지만 좁은 정상에서 풍광을 제대로 감상할 틈도 없이 하산 길을 재촉했다.

둘은 푸모리가 바라보이는 해발 6000m의 양지바른 자리에 한 해 전 푸모리에서 히말라야 품에 안긴 정상군 김도영의 사진을 담은 캡슐을 묻고 등정 3시간 만인 정오께 베이스캠프로 돌아오며 입자체 등반의 마침표를 찍었다. 원정대는 곧바로 캠프를 정리해 반나절 만에 추쿵을 거쳐 덩보체까지 내려갔다. 다음 날 푸모리가 보이는 오쇼 마을에 정상군 김도영의 추모 동판을 설치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를 지낸 원정대는 3월의 마지막 날 루클라를 거쳐 카트만두로 돌아갔다. 이제 서성호의 발걸음은 에베레스트로 향했다.



입자체 정상에 선 서성호.

▶ 입자체 정상부 설벽을 하강하고 있는 외국팀 대원들.





Ombigaichen 6340m

Kangtega 6783m

Ama Dablam 6814m

Numbur 6958m

Kwangde 6186m

Mount Everest

2006 봄 시즌

에베레스트 — 8848m — 등정





‘첫 8000m’에 발을 딛다

에베레스트는 산의 세계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그 존재를 아는, 두말할 것 없는 세계의 최고봉이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표현으로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 오랜 세월 숭한 이들의 동경과 도전의 대상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지극히 특별하고 위대한 산이기도 하다. 정작 8000m 봉우리 가운데 인간이 처음으로 오른 산이라는 이름표는 안나푸르나가 차지했지만 높이가 주는 존재감은 초등을 노리던 20세기 전반기나 현재나 다를 바 없다.

한국인에게는 처음으로 오른 8000m 거봉이라는 이유로 더더욱 에베레스트는 특별한 존재다. 1950년 안나푸르나를 시작으로 산악 강국들이 8000m 거봉 초등 레이스를 펼칠 때 6.25 전쟁을 치르고 전후 복구에 매달리던 한국은 잘 차려진 무대의 관객에 불과했다. 하지만 1977년 ‘한국 최초의 8000m’ 에베레스트를 오른 이후 빠르게 실력을 키운 한국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자를 속속 배출하며 산악 강국의 대열에 올라섰다. 국내 최고봉이 불과 2000m도 되지 않는 나라의 산악인들이 설악산과 한라산에서, 그것도 겨울 한 철의 훈련으로 설산에 도전한 결과다.

이전에도 개인이나 개별 산악회 차원의 거봉 도전은 있었지만 당시 한국 산악계가 범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고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선 것이다. 이것은 서성호가 속했던 2006년 희망 원정대가 에베레스트를 선택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히말라야에서 최고봉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에베레스트를 먼저 올라 존재감을 알리겠다는 의지다. 물론 1977년 원정대는 등반의 준비부터 등정 과정까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만큼 한국인 최초 8000m 등정이자 세계 최고봉 등정의 감격은 남달랐다.

고상돈이 1977년 9월 15일 낮 12시 50분께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밟았다. 그는 “눈보라가 멈추면서 짙은 안개 사이로 청자색 하늘이 나타났다. 발아래 펼쳐진 대운해, 갈날처럼, 아니 거대한 종처럼 솟아오른 높고 낮은 산

◀ 에베레스트 북면 베이스캠프(5150m) 전경.



노스콜(7010m) 아래 설벽을 오르고 있는 서성호(맨 뒤)와 부산팀 대원들.

군. 그야말로 세계의 지붕이다. 그 마지막 땅덩어리는 한 평도 못 되는 좁은 면적이었다. 그 둘레도 10도가량의 완만한 경사, 여기가 세계의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정상이었다.”고 비교적 담담하게 정상 등정의 순간을 전했다. 또 다른 등정기에서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신비롭고 웅혼한 히말라야 연봉들을 굽어보며 보낸 1시간 정도의 그 시간은 내 생애 가장 길고도 짧았던 순간이었다. 내 일생 가장 행복에 겨웠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고 감격에 찬 후기를 남겼다.

그리고 29년 뒤 2006년 서성호는 고상돈의 뒤를 따라 에베레스트로 향했고 첫 도전에서 정상을 밟는 데 성공했다. 희망 원정대는 네팔 쪽의 노멀 루트를 피하고 어느 정도 등반성을 충족하는 티베트의 노스콜~북동릉으로 정상에 오르는 루트를 택했다. 고소 적응을 위해 네팔 히말라야 쿤부히말에 있는 임자체 등반을 마친 대원들은 카트만두로 돌아온 뒤 곧바로 티베트로 향했다. 4월 5일 원정에 필요한 4톤 가량의 화물을 실은 트럭과 함께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코다리에 도착해 네팔과 티베트의 국경인 ‘우정의 다리’를 건너 장무로 들어섰다. 까다로운 통관 절차 탓에 하루를 지체하고 다음 날 장무를 출발해 니알람(3750m), 텡그리(4340m)를 거쳐 카트만두 출발 4일 만에 해발 5150m의 에베레스트 북면 베이스캠프에 입성했다.

◀ 노스콜(7010m-Chang La) 아래 설벽을 등반 중인 각국의 원정대원들.

사방이 탁 트인 광활한 베이스캠프지에는 우리나라 등반대만 해도 부산팀에 앞서 제주연맹, 제주설악, 대전연맹, 전남대, 동국대 등 다섯 팀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게다가 전 세계 20여 개 팀에 더해 7개 팀의 상업등반대까지 들어온 베이스캠프는 카트만두의 시장보다 더 붐볐다. 다른 팀과 달리 임자체를 동반하며 고소 적응을 마치고 들어온 희망 원정대는 4일 만에 해발 1370m의 카트만두에서 5150m의 베이스캠프까지 수직고도 3780m를 올랐지만 고소 증세를 느끼는 대원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조차도 충분하지 않았다. 에베레스트는 서성호가 앞서 오른 데날리나 푸모리, 임자체와는 완전히 다른 산이었다. 임자체에서 고소 적응을 하고 왔더라도 8000m 위의 세상은 그 이상을 요구했다. 그 때문에 원정대는 세 차례에 걸친 고소 적응 등반으로 차츰 고도를 높이며 고소 캠프를 설치해 나갔다.

애초 시즌 초등 팀과 함께 정상에 오르려던 희망 원정대의 계획은 악천후로 초반에 어긋났다. 이후 이어진 고소 적응 등반에서 다른 대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서성호는 김진태와 더불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정된 등반을 모두 해냈다. 그 결과 둘은 함께 가장 먼저 정상에 도전할 첫 등정조로 정해졌다. 등반 시작 30일째가 되는 5월 12일 이른 아침 서성호와 김진태는 다른 대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고소 포터 5명과 함께 베이스캠프를 출발해 마지막 여정에 나섰다.

이들은 사흘 뒤인 15일 해발 8300m의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경사진 야영지 캠프3에 진출했다. 알파미로 간단한 요기를 한 뒤 침낭에 들어가 4시간 정도 인공산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오후 9시에 일어났다. 1시간에 걸쳐 우모복을 입고, 안전벨트를 차고, 고소화를 신고, 산소통을 매며 느리지만 차근차근 등반을 준비했다. 둘은 예정보다 30분 빠른 오후 10시 30분께 텐트를 뒤로 하고 가스와 눈발을 뚫고 헤드랜턴에 의지해 정상으로 걸음을 옮겼다.

북벽을 오른 서성호와 김진태는 정상으로 가는 가장 어려운 구간인 북동릉으로 진입했다. 강슁 빙하와 롱북 빙하를 가르는 북동릉의



노스콜(7010m)에서 본 북릉~북동릉 전경. 오른쪽 암봉이 에베레스트 정상.

북릉상의 캠프1(7010m)~캠프2(7600m) 구간을 등반 중인 서성호.



중간중간에는 그 너비가 1m도 채 되지 않는 칼날 능선이 도사리고 있었다. 왼쪽은 강승벽, 오른쪽은 북벽으로 빙하까지 그 높이가 3000m가 넘는 위태로운 곳이지만 어둠 속에서 고정 로프를 따라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앞으로 나아갔다. 날짜가 바뀐 다음 날 새벽 3시께 해발 8680m에 있는 70~90도 경사의 암벽인 제2스텝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올라선 후 처음으로 베이스캠프와 무선 교신이 이뤄졌다. 둘의 목소리에서 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여명이 밝아오자 정상의 피라미드가 어둠 속에서 차츰 모습을 드러냈다. 제3스텝을 힘들이지 않고 올라선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상까지 이어지는 200여 m의 설릉 아래에 도착했다. 비로소 능선 너머 동쪽으로 흐르는 강승 빙하의 웅대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마지막 설릉을 지나 캠프3을 출발한 지 7시간 40분 만인 5월 16일 오전 6시 13분에 김진태가 정상을 밟았고, 12분 뒤인 6시 25분 서성호도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섰다. 고상돈의 회고처럼 정상은 두 명이 함께 서기에도 비좁은 공간이었다. 날이 좀

해발 8300m 암벽지대에 위치한 캠프3 전경. 오른쪽 암봉이 에베레스트 정상.





정상에 오른 서성호(왼쪽)와 김진태.

더 밝아오자 잊을 수 없는 피라미드 모양의 푸모리와 눈덮인 초오유가 모습을 드러냈다. 시야를 멀리 돌리자 북으로는 티베트 고원, 남으로는 네팔의 고봉이 눈이 닿는 끝까지 펼쳐졌다.

서성호는 원정보고서에 실린 등반기에서 에베레스트 등정의 순간을 싱거울 정도로 담담하게 전했다. “아무 생각 없이 힘들게 능선을 오르니 30여 m 전방에 룡다가 보였다. 순간 정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났다. 힘들게 한발 한발 옮겨 드디어 정상에 도달했다.” 사실 서성호는 정상에서 여유롭게 주변 산군을 감상할 여유라고는 없었다. “대장님의 지시는 간단했다. 사진 촬영, 출발할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다. … 우리는 정상에 오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서둘러 후원사와 협찬사기를 펼쳐 들고, 정상을 배경으로 30여 분간 사진 촬영을 했다.” 서성호는 한해 전 푸모리에서 먼저 간 정상군 김도영의 사진과 원정대원들의 추모 글이 담긴 캡슐을 정상 부근에 묻고 8000m의 첫 경험을 뒤로하며 하산에 나섰다.



정상부 아래 북동릉을 등반 중인 각국의 원정대원들.

Pasang Lhamu Chuli(Jasamba)
7350m

Cho-Oyu
8201m

Ngojumba Kang I
7916m

Gyachung Kang
7952m

Tongqiang Peak
6956m

Ngojumba Kang II
7743m

Pumori
7161m

Lingtren
671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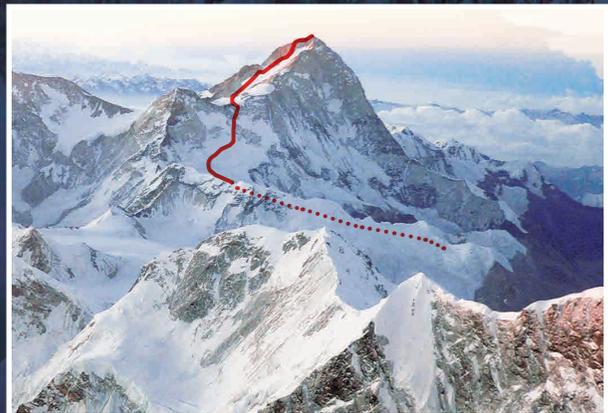
Guangming Peak
6533m

Khumbutse
6639m

에베레스트 정상부에서 본 마하랑구르히말 연봉과
티베트 동북 방하 일원의 고봉들.

Makalu

2008 봄 시즌 — 마칼루 — 8463m — 등정





한 해를 건너뛰고 다시 함께 한 희망 원정대

2004년 시작한 서성호의 고산 등반은 2013년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까지 해마다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네 차례나 이뤄졌는데 그 사이에는 두 차례의 휴지기가 있다. 첫 번째가 2007년, 두 번째가 2012년이다. 두 차례 모두 '학업'과 '직장 생활'이라는 삶의 무게가 산의 무게를 지웠을 때의 일이다.

2006년 세계 최고봉을 오르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고산 등반가가 탄생하리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서성호에게는 그보다는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했다. 끝내 합류하기는 했지만 에베레스트 원정을 중도 포기했을 때처럼 생활고로 휴학과 복학을 되풀이하던 서성호는 9년 만의 대학 졸업을 앞둔 참이었다. 설산의 꿈을 접고 평범한 샐러리맨이 된 그는 K2(8611m)와 브로드피크(8047m) 원정은 눈물을 머금고 사양했다. 그가 없어도 원정은 성공했다. 그는 처음 직장이라는 데 몸담고 일에 매달렸지만 그래도 눈과 마음은 고산에 가 있었다. 결국 서성호는 2008년 희망 원정대의 일원으로 본격적인 고산 등반에 나선다.

앞서 2006년 원정에서부터 희망 원정대와 서성호의 등반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애초 고산 등반 능력을 인정받아 에베레스트 원정에 참여한 그는 한 해를 건너뛰기는 했지만 2008년 원정부터 다시 참여해 희망 원정대의 성공을 함께 한다. 서성호는 희망 원정대가 2007년에 등정한 K2와 브로드피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8000m 거봉을 모두 오른다.

2006년 에베레스트 등정 후 부산산악연맹 차원에서 8000m급 14좌 등정자 배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이듬해 K2와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하자 개인이 아닌 연맹의 이름으로 14좌를 완등하는 것으로 목표를 재설정했다. 결과적으로는 절반의 기간에 목표를 이뤘지만 애초 해마다 한두 봉우리를 올라 2017년까지 완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희망 원정대는 2008년 봄 시즌에 시샤팡마와 로체 연속 등정 계획을 세우고 홍보성 대장과 서성호 김창호 박정용 유항미 이세현 대

◀ 에베레스트 남봉(8749m) 아래에서 본 마칼루 북서면 전경.
맨 위 왼쪽 제일 높은 봉우리는 세계 제3위봉인 강첸중가(8586m).

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를 꾸렸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티베트 내의 정치적 소요 사태를 이유로 들어 시사광마 입산을 불허하는 바람에 출국 일주일 전 급하게 마칼루로 목표를 변경했다. 3월 29일 출국한 원정대는 빠듯한 준비 기간에도 로체보다 마칼루에 먼저 도전한다.

8000m 거봉 가운데 여섯 번째로 1955년 프랑스 원정대가 초등한 마칼루는 높이에서는 이웃한 로체에 이어 다섯 번째다. 네팔 히말라야 바룬히말에 위치한 마칼루는 '검은 귀신'으로 불린다. 흑갈색 화강암으로 이뤄진 마칼루는 멀리서 보면 다른 봉우리보다 훨씬 검어 보인다. 이 검은 귀신은 에베레스트 남동쪽 20km 거리에 네팔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히말라야 주산맥에 솟아 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등반가들은 이 산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는 했다. 엄홍길은 1995년 봄 그의 네 번째 8000m 봉우리인 마칼루 정상을 밟고는 '될 수 있는 한 검은 귀신의 영역에서 한시바삐 벗어나고 싶었다'면서 도망치듯이 베이스캠프로 내려온 뒤 발가락에 피멍이 들도록 뛰다시피 마을로 내려갔다고 한다.



타시가온(2100m) 롯지에서 무지개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서성호와 유향미.

▶ 카우마라(3603m)~십트라(4170m) 구간의 설릉을 오르는 대원과 포터들.





마칼루 베이스캠프(5600m) 전경
 정상부 왼쪽 능선이 북서릉,
 오른쪽 능선이 서릉.

마칼루는 1921년 영국의 1차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이 일대 산군을 탐험하며 촬영한 사진을 통해 세상에 존재를 알렸다. 프랑스가 초등하기 1년 전인 1954년에는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3개국 원정대가 마칼루를 찾았다. 특히 뉴질랜드 원정대는 에베레스트를 초등한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끄는 막강한 팀이었지만 힐러리를 비롯한 대원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패퇴했다.

1950년 안나푸르나를 오르며 최초의 8000m 등정을 기록했던 프랑스 원정대는 1955년 두 번째 8000m 마칼루에서는 장 쿠지와 리오넬 테레이의 초등에 이어 2차, 3차 공격조도 정상에 올라 9명의 대원 모두가 등정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프랑스는 안나푸르나에서 고소 적응 등의 문제로 천신만고 끝에 초등을 이뤘는데 그때의 기억 탓에 마칼루 등반은 철저하게 준비했다. 또 1년 전 정찰 등반에서는 등정 가능한 루트를 찾고 산소기구와 같은 장비 성능을 시험해 개선했다. 이같은 철저한 준비에 날씨와 눈의 상태도 완벽해 상상외로 수월하게 정상에 올랐다. 리오넬 테레이는 자서전 <무상의 정복자>에서 “준비하는데 1년이라는 내 인생을 바친 고봉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간단하게 함락되자 나는 적지 않게 실망했다”고 그때의 경험을 전했다.

희망 원정대는 초등의 프랑스 원정대와 달리 일주일의 준비로 마칼루에 도전장을 냈다. 마칼루는 8000m 봉우리 중에서 베이스캠프까지의 접근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이름났다. 카트만두에서 20인승 전세 경비행기로 툼링타르에 도착한 원정대는 본격적인 캐러밴을 시작했다. 해발 1000m대에서 4000m가 넘는 고도를 오르내리며, 아열대의 저지대에서 혹한의 베이스캠프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경험하며 12일 만에 5600m의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면서 고난의 1차 등반은 성공리에 끝을 맺었다.

희망 원정대는 프랑스의 초등 루트이자 지금도 마칼루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마칼루라에서 북서벽을 통해 정상에 도달하는 노멀 루트를 택했다. 검은 귀신은 희망 원정대에게는 그 불길한



Hunku Chuli
(Pyramid Peak)
6833m

Chamlang 7321m

Baruntse 7152m

Ama Dablam 6814m

Ombigaichen 6340m

차고 빙하 하단부에 있는 중간 캠프(6400m)를 지나고 있는 서성호(왼쪽)와 박정용.



마칼루라(7427m)에 올라서고 있는 김창호.

기운을 뿜어내지 않았다.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등반에 나선 원정대는 두 번에 걸친 고소 적응 등반에서 전진 캠프(5850m)와 중간 캠프(6400m)에 이어 해발 6600m에 캠프1을 설치한 뒤 차고 빙하 위 700여 m의 암·빙·설 혼합지대를 돌파하고 마칼루라(7427m)에 이르는 길을 열었다. 이어 7350m의 설원에 캠프2를 세워 등정 시도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정상 도전을 앞두고 내린 폭설에 긴장하기도 했지만, 정상에 도전한 날에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하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다.

서성호와 김창호, 박정용, 고소 포터 3명으로 구성된 등정팀은 5월 4일 캠프 2를 출발해 2시간 만에 캠프3에 진출했다. 이른 오후부터 여유 있게 휴식한 이들은 오후 10시께 그믐밤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서성호는 입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자 산소마스크를 벗고 등반했다. 마지막 캠프를 출발한지 11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9시께 정상으로 이어지는 북동릉에 올라섰다. 이번에도 서성호는 김창호 박정용에 이어 맨 뒤에 오르면서 캠코더에 대원들의 모습과 주변 풍광

▶ 마칼루라 위 광활한 설원에 세워진 캠프2(7350m)에서 본 마칼루 북서벽 전경.





정상에 오른 치링 도르제
셰르파와 서성호(왼쪽).

을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마지막 캠프를 출발한지 12시간이 흐른 오전 10시 3분부터 15분까지 6명이 차례로 정상에 도달했다. 고소 캠프를 설치하는 동안 몇 차례 악천후를 겪기는 했지만 희망 원정대가 정상에 오르던 날은 프랑스대가 초등하던 날처럼 날씨도, 바람도 이들의 편이었다.

리오넬 테레이와 장 쿠지에 이어 다음 날 정상을 밟은 프랑스 원정대장 장 프랑코는 세 개의 능선이 모이는 마칼루의 정상을 두고 “완벽한 눈의 피라미드로 너무나 뾰족해서 한 손을 그 위에 올리면 손가락 하나는 티베트를, 다른 하나는 네팔을, 세 번째 손가락은 능선을 따라 서쪽에 있는 에베레스트를 가리킨다.”고 묘사했다. 그의 말대로 마칼루 정상은 온전히 두 발로 딛고 서기 어려울 정도로 뾰족해 한 발을 정상에 디디면 다른 한 발은 세 개의 능선 또는 설사면 중 한 곳에 디뎌야만 한다. 그래서 서성호를 비롯한 대원들은 정상 아래에서 정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푸모리에서 먼저 떠난 정상군 김도영 선배의 사진을 담은 물통을 정상에 묻고 안전한 하산을 빌었다.

◀ 정상부 아래 전위봉을 등반 중인 고소 포터와 대원들.



Nuptse
7864m

Lhotse
8516m

South Col
7906m

Mount Everest
8848m

마칼루 정상부에서 본 에베레스트 산과,
왼쪽 봉우리부터 넵체(7864m), 로체(8516m), 에베레스트(8848m).



Lhotse

2008 봄 시즌

로체 — 8516m — 등정



13일 만에 두 개의 8000m에 오르다

서성호는 그에게 두 번째 8000m 봉인 마칼루를 오르면서 에베레스트 이후 1년간의 공백을 말끔하게 지워버렸다. 하지만 2008년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직 로체가 남아 있었다. 게다가 시간도 그가 속한 희망 원정대의 편이 아니었다. 마칼루 등정 이후 몬순이 다가오기 전까지 로체를 오르는 데 주어진 시간은 보름 남짓이었다. 한시라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던 원정대는 마칼루 등정 대원들이 베이스캠프로 내려오자마자 짐을 꾸렸다.

애초 헬리콥터를 이용해 빠르게 로체 베이스캠프로 이동하려던 계획은 처음부터 어그러졌다. 등반 성수기를 맞아 헬리콥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오락가락하는 날씨도 미덥지 못했다. 설령 헬리콥터를 구한다 하더라도 기상이 나빠지면 며칠을 묶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원정대는 걸어서 이동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마칼루 등정 3일 후인 5월 8일, 대원 6명과 고소 포터 3명, 로컬 포터 11명으로 구성된 희망 원정대는 마칼루 베이스캠프를 떠나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바룬 빙하를 건너 바룬체 하이캠프(5800m)에서 하룻밤을 보낸 원정대는 이스트콜(6110m)과 웨스트콜(6135m), 압푸랍차라(5845m) 등 6000m 대의 고개 세 개를 넘어 쿡부히말 중앙부로 들어섰다. 덩보체로 가는 길에는 바룬체와 아마다블람이 이들을 배웅했다.

덩보체에서부터는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통상적인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로 가는 캐리밴에 나섰다. 페리체와 로부체를 거쳐 원정대는 로체 베이스캠프까지 올라가지 않고 해발 5180m에 위치한 고락셍 로지에 여장을 풀고 임시 베이스캠프로 삼았다. 당시 중국이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을 위해 티베트의 북면 루트를 차단하는 바람에 네팔의 남면 에베레스트·로체 베이스캠프는 80여 개 팀의 대원과 현지 고용인 1000여 명이 몰려 작은 마을을 이뤘다.

마칼루에서 로체까지 걸어서 이동한 최초의 한국 등반대로 기록된 희망 원정대는 그전 해 K2 등정 후 브로드피크를 4일 만에 오른 경험으로 로체도 단기간에 등정

◀ 웨스트콜(6135m)에서 훈쿠 빙하로 내려서기 위해 길이 350여 m, 경사 60~70도의 암빙설 혼합지대의 하강을 준비하고 있는 대원과 포터들.



Kail himal
6985m

West Col
6135m

Panch Pokhari

암푸랍차라(5845m)에서 본 훈쿠 빙하.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정상 등정 대원은 이번에도 컨디션이 좋은 서성호와 김창호로 정하고 다른 대원들은 해발 7300m의 캠프3을 목표로 등반을 준비했다. 희망 원정대는 스위스대가 초등한 서벽 루트를 선택했다. 에베레스트로 오르는 길에서 갈라져 로체로 향하는 고전적인 루트로 에베레스트와 루트의 상당 부분을 공유한다.

네팔 히말라야 쿨부히말에 위치한 로체는 티베트어로 '남봉'을 뜻한다. 에베레스트의 남쪽에 있는 봉우리란 뜻으로 실제로 로체는 에베레스트와 고작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 탓에 높이로는 세계 4위 봉이지만 에베레스트의 위성봉으로 여겨져 비교적 늦게 도전받아 초등도 늦게 이뤄졌다. 그러나 8000m급 14좌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건 에베레스트와는 사우스콜(7906m)을 경계로 분리된 엄연한 독립봉이기 때문이다.

로체 정상에 오르겠다는 인간의 욕망은 에베레스트가 초등된 직후 시작됐다. 1955년 오스트리아·스위스·미국 합동대가 첫 등반을 시도했지만 8100m까지 진출한 뒤 기상 악화 탓에 돌아섰다. 1956년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스위스는 로체와 에베레스트 두 봉의 등정을 목표로 대규모 원정대를 꾸렸다. 스위스 원정대는, 1955년 마갈루 초등에 성공한 프랑스대의 고소 적응과 개선된 등반 장비, 원정대 조직을 본받았다. 특히 쿨부 아이스폴을 통해 웨스턴쿨으로 간 다음 로체 사면을 통해 사우스콜로 가는 익숙한 루트를 택했다. 아이스폴에서 화약을 사용하며 세락을 부수고 루트를 개척한 스위스대는 해발 7925m에 캠프6을 설치하고는 기상 악화로 일단 베이스캠프로 내려왔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날씨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비장한 각오로 로체 공략에 나섰다. 그런데 고소 캠프로 물자를 올리는 동안 날씨는 호전됐고, 5월 18일 에른스트 라이스와 프리츠 루이징거가 정상을 밟았다. 로체 초등에 성공한 이들은 곧바로 영국에 이은 에베레스트의 2등에도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로체 남벽은 빙하에서 정상까지 3300m를 치솟아 오른 수직의 암·빙벽으로 히말라야에서 가장 높고 험한 벽으로 정평이 나 있다. 1975년 위대한 산악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리카르도 캐신이 이끈 이탈리아 원정대는 라인홀트 메스너를 비롯한 이탈리아 최고의 등반가 14명으로 구성됐다. 범국가적 지원을 받아 군용 C-130 허큘리스 수송기 2대를 동원해 장비를 실어 날라 로체 남벽에 도전하지만 끊임없는 폭설과 눈사태가 이어지는 절망적인 날씨 탓에 등반은 중단됐다. 라인홀트 메스너에 이

▶ 암푸랍차라(5845m)에서 로체 남벽을 바라보고 있는 서성호.





Ama Dablam 6814m

Ombigaichen 6340m

Kangtega 6783m

Thamserku 6618m

쿤부 계곡의 두사(4503m)에서 본 힌쿠히말 연봉.
강가의 마을은 페리체.



어 두 번째로 8000m급 14좌를 완등한 폴란드의 예지 쿠쿠츠키는 1989년 남벽을 오르다 로프가 끊어져 3000m 아래로 추락사했다.

스위스대의 초등 도전도, 이탈리아대의 남벽 도전도 이제 옛이야기가 됐다. 로체로 향한 희망 원정대의 구성은 그들에 비하면 단출했다. 대원 6명의 원정대는 베이스캠프 도착 다음 날 새벽 곧바로 등반에 나서 해발 6500m의 캠프2에 올랐다. 고정 로프를 이용해 빠르게 고도를 높인 서성호와 김창호 2인조는 다음 날 해발 7850m의 캠프4로 진출해 정상 등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자정을 넘기고 날씨가 바뀌자마자 장비를 꾸린 둘은 새벽 2시께 텐트를 박차고 나선다. 인공산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더 높은 곳을 향해 한 발 한 발 움직였다. 마지막 캠프를 출발한 지 7시간 45분 만인 5월 18일 오전 9시 45분께 서성호는 김창호, 고소 포터 치링 도르제 세르파와 함께 정상에 올라섰다. 정상은 며칠 전 오른 마칼루와 마찬가지로 밟고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뽀족했다.

로체 정상에서는 남쪽으로 드문드문 눈을 덮어 쓴 거무스름한 로체샤르(8382m) 뒤로 13일 전 올랐던 마칼루가 설산의 파노라마와 흰 구름을 배경으로 날카롭게 솟았다. 북쪽으로는 오전의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는 에베레스트가 손에 잡힐 듯했다. 서성호와 김창호는 베이스캠프 도착 3일 만에 정상에 올라, 2년 전 이탈리아팀이 세운 최단기간 등정 기록(베이스캠프 도착에서 등정까지 4일 소요)을 경신했다. 곧바로 다음



서벽 노멀 루트상의 캠프4(7850m).

◀ 쿨부 빙하 아이스폴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서성호.



로체 정상에 오른 지링 도르제, 세르파와 서성호(오른쪽).

날 철수한 희망 원정대는 이 해 봄 시즌에 에베레스트·로체 베이스캠프에 가장 늦게 들어와 가장 먼저 떠나는 팀이 됐다.

마갈루와 로체를 오르며 서성호와 김창호는 서로를 '발견'했다. 말 한마디 내뱉는 것조차 힘겨운 죽음의 지대에서 손짓 한 번, 눈빛 한 번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파트너의 존재는 등반에서 좋은 날씨에 비견할 만하다. 메스너는 1986년에 그의 14번째 마지막 8000m 봉인 로체를 함께 오른 한스 카머란드에게 그런 감정을 느꼈다. 텐트를 후려치는 폭풍설로 철수를 고민하던 메스너는 카머란드가 등정을 결심하고 채비를 차리자 군말 없이 장비를 준비해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때맞춰 날씨가 호전되며 두 사람은 로체 정상을 밟았다. 메스너가 주저 없이 카머란드의 판단에 따라 등반에 나선 것은 그와 함께한 10차례의 8000m 거봉 등반으로 쌓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메스너는 '카머란드가 큰 등반에서 더할 나위 없는 이상적인 파트너'가 되리라는 걸 알았고 이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아무튼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성호와 김창호도 이때 맺기 시작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후 10번의 8000m 거봉 도전을 함께 하게 된다.

◀ 에베레스트 남동릉에서 본 로체 북면 정상부 전경. 아래 설원이 사우스콜(7906m).

Kangchenjunga 8586m

Makalu 8463m

Lhotse Shar 8382m

Barun Glacier

로체 정상에서 본 마칼루-바룬 국립공원 전경.

Manaslu

2009 봄 시즌 ——— 마나슬루 — 8163m — 등정





길고 긴 폭풍설이 그친 사이 정상을 딛다

2007년 한 해를 고스란히 쉬었지만 다음 해 변함없는 등반 능력을 보여주며 마칼루와 로체 연속 등정에 성공한 서성호는 2009년 더 길고, 더 어려운 원정에 나선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을 목표로 거침없이 달리는 희망 원정대의 등에 올라타고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릴 틈도 없이 한 해 내내 히말라야의 깊은 골짜기와 능선, 봉우리를 땀 흘리게 된다.

2006년 에베레스트를 시작으로 2007년 K2와 브로드피크, 2008년 로체와 마칼루 등정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완등 레이스를 펼치기 시작한 희망 원정대는 이런저런 안팎의 사정으로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나머지 9개 봉을 올라야만 했다. 그래서 2009년 봄 시즌에 8000m 3개 봉을 오르는 90일간의 야심 찬 장정에 나선다. 목표는 네팔 서부에 있는 마나슬루, 다울라기리I, 안나푸르나I이었다.



베이스캠프(4800m)에서 무사 등반을
지원하는 라마제를 지내는 원정대.

◀ 사마마을 어귀의 스투파(불탑). 배경의 설연이 휘날리는 봉우리는 마나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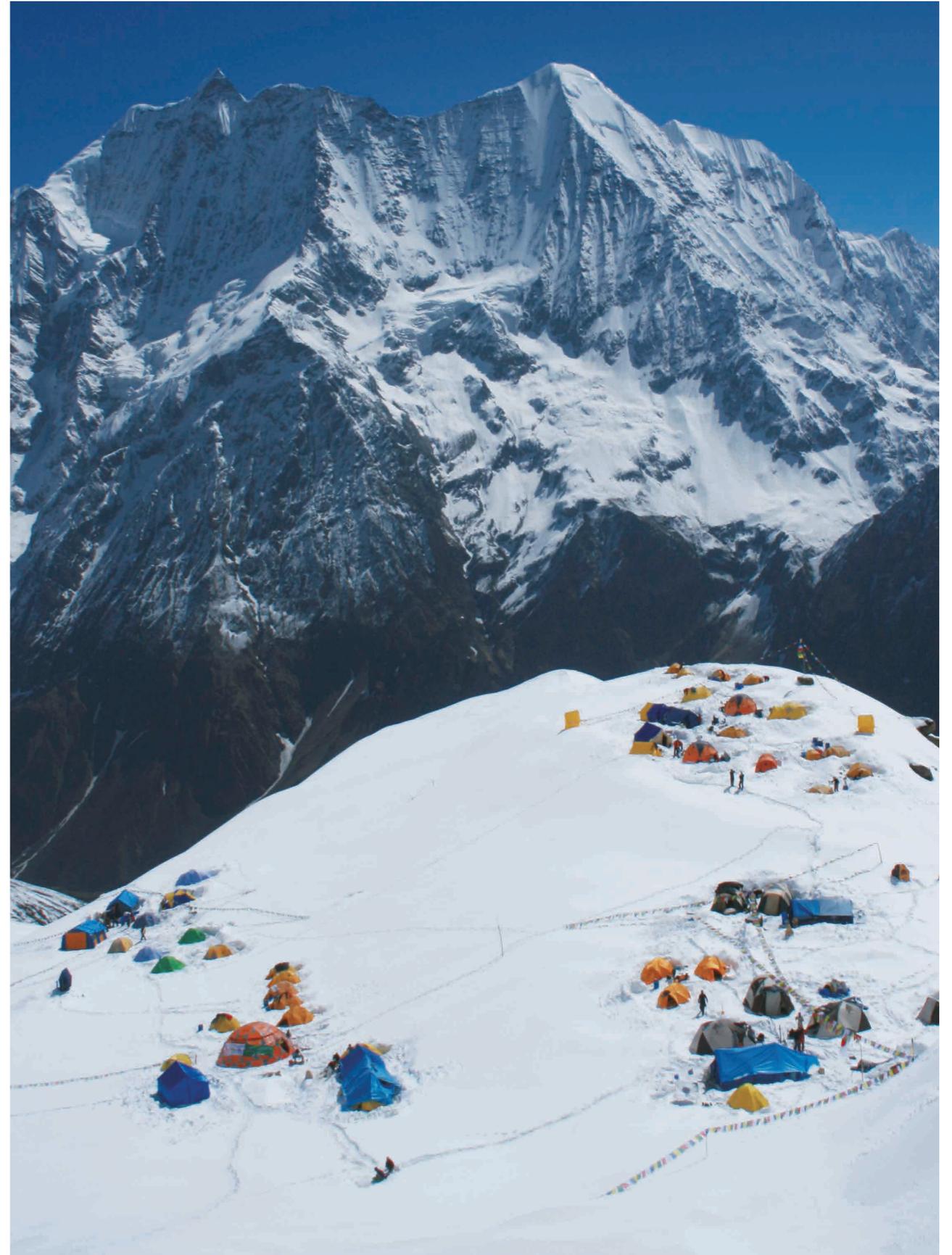
네팔 히말라야에는 8000m가 넘는 고산이 많지만 에베레스트와 로체, 칸첸중가, 마칼루, 초오유 등 여러 봉우리가 중국이나 인도와의 국경에 걸쳐 있다. 온전하게 네팔 땅에만 속한 8000m 거봉은 모두 서부에 모여 있는데 마나슬루, 안나푸르나I, 다올라기리I 세 봉우리이다. 희망 원정대는 이 가운데 카트만두에서 가깝고 가장 동쪽에 있는 마나슬루에 먼저 도전한 뒤 가장 서쪽에 있는 다올라기리I,中间的 안나푸르나I 순으로 도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계획은 언제나 계획에 그칠 뿐이라는 말처럼 결과적으로 이 해에 마나슬루와 다올라기리I의 등정에는 성공했지만 안나푸르나I은 오르지 못했다.

1950년 안나푸르나에서 시작된 8000m 거봉 초등 레이스는 1955년 마칼루와 칸첸중가가 각각 프랑스와 영국대에 의해 6, 7번째로 초등되면서 절반에 이른다. 다음 해인 1956년에는 한 해 가장 많은 3개 봉이 초등되는데 그 시작이 일본 원정대가 오른 마나슬루다. 이어 스위스가 로체를, 오스트리아가 가셔브룸II를 초등한다. 마나슬루는 8000m 거봉 가운데 8번째이자 일본, 나아가 아시아 국가가 처음으로 초등했다. 마나슬루는 높이에서도 다올라기리I(8167m)과 낭가파르바트(8125m) 사이 8번째다. 마나슬루의 현지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을 뜻하는 ‘마나사’로, 마나슬루는 ‘영혼의 산’이란 의미다. 마나슬루는 주변의 마나슬루 북봉(7157m), 피크29(7871m), 히말출리(7893m) 등을 거느린 산군의 주봉 구실을 한다.

마나슬루에 대한 도전은 네팔왕국이 개국한 직후인 1950년 시작된다. 영국의 킬먼 탐사대가 처음 마나슬루를 노린 데 이어 일본이 국가적 사업으로 원정을 추진하며 초등에까지 이른다. 패전국 일본은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삼아 부흥을 노리면서 국운을 걸고 1952년부터 마나슬루에 도전한다. 처음 교토대산악부가 원정을 추진하다가 거국적인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본산악회가 맡으면서 히말라야위원회가 조직되고 마이니치신문사가 스폰서로 나섰다.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정찰대와 원정대를 잇따라 파견한 끝에 1956년 마키유코가 이끈 일본 원정대는 등반 시작 40여 일만에 초등에 성공한다. 5월 9일 8시께 이마니시 토시오와 대원과 고소 포터 갈첸 노르부 세르파가 7800m의 캠프6을 출발한 뒤 바람과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날씨의 도움을 받아 정오를 30분 넘긴 시각에 세모꼴의 마나슬루 정상에 올라섰다. 마나슬루 등정은 일본이 산악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

▶ 마나슬루 북면 베이스캠프(4800m) 전경. 총 22개 팀이 설치한 텐트는 무려 100동이 넘었다.





북동벽 캠프1(5800m)~캠프2(6400m) 구간의
아이스폴 지대를 등반 중인 대원들.



가 됐다. 일본은 마나슬루 초등 이후 국가적으로 고산 등정 열풍이 불면서 이후 20년간 히말라야에서 7000m급 21개 봉과 6000m급 19개 봉을 초등하는 성과를 거뒀다.

마나슬루는 일본에는 패전의 아픔을 씻어준 '환희의 산'이지만 한국 산악계에는 '비운의 산'이다. 1971년 북동릉 루트에 도전한 한국 원정대의 김기섭이 7600m에서 추락사했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인 1972년에도 북동릉 6500m의 캠프3에서 대원 5명과 고소 포터 10명이 눈사태로 사망하는 대참사를 겪었다. 거둬놓은 이 때의 마나슬루 원정에서 김기섭 호섭 형제가 희생되는 비극이 있었다. 한국은 1980년 봄 시즌 동국대산악회의 서동환 대원이 정상을 밟으며 숙원을 풀었다.

그러나 2009년 마나슬루에 도전한 서성호에게 비운은 멀찌감치 비껴났다. 뼈뚫은 일정에 쫓기고 거친 날씨의 방해를 받았지만 날씨가 호전된 틈을 놓치지 않고 정상에 올라섰다. 이번에는 한 해 전의 6명에서 더 단출해진 홍보성 김창호 남정환 서성호 4명으로 구성된 원정대가 봄 시즌 등반을 위해 나섰다. 3월 16일 카트만두에 도착한 원정대는 해발 570m의 저지대에서 출발해 서서히 고도를 높여 길을 뚫고 9일 만에 해발 4800m의 마나슬루 북면 베이스캠프에 들어갔다.

봄 시즌 8000m 3개 봉우리를 노리는 희망 원정대는 조금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마나슬루를 올라야 이후 다올라기리I과 안나푸르나I의 등반을 계획대로 해낼 수 있었다. 4월 2일 등반에 나선 서성호는 김창호 남정환과 함께 3일 만에 1972년 한국팀 대원과 고소 포터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캠프2로 가는 루트를 개척했다. 이후 폭설로 5일간을 베이스캠프에서 보낸 이들은 날씨가 좋아진 틈을 타 4일 만에 북릉의 7500m 지점까지 올라갔지만 강풍에 밀려 등정을 단념하고 돌아섰다. 며칠 후 두 번째 등정 시도도 폭풍설로 무산됐다.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었던 희망 원정대는 원정대를 둘로 나눴다. 남정환이 다올라기리I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기 위해 먼저 마나슬루 베이스캠프를 떠났다. 4월 말에 접어들어 날씨가 호전되자마자 서성호와 김창호는 고소 포터 락파 세르파와 함께 베이스캠프를 출발해 이틀 만인 26일에 6900m의 캠프3에 진출했다. 잠깐 눈을 붙인 이들은 오후 10시께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영하 30도의 혹한을 뚫고 경사 40~50도의 빙설벽 구간을 3시간 만에 돌파한 세 사람은 새벽 1시께 북릉의 드넓은 설원 지대에 올라섰다.

◀ 캠프2(6400m) 아래 설벽을 오르고 있는 대원들.



마나슬루 정상부 아래에 선 서성호.

청빙 상태의 설원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마나슬루 등정 경험이 있는 락파 셰르파가 있었지만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반 루트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몰아치는 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 옳은 루트를 되찾기를 거듭한 이들은 새벽 어스름의 설원을 통과해 동봉을 지나 가파른 빙설벽의 헤드월을 올라 몇 걸음을 더 나아가자 더는 올라갈 곳이 없었다. 이들 앞에는 오직 고정 로프가 걸려 있는 눈 덮인 작은 암봉뿐이었다. 4월 27일 오전 8시 15분, 캠프3을 출발한 지 10시간 15분 만에 고도차 1260m를 극복하고 정상에 올라 봄 시즌 초등을 이뤄냈다. 서성호와 김창호는 45분간 정상부에 머문 뒤 발걸음을 되돌려 9시간 만인 오후 6시께 베이스캠프까지 하산을 마쳤다.

이후 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다올라기리와 안나푸르나 일대는 연일 폭설이 이어졌다. 게다가 왕정이 무너지고 들어선 네팔의 새 정부는 혼란이 더해져 다올라기리 등반 허가를 받으려면 원정대장이나 대원이 직접 관광성을 찾아 등반 브리핑을 해야 했다. 원정대는 하는 수 없이 다올라기리로 바로 이동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먼저 베이스캠프로 갔던 남정환 대원까지 모두 카트만두로 철수했다.

◀ 정상으로 이어지는 북릉 빙설지대. 강풍이 불어 눈이 없고 청빙으로 형성돼 있어 등반이 매우 까다롭다.



마나슬루 정상부에서 본 네팔과 티베트의 국경을 가르는 쿠팡히말 연봉.

Dhaulagiri I

2009 봄 시즌 ————— 다올라기리 | - 8167m - 등정





눈사태와 폭풍설, 강풍도 막지 못한 길

2009년 서성호를 비롯한 4명으로 구성된 희망 원정대는 애초 마나슬루, 다울라기리 I, 안나푸르나 I 세 개의 8000m 거봉을 봄 시즌에 오를 계획이었다. 넉넉지 못한 예산에 빠듯한 일정, 간신히 구성된 원정대까지 온갖 악조건 속에 부산을 떠난 희망 원정대는 첫 번째 목표인 마나슬루를 성공적으로 등정했다. 그렇지만 이후로는 하늘도, 사람도 원정대의 발목을 잡아채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울라기리와 안나푸르나를 포함한 세 산군 일대에 폭설이 이어진 데다 네팔 정부가 등반 허가 발급 규정을 바꿔 이전과는 달리 반드시 원정대의 일원이 직접 카트만두의 관광성을 찾아가 등반에 대해 브리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희망 원정대는 애초 마나슬루 등정 후 곧바로 다울라기리 I로 이동하려던 계획을 접고 전원이 카트만두로 철수했다.

까다로운 절차를 마무리하느라 계획보다 열흘 정도 지체한 원정대는 부지런히 다울라기리 I로 향했다. 카트만두를 빠져나와 이틀 만에 안나푸르나 I과 다울라기리 I을 가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계곡에 있는 마르파(2670m)에 도착했다. 이어 여기



상행 캐리밴 도중 얼음을 뚫고 올라온 야생화를 촬영하고 있는 서성호

◀ 담푸스 패스(5258m)를 향해 설사면을 횡단하고 있는 대원과 포터들. 위의 봉우리는 타파 피크(Thapa Peak) 또는 마르파 피크(Marpha Peak)로도 불리는 담푸스(6012m).

▼ 다올라기리 I 북면 베이스캠프(4740m)에서 본 북동콜(5877m) 아래 아이스폴 지대.
오른쪽 눈에 덮인 검은 암벽은 알프스의 아이거 북벽과 닮아 '다올라기리 아이거'로 불린다.



서 3일 만에 해발 4740m의 다올라기리 I 북면 베이스캠프에 들어섰다. 이제 서성호는 다섯 번째 8000m 거봉인 '흰 산' 앞에 서게 됐다.

높이 8167m로 7번째 고봉인 다올라기리 I은 히말라야 8000m 거봉 초등의 시대가 저물어 갈 무렵인 1960년 스위스 원정대가 14개 봉 가운데 13번째로 초등했다. 어쩌면 다올라기리는 스위스대의 초등보다 10년 앞서 안나푸르나 대신 '인류 최초의 8000m'라는 영예를 얻을 뻔했다. 1950년 프랑스대는 이웃한 다올라기리와 안나푸르나 2개 봉의 등반 허가를 받고 현지에 가서 적당한 산을 골라 오르기로 했다. 원정대는 먼저 여러 팀으로 나눠 다올라기리에 오를 루트를 찾았다. 그중 한 정찰대가 능선을 넘고 계곡을 건너 간신히 북면이 바라보이는 지점에 갔지만 그 어마어마한 수직 고도에 얼어붙고 말았다. 이어 동면과 남면도 정찰했지만 등반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안나푸르나로 발길을 돌렸다.

당시 프랑스 원정대장이었던 모리스 에르조그는 등반기 <최초의 8000m 안나푸르나>에서 북벽을 정찰하고 온 그에게 동료들이 "다올라기리는 어떻게 생겼던가? 그 북벽의 계곡물은 어디로 흘러가던가?"라고 묻자 "그 물은 달 속으로 흘러가더군"이라고 다올라기리의 어려움에 직면한 느낌을 전했다.

▶ 북동콜 아래 설벽을 오르고 있는 서성호.





캠프3에서 취사 중인 서성호

프랑스대에 이어 1953년 스위스대가 서면에서 등정을 시도했다가 곧 포기하고 북면을 노렸지만 7770m까지 오른 뒤 후퇴했다. 이어 1954년 아르헨티나, 1955년 독일·스위스 합동대, 1956년 다시 아르헨티나에 이어 1958년 스위스, 1959년 오스트리아까지 모두 고배를 들어야 했다. 일곱 번의 전초전을 치르고 난 다음 해인 1960년 마침내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1960년 스위스대는 경비행기를 이용해 해발 5258m의 담푸스 패스로 대원과 물자를 실어 날랐다. 이어 해발 5877m의 북동골에 착륙해 가장 높은 빙하 활주로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기록을 세웠다. 딱 한 달에 걸쳐 물자를 올린 스위스 원정대는 1960년 5월 13일 오전 8시께 쿠르트 디엠베르거를 비롯한 4명의 대원과 고소 포터 2명이 무산소로 마지막 캠프를 나선 지 4시간 만에 정상에 올랐다. 바람 한 점 없는 이상적인 날씨 덕분에 1시간 동안 정상에 머물렀다. 10일 뒤 2명의 대원이 또 정상에 올라 총 8명이 정상을 밟았다.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티베트 땅의 마지막 남은 시샤팡마를 제외하면, 다울라기리 I 등정으로 모든 8000m 거봉의 초등이 끝나면서 히말라야 등반의 황금시대는 막을 내린다.

히말라야 거봉 등정의 역사에서 보면 다울라기리 I은 유난히 오르기 어려운 산이었다. 무려 9번의 도전 끝에 등정한 에베레스트에 이어 초등이 이뤄지기까지 두

◀ 북동벽 캠프3(7100m)에서 본 안나푸르나 산군. 중앙의 제일 높은 봉이 안나푸르나 I (8091m).

번째로 많은 8번의 도전을 받은 산이다. 초등 후에도 10년이 지나서야 일본 원정대에 의해 재등이 이뤄졌다. 또 초등된 북동릉 루트 이후 두 번째 루트를 개척하는 데도 18년이나 걸렸는데, 1978년에야 역시 일본 원정대가 남릉 루트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1월 부산 합동대의 최태식이 고소 포터 2명과 함께 초등에 성공했다.

다올라기리 I에는 15개 정도의 루트가 개척됐지만 대다수 원정대가 노멀 루트인 스위스의 초등 루트로 오른다. 2009년 봄 시즌 희망 원정대와 전북연맹팀, 오은선팀, 그리고 여름 시즌에 도전한 코오롱스포츠팀도 이 루트를 택했다. 마나슬루에서 고소 적응을 한 서성호와 김창호는 빠른 속도로 다올라기리를 오를 계획이었다. 첫날 캠프1(5877m)을 거쳐 캠프2(6600m)까지, 둘째 날 캠프3(7100m)까지 진출한 뒤 셋째 날 등정 후 베이스캠프까지 하산하려고 했다. 소위 '월 푸시 스타일' 등반이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상황이 닥치면 예상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5월 13일 아침 서성호와 김창호가 정상 공략을 위해 출발하자마자 북벽 아래 '다올라기리 아이기'로 불리는 검은 암벽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황급하게 피해야 했다. 암벽지대를 지나자 눈은 허벅지까지 빠졌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빙하의 세력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운행은 지연됐다. 캠프2로의 진출을 포기한 둘은 간신히 광활한 북동릉 안부 설원에 도착해 하룻밤을 보냈다. 이 설원은 1960년 스위스대가 초등할 때 물자와 대원을 실어 나른 경비행기가 착륙할 정도로 경사가 완만하고 넓은 지대다.

5월 14일 새벽이 되자 간밤에 휘몰아치던 폭풍설이 멎고 정상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무릎까지 빠지는 심설을 뚫고 설원지대를 통과해 오전 10시께 북동릉의 해발 6600m에 있는 캠프2에 올라 일찌감치 운행을 중단하고 휴식에 들어갔다. 다음 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눈을 뜬 이들은 서로 로프도 묶지 않고 강풍 속에 피켈 한 자루에 의지한 채 고도를 높여 오후 1시께 해발 7100m의 북동벽에 마지막 캠프인 캠프3을 설치했다. 바위 사면에 설치한 캠프지에서 동쪽으로는 다음에 오를 만나푸르나가 운해 위로 솟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제트기류가 정체하면서 텐트가 찢어질 정도의 강풍을 몰고 왔다. 완전히 고립돼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과 차로 식사를 대신하며 이틀간을 버틴 서성호와 김창호는 5월 18일 새벽 4시 45분께 바람이 수그러들자 망설임 없이 텐트를 나섰다. 티베트 고원으로 여명이 밝아오는 가운

▶ 해발 7500m 대의 북동 솔더를 오르고 있는 서성호.





정상으로 이어지는 서릉에 올라서고 있는 서성호.

데 걸음을 내디딘 이들은 2시간 먼저 출발한 독일과 일본 팀을 따라잡은 뒤 함께 북벽 횡단에 나섰다. 서성호와 김창호는 정상부 아래 강풍으로 노출된 40~50도 경사의 설벽을 통과하고 암릉을 지나 마침내 다올라기리 I 정상부에 올라섰다.

지친 몸으로 캠프3을 출발한 지 9시간 40분 만인 오후 2시 25분이었다. 바위가 노출된 넓고 평퍼짐한 정상부에서 서성호는 김창호와 함께 등정의 감격을 만끽하며 파노라마로 펼쳐진 네팔 중앙부의 산군을 감상했다. 20일 전 올랐던 마나슬루 산군과 앞으로 오를 안나푸르나가 자태를 뽐냈다. 등정 2시간이 지나 하산에 나선 이들은 캠프3에서 하룻밤을 더 보낸 뒤 다음 날 출발 일주일 만에 베이스캠프로 무사히 귀환했다.

이어서 마지막 등반 대상지인 안나푸르나 I로 이동하려 했으나 포카라 지역은 물론 안나푸르나 산군 전체가 몬순의 영향권에 진입한다는 기상 예보로 등반을 단념하고 원정대를 둘로 나눠 철수를 단행했다. 현지 고용인들은 상행 캐러밴 루트였던 마르파로 철수하고, 대원들은 1962년 한국 최초의 히말라야 원정대인 다올라기리 II 정찰대(대장 박철암)의 상행 캐러밴 루트인 다올라기리 산군 서쪽 므약디 계곡을 따라 하산길에 나섰다.

▶ 정상에서 60m 거리에 있는 서릉 전위암봉에 오른 서성호.





Mukut Himal
6639m

Sita Chuchuta(Tukuhe West)
6611m

Dhaulagiri I
West Foresummit

French Pass
5360m

다울라기리 I 정상부에서 본 다울라기리 산군.

Annapurna I

2009 가을 시즌 ————— 안나푸르나 I — 8091m — 7200m 도달





8000m에서 겪은 첫 번째 좌절

2006년 에베레스트 등정 이후 쉽없이 오르고 또 올랐던 서성호와 희망 원정대는 3년 만에 비로소 긴 여정에서 씬표를 찍는다. 이들은 '최초의 8000m'로 불리는 안나푸르나 I에서 첫 실패를 맛봤다. 서성호는 6번째, 희망 원정대는 8번째 8000m 거봉 등반에서의 일이다. 이후 희망 원정대는 2011년 안나푸르나 I에 재도전해 정상 등정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이후로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7차례의 등반으로 남은 7개 봉우리의 정상에 올랐다. 결과적으로 2009년의 안나푸르나 I은 희망 원정대에 유일하게 좌절을 안겨준 산이었다.

엄홍길도 안나푸르나 I에서는 5번의 좌절을 겪고 6번째 도전으로 정상을 밟을 수 있었다. 그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 히말라야 8000m 등반에서 가장 처절하고 피눈물나는 등반을 한 산으로 기억한다. 안나푸르나 I에서의 여러 차례 등반 도중 그는 3명의 동료들을 잃었다. 그 또한 1998년 봄 다섯 번째 도전에서 미끄러지는 고소 포터를 구하려다가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며 죽을 고비를 넘긴 뒤 고통스러운 재활을 이겨내고 1999년 재도전해 마침내 정상을 밟았다.

애초 마나슬루와 다울라기리 I에 이어 안나푸르나 I을 등반하려던 희망 원정대의 계획은 때이르게 다가온 몬순 탓에 접을 수밖에 없었다. 다울라기리 I 등정 후 베이스캠프에서 받아본 10일간의 기상 예보에는 며칠 후 안나푸르나 산군 전체가 몬순 영향권에 진입하는 길로 나왔다. 결국 안전을 우선하는 원정대는 다음을 기약하고 봄 시즌 안나푸르나 등반을 포기하고 귀국했다. 봄 시즌 3개 봉우리 등정은 물거품이 됐지만 애초 목표한 한 해 3개 봉우리 등정을 마무리해야 할지, 아니면 안나푸르나는 다음으로 미뤄야 할지 고민이었다.

부산산악연맹은 원정 경비 부족에다 날씨의 영향으로 가을 시즌 등정 가능성이 희박해 이 해의 안나푸르나 원정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부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운데 봄 시즌 등반을 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 닥쳤

◀ 안나푸르나 북면 베이스캠프(4190m) 전경.
제일 높은 봉우리가 안나푸르나 I 정상.



대장벽 아래에서 북안나푸르나 빙하를 바라보고 있는 서성호

다.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의 특성상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원정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부산산악연맹은 심사숙고한 끝에 8000m급 14차 완등이라는 장기적인 원정의 성공을 위해 가을 시즌 원정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때 원정대는 봄 시즌에 참여한 남정환이 취업으로 빠지면서 나머지 세 사람인 홍보성 대장과 서성호 김창호 대원만으로 꾸리게 됐다. 다행히 당시 가을 시즌에 안나푸르나 I 을 노리던 코오롱스포츠 김재수팀과 블랙야크 오은선팀이 희망 원정대의 빠듯한 살림살이를 알고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민 덕분에 고민을 털 수 있었다.

안나푸르나 I 은 가셔브롬 I 보다 23m가 높아 세계 10번째 고봉의 자리를 차지하며, 1950년 프랑스의 모리스 에르조그와 루이 라슈날이 초등했다. 8000m 거봉 가운데 최초로 인간이 정상을 밟은 봉우리로 흔히 '최초의 8000m 봉'으로 불린다. 안나푸르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안나'가 '곡식', '푸르나'가 '가득한'의 의미로 힌두교에서는 '풍요의 여신'으로 부른다. 네팔 히말라야에 있는 8000m 봉우리 가운데 이보다 더 서쪽에 있는 8000m 봉은 다울라기리 I 뿐이다. 한국 초등은 1994년이 되어서야 경남 산악연맹팀의 박정현이 이뤘다.

프랑스의 초등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등반 과정에서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등반기들의 역량도 인상적이지만 지도상의 공백에 있던 안나푸르나를 사전 정찰

▶ 전진 캠프 아래 높이 500여 m의 대장벽 하단부 암벽 구간을 등반 중인 서성호(맨 뒤)와 한국팀 대원들.



없이 단 한 번의 시도로 16일 만에 등정했다는 점이다. 프랑스 원정대는 다올라기리를 1차 목표로 삼았지만 20여 일에 걸친 정찰에서 등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안나푸르나로 목표를 바꿨다. 대장 모리스 에르조그를 비롯해 장 쿠지, 루이 라슈날, 리오넬 테레이, 가스통 레뷔파 등 알프스에서 이름을 날리던 당대 프랑스의 대표적 등반가가 모두 나섰다. 최신 기술의 도움을 받은 장비로 무장해 '나일론 등반대'로 불렸다. 프랑스 원정대는 히말라야 고산에서 영국이나 미국, 독일에 비해 경험이 일천했음에도 첫 도전에서 최초의 8000m 등정을 이뤄냈다. 에르조그와 라슈날은 1950년 6월 3일 정상에 섰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등정 뒤에는 고통스러운 하산이 그들을 기다렸다. 폭풍설에 갇힌 그들은 하산 도중 손과 발에 동상을 입었다. 기적적으로 생존했지만 초등의 대가로 라슈날의 두 발과 에르조그의 손발을 안나푸르나 여신에게 바쳐야 했다.

1950년 봄 프랑스 원정대를 괴롭혔던 폭풍설은 2009년 가을 어렵게 안나푸르나I의 품에 든 희망 원정대가 정상으로 가는 길도 막아섰다. 9월 8일 출국해 60일 간의 장도에 오른 세 사람은 카트만두에서 봄 시즌 등반 후 남겨둔 장비와 식량을 챙겨



▶ 캠프2 위 세락지대 초입에서 등반을 준비 중인 김창호(왼쪽)와 코오롱팀 고소 포터.

▶ 캠프2(6400m)~캠프3(7050m) 구간의 얼음 장벽에서 루트를 개척 중인 서성호.





안나푸르나 I로 향했다. 원정대가 이용한 북쪽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며칠 전 유실됐지만 때맞춰 복구됐다. 원정대는 레테를 거쳐 해발 4310m의 톨루부긴 패스를 넘어 카트만두를 떠난 지 6일 만에 안나푸르나 북면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

희망 원정대는 베이스캠프 도착 다음 날 바로 장비와 식량 운반에 나섰다. 캠프1로 올라가던 원정대는 북면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눈사태를 만났다. 거리가 멀어 작은 얼음덩어리를 맞는 정도였지만 눈사태 후폭풍은 캠프2로 오르던 코오롱스포츠팀을 덮쳤다. 대원 3명이 100여 m나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으나 크레바스에 빠지는 위기는 모면했다. 서성호는 김창호와 함께 부상자 후송을 도우며 전진 캠프로 내려갔다. 캠프1로 다시 올라갔다.

당시 늦게까지 위력을 떨친 몬순 때문에 희망 원정대를 비롯한 한국 원정대들이 노린 북동 버트레스 루트는 등반에 최악의 상황이었다. 눈사태, 세락 붕괴, 낙석 등 온갖 악조건이 도사렸다. 한국 4개 등반대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단 한 번의 도전에 모든 것을 걸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내에서 보내온 기상 정보를 토대로 10월 3일을 정상 등정일로 정했다. 희망 원정대는 고소 포터를 고용하지 않아 서성호와 김창호는 마지막 루트 개척 작업에 코오롱스포츠팀과 블랙야크팀의 고소 포터 4명과 함께 직접 나서야 했다.

10월 3일 추석, 보름달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새벽 1시께 서성호는 김창호와 함께 텐트를 뒤로 하고 정상으로 향했다. 기온은 낮았지만 바람이 약해 등반에는 적당한 날씨였다. 그러나 느려진 등반 속도가 발목을 잡았다. 두 사람이 루트 개척으로 지친 탓도 있지만 김재수팀을 비롯해 오은선팀, 김홍빈팀, 부산팀이 한꺼번에 같은 루트로 올라가다 보니 정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가장 뒤에서 오르던 서성호와 김창호는 안전하게 하산하기에는 등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하고 새벽 5시 20분께 해발 7200m 지점에서 등정을 포기하고 돌아섰다. 나머지 세 팀도 나빠진 날씨 탓에 오전 10시께 7450m까지 진출한 뒤 걸음을 되

◀ 북동벽 캠프3(7050m) 전경.



해발 7450m까지 진출한 뒤 악천후로
등정을 포기하고 하산하는 한국팀 대원들.

돌렸다. 서성호와 김창호는 이날 밤 9시께 다시 한 번 정상 등정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무심한 안나푸르나의 여신은 두 사람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후 폭설에 이어 불어닥친 제트기류로 희망 원정대는 끝내 등반을 포기한 채 마지막으로 베이스 캠프를 떠났다.

1985년 봄 라인홀트 메스너와 함께 북서벽상의 7000m 이상에서 두 번의 비바크로 새로운 라인을 남기며 안나푸르나 I 정상에 오른 한스 카머란드는 <그러나 정상이 끝은 아니다>에 그곳의 혹독한 바람에 대해 적었다. 그는 “제4캠프에서 정상 등정을 위해 밤을 지냈다. 이제껏 폭풍 속에서 지낸 밤들 중 최악이었다. … 텐트를 흔드는 폭풍의 기세가 얼마나 드셧던지 함포 사격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듯한 소리가 났다. … 시속 150km의 강풍 테스트도 견뎌낸 이탈리아제 특수 텐트가 찢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찢어진 틈으로 별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며 악몽 같은 밤을 회상했다. 그들은 다음 날 이 바람이 그치는 사이에 정상을 노릴 수 있었지만, 2009년 가을 서성호와 김창호에게는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았다.

◀ 제트기류가 6000m 대로 하강하면서
안나푸르나 I 정상부에 설연이 휘몰아치고 있다.



Dhaulagiri I 8167m

Nilgiri South 6839m

Nilgiri Central 6940m

Nilgiri North 7061m

안나푸르나 | 북동벽 캠프3(7050m)에서 본
다울라기리 산군과 닐기리 연봉.

Tharpu Chuli

2009 가을 시즌

타르푸츨리 — 5663m — 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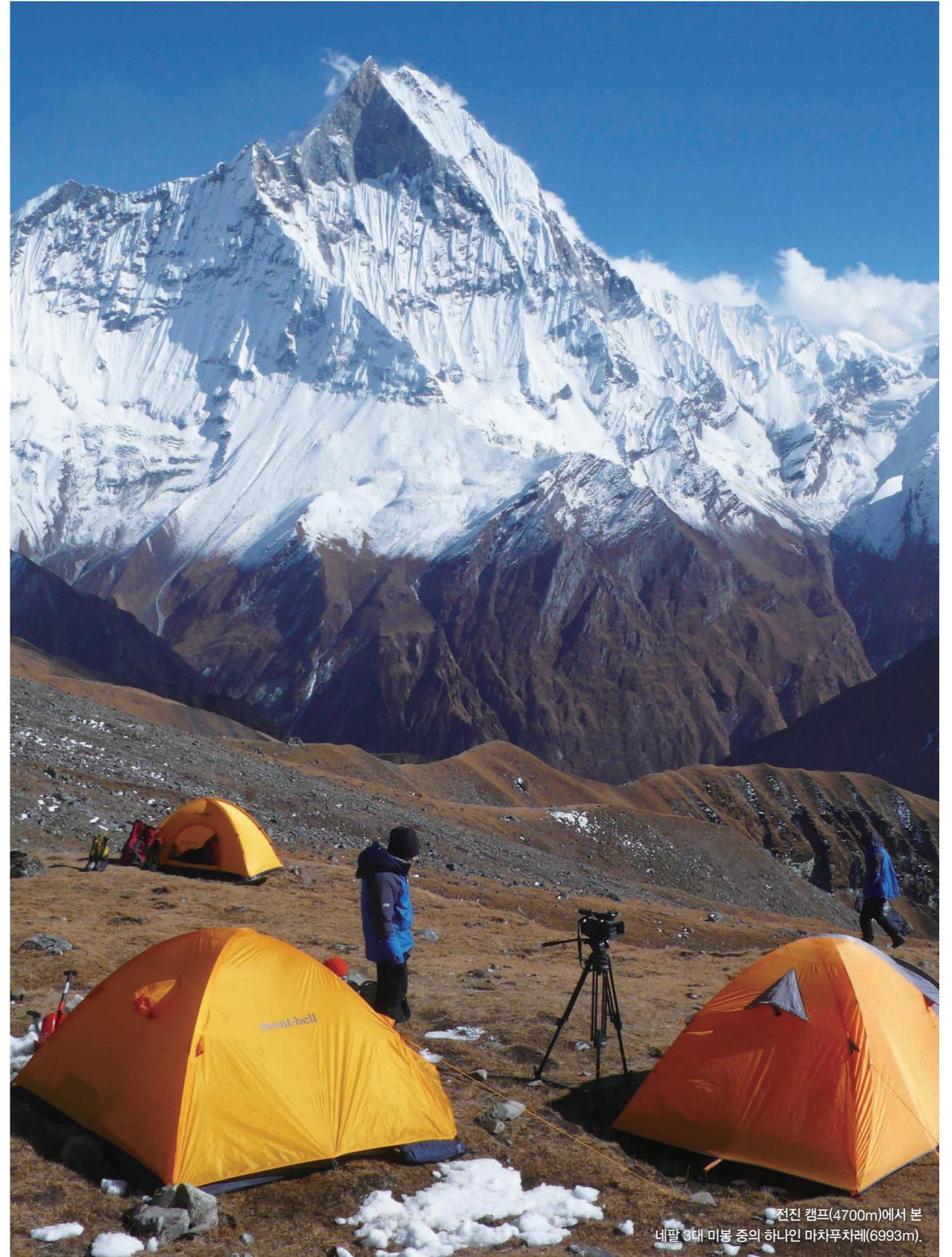
8000m와 8000m 사이의 막간극

안나푸르나에서 서성호는 앞선 고산 등반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폭설과 눈사태, 흑한과 강풍을 만났다. 정상을 밟지 못하고 뒤돌아선 서성호는 그 엄혹한 날씨에도 무사히 내려왔다는 안도감과 8000m 거봉에서 처음 맛본 좌절감을 동시에 경험했다. 이제 겨울 문턱에 다가간 히말라야에서의 등반 시즌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다른 원정대보다 늦었지만 희망 원정대도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도전을 기약하며 안나푸르나 북면 베이스캠프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2009년 서성호의 산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등산 의류·용품 브랜드인 몽벨이 파견하는 타르푸출리 원정대를 김창호가 이끌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성호는 당연한 듯이 그를 도우러 귀국을 늦췄다. 이 원정대는 몽벨리스트로 선발된 5명의 대원과 언론사 기자, 촬영감독, 사진작가 등 14명, 그리고 현지 고용인 12명까지 총 26



전진 캠프로 운행 중인 서성호



전진 캠프(4700m)에서 본
네팔 3대 미봉 중의 하나인 마차푸차레(6993m).



명으로 꾸러진 대규모 등반대였다. 안나푸르나 철수에 딱 맞춰 찾아온 그들을 맞느라 서성호와 김창호는 잠시 실 째도 없이 등산화 끈을 다시 죄어 묶었다.

타르푸출리는 안나푸르나 I에서 북동쪽에 솟은 글레이셔돔이라 불리는 타르케강(7193m)에서 갈라져 남쪽으로 내려오는 지능선 상에 솟아 있다. 타르푸출리는 높지에서 보듯 어지간한 소축척 지도에는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크지 않은 산이다. 하지만 일명 ‘텐트피크’로도 불리는 타르푸출리는 아마추어 산악인이나 트레커들이 약간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트레킹 피크 가운데 손꼽히는 산이기도 하다. 네팔등산협회가 지정한 30여 개의 5000~6000m급 트레킹 피크 가운데서 타르푸출리는 특별한 조망으로 잘 알려졌다. 네팔 서부 안나푸르나 보호구역의 한 가운데 자리 잡아 사방을 둘러싼 고봉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다.

서성호와 김창호는 물론 홍보성 대장까지 희망 원정대는 포카라에서 몽벨 원정대 일행을 만나 얼마 전 떠난 안나푸르나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에 나선다. 이번 캐러밴은 10여 일 전까지 있었던 안나푸르나 북면 베이스캠프와는 반대인 안나푸르나의 남면으로 향했다. 타르푸출리 베이스캠프가 안나푸르나 남벽 베이스캠프로 들어가는 길의 초입에 있기 때문이다. 산행 기점인 칸데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안나푸르나 남벽 베이스캠프(4130m)로 이어지는 트레킹 루트를 따라 촛뿔을 지나 힌쿠로 다가가자 서쪽으로 히운출리, 동쪽으로 마차푸차레가 솟았다. 10월도 막바지로 향하는 28일, 히운출리 정상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을 돌아가자 어느새 모레인 지대 건너 거대한 암벽 위로 흰 눈을 머리에 인 타르푸출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퇴석이 쌓여 먼지가 날리는 빙하를 건너 급경사의 사면을 올라가면 타르푸출리 베이스캠프(4200m)다. 여느 8000m 봉의 베이스캠프처럼 꽤 넓은 캠프지에서는 북서쪽에 가장 높이 솟은 안나푸르나 I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팡(Fang)으로도 불리는 바라하 시카르(7647m), 안나푸르나 남봉(7219m), 히운출리(6441m)가 둘러싸고 있고, 시계 방향으로는 강사르 강(7485m), 타르케 강(7193m), 강가푸르나(7454m), 안나푸르나 III(7555m), 마차푸차레(6993m) 등 6000m대에서 7000m대에 이르는 아름다운 고봉들이 에워싼다. 특히나 서쪽 하늘을 덮을 듯이 높이 솟아오른 안나푸르나 산군의 웅장한 모습은 원정대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오 무렵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몽벨리스트들은 미세한 고소 증세를 보였으

◀ 북서릉 아래 서벽을 오르고 있는 대원들.



정상 아래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서성호.

나 모두들 패기가 넘쳤다. 서성호는 부지런히 텐트를 오가며 설산 등반이 처음인 대원들을 보살폈다. 5명의 대원은 2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로 다양한 산행 경험이 있지만 고산 등반은 모두 처음이었다. 타르푸출리는 5000m 대 중반의 높이로 트레킹 피크 가운데서도 고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게다가 베이스캠프와 정상의 수직 고도 차는 1463m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산에서라면 하루에 오르내릴 정도의 높이 차다. 그러나 트레킹 피크라고 등반성이 떨어지고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건 아니다. 5000m 대 중반이라도 엄연한 설산이다. 어느 정도는 히말라야 고산 등반에 관한 지식과 등반 능력, 체력을 갖추고 고소에도 적응해야 한다. 물론 가이드나 고소 포터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서성호와 김창호가 함께 등반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직전 안나푸르나 등반에서 7200m까지 올라갔기에 고소 적응이 된 상태인 서성호나 김창호에게 타르푸출리 등반은 한결 수월하게 느껴졌다.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다음 날 고소 포터들이 전진 캠프를 설치하기 위해 먼저 나섰다. 서성호는 대원들을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급사면을 오르자 뜻밖에도 초원 지대가 나타났다. 그 위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주변을 조망하며 오르자

▶ 정상으로 이어지는 북서릉을 오르고 있는 대원들.





등반 시작 4일 만에 대원 10명이 정상에 올랐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주, 서성호, 뒷줄 왼쪽부터 고소 포터, 고소 포터, 고소 포터, 홍보성, 서기석, 고소 포터, 김창호, 이희기, 오현호, 이계원, 박종석.

3시간 정도 만에 해발 4700m의 전진 캠프에 닿는다. 5명의 대원이 고소 적응을 위해 전진 캠프에 두어 시간 머무르다 다시 베이스캠프로 내려가는 사이 서성호는 김창호와 함께 정상까지 가는 길의 상태를 살피러 5200m 높이의 설원까지 다녀왔다.

하루를 쉬 이들은 정상 등정을 위해 다시 전진 캠프로 올라가 일찌감치 휴식했다. 11월의 첫날 새벽 2시께 일어난 대원들은 3시께 정상을 향해 나섰다. 김창호가 이끌고 먼저 출발한 대원 가운데 한 명이 30분 만에 등정을 포기했다. 서성호는 1시간 늦게 3명의 대원을 이끌고 출발해 설원에서 앞선 일행을 따라잡았다. 여명이 밝아오자 눈앞에 타르 푸출리 정상이 거무스름한 모습을 드러냈다. 정상 왼쪽의 설릉은 신구 출리를 거쳐 안나푸르나 동릉으로 이어졌다. 설원을 가로질러 서벽을 통해 북서릉에 올라서자 겹겹이 쌓인 설산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 같은 히말라야의 설산을 조망하며 오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이었다.

8000m 고봉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조망도 일품이지만 낮은 봉우리에서 주변 고산을 올려다보는 조망은 또 다른 느낌을 준다. 서성호는 등반기에서 '내가 오른 봉우리 중 가장 낮은 높이인 5663m였지만 경치는 제일 멋졌다'고 안나푸르나 남면의 비경에 감탄했다. 서성호는 환호하는 대원들 곁에서 불과 며칠 전 좌절을 맛본 안나푸르나 I을 말없이 바라봤다.

멋진 풍광을 뒤로하고 가벼운 걸음으로 하산한 서성호는 희망 원정대와 함께 또 다른 여정에 나섰다. 부산 산악인 20여 명으로 꾸려진 트레킹팀을 지원하기 위한 산행에서 일명 '안나푸르나 푼힐 전망대'를 올랐다. 이어 휴양지 포카리를 거쳐 세계적인 자연보호구역인 치트완을 비롯해 카트만두 시내의 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여유도 부리면서 출국한 지 66일 만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로써 서성호와 희망 원정대가 2009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나선 '네팔 서부 히말라야 140일'의 원정은 끝을 맺었다.

Fang(Varaha Shikhar, Finger)
7647m

Annapurna I
8091m

Kangsar Kang(Roc Noir)
7485m

Tarke Kang(Glacier Dome)
7193m

Singu Chuli(Fluted peak)
6501m

타르푸츨리 정상부에서 본 안나푸르나 남벽 전경.



Kangchenjunga

2010 봄 시즌

강첸중가 — 8586m — 등정



일곱 번 오르내리고 네 번 두드린 끝에 열린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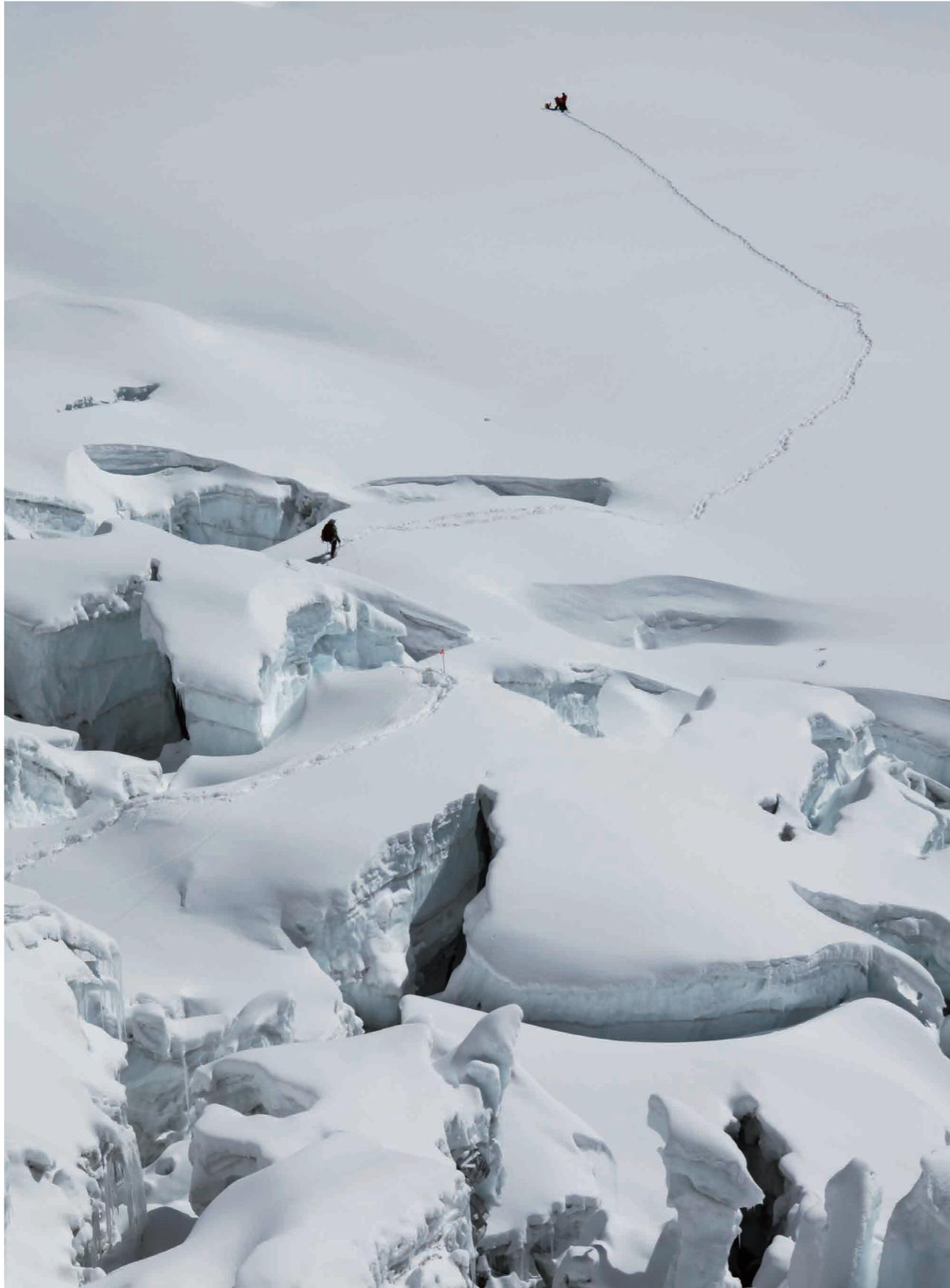
희망 원정대는 2009년 비록 안나푸르나I 등정에는 실패했지만 마나슬루와 다울라기리I을 오르며 8000m급 14좌 가운데 딱 절반인 7개 봉을 올랐다. 이듬해인 2010년 봄 시즌에 칸첸중가와 안나푸르나I, 여름 시즌에 낭가파르바트, 가을 시즌에는 시샤팡마까지 네팔, 파키스탄, 중국을 오가며 한 해 4개의 자이언츠를 오르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2007년의 K2와 브로드피크 원정을 건너뛰어 5개의 거봉을 오른 서성호도 어김없이 김창호와 함께 원정에 나섰다. 마칼루를 시작으로 5개의 8000m 거봉 등반을 함께 한 김창호와는 어느덧 말이 필요 없는 '영혼의 파트너'가 되어 최고의 정상 등정조가 됐다. 게다가 이 해에는 2007년 원정 이후 3년 만에 김진태가 합류해 힘을 보탤다. 김진태는 서성호와 2006년 에베레스트에서 호흡을 맞춘 사이였다.

희망 원정대의 8000m급 14좌 완등이 끝난 뒤 서성호는 칸첸중가 등반을 그동안의 등반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등반으로 떠올렸다. 지독히도 날씨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일곱 번을 오르내리고 네 차례의 정상 도전 끝해야 간신히 성공할 수 있었다. 서성호는 한 인터뷰에서 "2010년 봄 시즌 칸첸중가를 등반하면서(그동안 8000m 봉을 오르며 느끼지 못했던) 자신감이 생겼다"고 회고했다. 그때까지의 등반 가운데 가장 어려웠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에 올랐기에 느낄 수 있었던 자신감이었다.

칸첸중가의 어려움은 높이와 함께 네팔 히말라야의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지리적 위치 탓에 몬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산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칸첸중가는 '죽음을 부르는 산'이라 불리는 K2에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K2보다도 더 어렵고 위험한 산으로 여긴다. 훗날 에베레스트를 초등한 영국 원정대의 존 헌트 대장은 1937년 칸첸중가 탐사에 참여한 뒤 "칸첸중가 초등자는 등산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산은 바람과 날씨와 높이에서 오는 불리함이 있는 데다 우리가 에베레스트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위험도와 기술상의 문제까지 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했다. 엄홍길도 1997년과 1999년 잇달아 칸첸중가에 도전했다가 악천후와

▶ 남서벽 아래 얼음 빙하 아이스폴 지대를 통과하고 있는 포터들.





캠프2 아래 설원으로 하강하고 있는 서성호.

폭풍설에 막히고 등반 사고와 폭설에 발목이 잡혀 좌절했다. 기어이 2000년 봄에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서 절친한 고소 포터를 잃고 8500m에서 비바크까지 하는 고난을 겪은 뒤에야 8000m급 14좌 중 13번째로 등정에 성공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Kangchenjunga는 에베레스트와 K2에 이은 세계 3위의 고봉 인데도 1955년이 되어서야 8000m 봉우리 가운데 7번째로 영국 등반대가 초등했다. 8000m급 14좌 중 가장 동쪽에 솟은 이 산은 인도 시킴과의 국경을 이루고 부탄과도 멀지 않은 위치다. Kangchenjunga라는 이름은 '위대한 눈의 다섯 보물 창고'라는 의미라고 한다. 주봉을 비롯해 남봉(8476m), 중앙봉(8473m), 서봉(8505m), 캄바첸(7902m) 등 다섯 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산군에서 나온 이름으로 여겨진다.

Kangchenjunga는 인도 다르질링에서 맨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에베레스트보다 먼저 알려졌다. 19세기 중반 처음 탐험이 이뤄졌는데 실제 Kangchenjunga가 제대로 알려진 건 1899년이다. 영국 등산가 더글러스 프레쉬필드가 산악 사진가로 이름을 날리던 이탈리아의 비토리오 쉐라 형제와 함께 이 산 둘레를 한 바퀴 돌고 이를 <Kangchenjunga 일주>라는 책으로 남기면서부터다. 20세기 초입인 1905년 영국·스위스·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원정대가 도전했다가 실족과 눈사태로 5명을 잃고 후퇴했다. 이후

◀ 남서벽 하단부 설원을 횡단하고 있는 대원들.



1929년 독일대의 도전은 해발 7400m를 끝으로 악천후 탓에 좌절됐다. 이어 1930년과 1931년 독일대의 잇단 도전도 8000m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로부터 20년이 흘러 1950년 안나푸르나가 초등되자 산악인들의 눈이 다시 칸첸중가로 향했다. 1953년과 1954년 알룽 빙하로 들어와 남서면을 통한 등정 가능성을 유심히 살핀 정찰대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듬해인 1955년 영국은 강력한 원정대를 조직해 남서벽을 통해 처음 정상을 밟았다. 2년 전 에베레스트를 초등한 영국은 당시의 경험자를 대거 참여시켰다. 앞선 정찰 활동에서 마지막 고비로 여겨졌던 해발 7300m에 있는 거대한 빙설벽을 돌파한 영국대는 조지 밴드와 조 브라운을 정상에 올렸다. 당시 두 사람은 원주민이 신성시하는 칸첸중가 정상을 밟지 않기 위해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칸첸중가는 50년간 5번의 도전을 받은 끝에 정상을 허락했다. 한국은 1988년 1월 2일 부산 대륙산악회팀의 이정철이 동계 등정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등정 의혹으로 1999년 박영석의 등정을 한국 초등으로 인정하고 있다.

희망 원정대는 쉽지 않은 산 칸첸중가를 오르기 위해 2010년 3월 9일 출국한다. 열흘간의 캐러밴으로 알룽 빙하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칸첸중가 남면 베이스캠프



남서벽 캠프2(6300m) 전경. 뒤 봉우리는 인도와 네팔의 국경을 가르는 타룽(7349m)과 카브루(7412m·오른쪽).

◀ 캠프2 아래 설벽을 오르고 있는 대원들.



남서벽 해발 7300m에 있는
얼음 장벽을 등반 중인 대원들.

정상부 아래 암봉(8450m) 일명
'손톱바위'에서 휴식 중인 서성호.



(5400m)에 도착했다. 1955년 영국대가 초등한 남서벽 루트가 목표였다. 등반 시작 10일 만에 강풍을 뚫고 정상과 고도차 1000m 정도인 7550m의 캠프4에 진출하면서 등정을 눈앞에 두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등정 시도는 모두 악천후에 밀려 실패하고 속절없이 물러서야만 했다. 1차 등정 시도에서는 마지막 캠프까지 진출했으나 텐트를 날려 보낼 정도의 잔인한 폭풍설이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나 크레바스에 추락한 김진태는 등정의 꿈을 접고 말았다. 2차 등정 시도에서는 캠프 3(6800m)에 올라 갔지만 폭풍설에 캠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되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3차 시도에서는 8150m까지 진출했으나 고소 포터의 동상 증세로 다음을 기약했다.

혹독했던 날씨는 5월이 다가오자 차츰 안정을 찾았다. 새로 주문한 장비와 식량이 카트만두로부터 도착하고 바람이 약해지자 원정대는 4월 28일을 등정일로 정했다. 이날은 1년 전 마나슬루 정상에 오른 날이기도 했다. 4월 25일 서성호는 김창호, 고소 포터 2명과 함께 베이스캠프 출발 3일 만인 27일 어둠이 내릴 즈음 캠프4에 도착했다. 높은 고도, 희박한 공기, 영하 30도를 밀도는 추위를 극복하며 다음 날 낮 동안 여유롭게 휴식을 취한 서성호와 김창호는 오후 8시께 마지막 캠프를 나섰다.

▶ 정상부를 등반 중인 대원과 고소 포터들.
뒤 봉우리는 강철훈가 서봉인 알룽강(8505m).





강철훈가 정상에 오른 대원과 고소 포터들.
왼쪽부터 니마 갈젠 세르파, 서성호, 상계 푸리 세르파.

남봉 위로 떠오르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가파른 빙벽을 올라 강웨이(Gang Way)라 불리는 대협곡을 지나쳤다. 서성호를 비롯한 등정조는 출발 13시간 만인 오전 9시께 처음으로 해발 8450m에 있는 일명 ‘손톱바위’에서 뜨거운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서성호는 그곳에서부터 앞장서서 두껍게 쌓인 눈을 헤치며 나아갔다. 얼마 후 평평한 설사면을 가로질러 4월 29일 오후 1시 25분께 그의 6번째 8000m 정상에 올라섰다. 마지막 캠프를 출발한 지 17시간 25분 만이었다. 네 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오른 정상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즐긴 뒤 5시간 15분이 걸린 하산 끝에 날이 어두워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캠프4에 무사히 도착했다.

5월 1일 베이스캠프를 철수해 마오이스트의 파업을 뚫고 카트만두에 도착한 원정대는 안나푸르나로의 이동을 준비했다. 하지만 1년 전의 상황이 되풀이됐다. 마나슬루와 다울라기리I을 등정한 뒤 기상이 악화해 안나푸르나 등반을 포기한 전년보다 더한 악천후가 히말라야 전역에 몰아쳤다. 등반 사고로 등반가의 희생도 잇따랐다. 3전 4기로 오른 강철훈가 등정이 오히려 행운으로 여겨질 지경이었다. 기상 상황을 우려해 국내에서 귀국을 종용하자 원정대는 다시 한 번 안나푸르나의 꿈을 접고 66일 만에 귀국 길에 올랐다.

◀ 정상부 아래 바위 홀통(8530m) 상단에 올라서고 있는 서성호.
오른쪽 처마 모양의 바위를 지나면 정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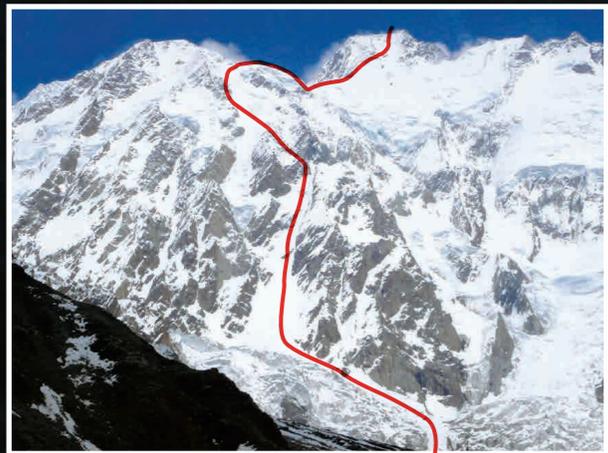
Jannu 7711m

강철훈가 남서벽 캠프4(7550m)에서 본 알롱 빙하.
오른쪽 봉우리는 '스핑크스' 또는 '잠자는 사자'라
불리는 히말라야의 괴봉 자누(7711m).



Nanga Parbat

2010 여름 시즌 ————— 낭가파르바트 — 8125m — 등정



‘비극과 영광’의 무대 첫 파키스탄 거봉 등정

서성호가 참여한 희망 원정대는 2010년 봄 캄첸중가를 오른 뒤 곧바로 닥친 혹독한 날씨 탓에 안나푸르나 등반은 시도조차 못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 해 8000m 4개 고봉을 오르겠다는 목표는 일찌감치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이를 머릿속에서 털어내고 귀국한 뒤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6월 9일 낭가파르바트 등반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앞서 8000m 6개 봉우리를 오른 서성호의 첫 파키스탄 거봉 도전이었다. 희망 원정대로서는 2007년 K2와 브로드피크 등정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찾은 파키스탄에서 9번째 목표에 도전한다.

지구의 용마루 히말라야의 동쪽 끝에 캄첸중가가 있다면 서쪽 끝에는 낭가파르바트가 있다. 여기서 발원해 인도 평원으로 흘러가는 인더스강의 황폐한 협곡에서 솟아오른 웅대한 모습의 이 산은 성처럼 긴 세 개의 얼음 절벽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 지역은 특유의 폭풍과 눈사태로 악명 높다. 하지만 낭가파르바트의 명성은 이런 자연 환경보다도 초창기부터 등반사를 장식한 비극과 처절했던 사투, 그리고 이를 뛰어넘은 위대한 생존과 그에 따른 영광으로 잘 알려졌다.

낭가파르바트를 처음으로 혼자 오른 헤르만 불은 (8000m 위와 아래)에서 “구름 위에 솟은 그 거봉은 벌써 31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게 희생을 요구할 뿐 베푸는 것이 없다. 한번 사람을 끌어당기면 다시는 놓아주지 않는 무자비한 왕국이다”라고 묘사했다. 17시간을 올라 해가 카라코람 산군 위로 완전히 기울어질 무렵인 오후 7시에야 정상에 오른 그는 “내가 바라던 목표, 그 지점에서 있다. 그러나 마음이 취해서 잠길 행복감도 즐거운 환희도 일어나지 않는다. … 그저 모두 끝났다는 느낌뿐이었다.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눈 위에 쓰러졌다”고 등정 때의 상황을 전했다. 늦은 시간 하산에 나선 불은 먹을 것도 없고 자일도 없이 스틱 하나에 몸을 기댄 채 해발 7925m 죽음의 지대에서 비바크를 해야만 했다. 기적적인 밤을 보내고 40시간 만에 돌아온 그를 보고 ‘하룻밤 사이에 한 청년이 완전히 노인이 돼 돌아왔다’고 한 동료가 기록했다. 한

▶ 마제노 봉(7120m) 상단부에서 발생한 눈사태 후폭풍.
왼쪽 봉우리가 낭가파르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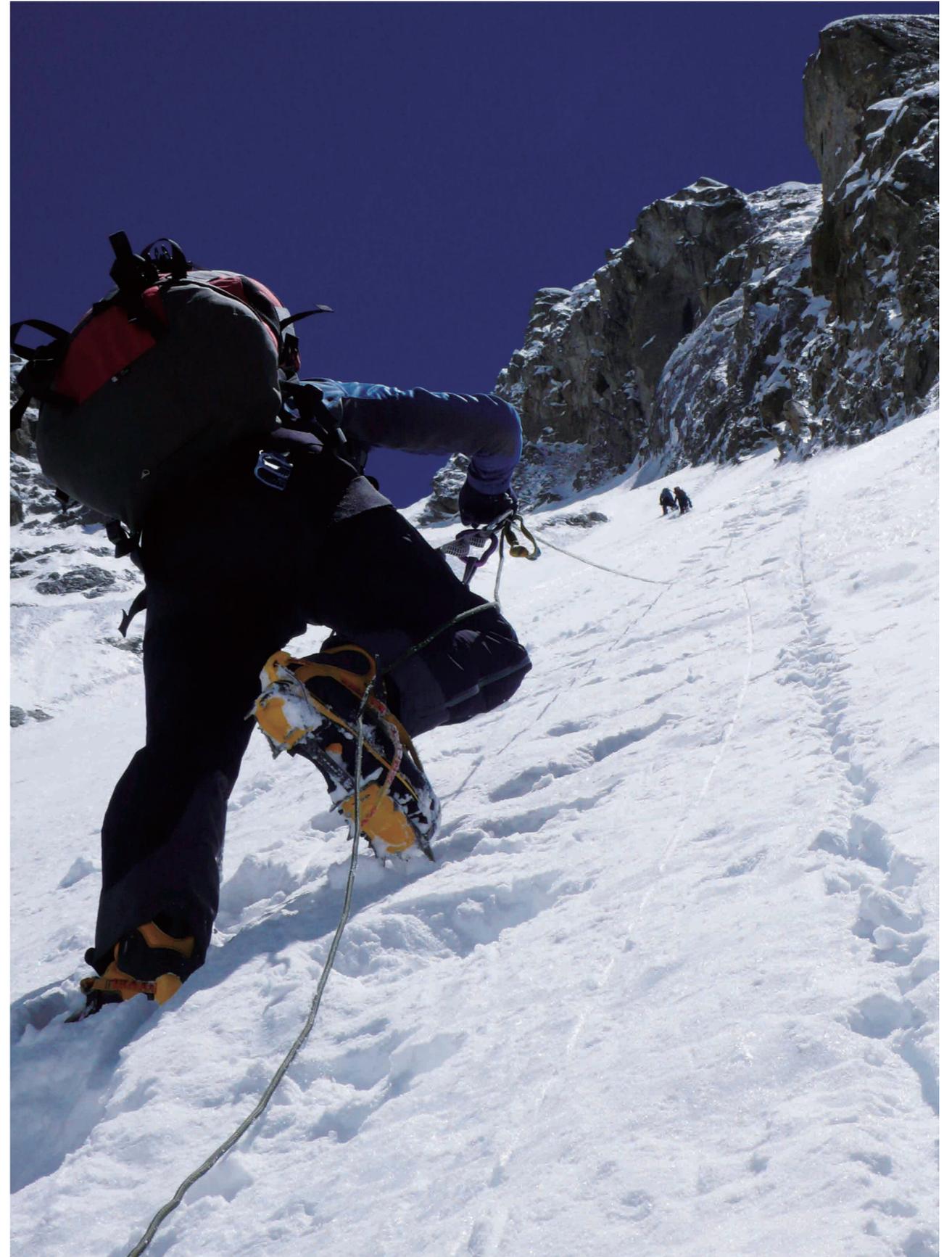
국은 1988년부터 8번의 도전 끝에 1992년 김주현(광주우암산악회)과 박희택(경남합동대)이 초등에 성공했다.

낭가파르바트의 악명 높은 날씨는 2010년 여름에도 여전했다. 봄 시즌 안나푸르나 등반을 막은 이상기후는 여름 시즌 파키스탄까지 휩쓸고 있었다. 낭가파르바트 정상 일대의 검은 바위도 데오사이 고원에 내린 폭설을 하얗게 뒤집어썼다. 희망 원정대는 카트만두에서 보낸 항공화물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슬라마바드에서 기다리다 기상이 악화돼 항공편 이용이 여의치 않자 위험천만한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따라 차량으로 이동했다. 등반 기점인 칠라스에 도착하자 비로소 낭가파르바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칠라스를 떠나 디아마로이 마을로 들어가 본격적인 캐러밴을 시작했다. 어디선가 울리는 총성과 숨 막히는 더위를 피해 디아미르 계곡으로 들어선 원정대는 셸(2800m)과 쿠티칼리(3800m)를 거쳐 3일 만에 낭가파르바트 서벽 아래 해발 4200m의 베이스캠프에 당도했다.



파키스탄 고원인들이 폴란드대의 시즌 초등을 축하하는 총을 쏘고 있다.

▶ 중간 캠프(5000m)~캠프1(6000m) 구간의 디아미르 벽을 오르고 있는 서성호.





희망 원정대는 베이스캠프 입성 첫날부터 어마어마한 눈사태의 환영 인사를 받았다. 낭가파르바트 남서쪽 마제노 봉 상단부에서 일어난 눈사태가 사면을 휩쓸고 내려오며 그 후폭풍이 베이스캠프를 덮쳐 텐트 대부분을 날려버렸다. 어렵사리 들어온 낭가파르바트 등반이 쉽지 않으리라는 조짐이었다.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선 안나푸르나의 악몽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해 여름 낭가파르바트는 비록 강풍과 흑한으로 막아서기도 했지만 끝내 서성호에게 정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

히말라야 8000m 거봉에는 최초, 최고 타이틀을 지닌 봉우리가 있다. 최고 봉인 에베레스트, 인간이 최초로 오른 8000m 봉인 안나푸르나만큼 인상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낭가파르바트도 여러 개의 타이틀을 지녔다. 등반사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8000m 거봉 가운데 처음으로 등반이 시도된 산으로 기억된다. 1895년 여름 머메리즘의 제창자인 영국의 앨버트 머메리를 비롯한 등반대가 이 산의 등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눈사태로 머메리가 실종되며 낭가파르바트는 물론 히말라야 등반 사상 최초의 조난으로 기록됐다. 이와 함께 낭가파르바트는 역대 최악인 16명이 희생된 인명사고가 일어난 산이다.

1895년 머메리의 첫 도전과 실종 이후 37년이 지나는 동안 낭가파르바트는 조용히,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시 1932년에야 빌리 메르크이 이끄는 독일-미국 합동대가 도전했다가 폭설로 후퇴했다. 2년 뒤인 1934년에는 독일 2차 원정대가 찾았다가 10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겪었다. 하지만 이조차도 3년 뒤 일어난 더 큰 비극에 가렸다. 1937년 독일은 다시 원정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전진 캠프를 설치하고 정상을 노리던 원정대를 어마어마한 규모의 눈사태가 덮쳐 흔적도 없이 쓸어버렸다. 대장을 포함한 원정대원 7명, 고소 포터 9명 등 16명 전원이 한꺼번에 희생되는 세계 등반 역사상 최악의 조난사고였다. 두 차례에 걸쳐 26명이 희생된 대참사로 낭가파르바트는 독일인에게 운명의 산이 됐다. 독일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1938년과 1939년에 도 도전했지만 정상에 이르지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았다.

전쟁이 끝난 뒤 기어이 독일은 6차례의 도전 끝에 1953년 정상에 올랐다. 오스트리아인 헤르만 불이 8000m 봉에서 최초의 단독 등정에 성공한 것이다. 같은 해 에베레스트를 오른 영국에 이어 세 번째 8000m 거봉 초등이었다. 1895년 머메리 이후 58년간 31명의 목숨을 앗아간 뒤에야 비로소 인간에게 정상을 허락한 낭가파르바

◀ 디아미르 벽 대암벽을 하강하고 있는 김진태.



▲ 캠프2~캠프3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 중인 서성호.
그 옆이 2011년 네팔인 최초로 8000m급 14좌를 완등한 밍마 세르파.
부산팀 대원으로 등반 허가를 받아 등반도 함께 했다.

트는 산스크리트어로 '벌거벗은 산'이라는 의미다. 디아미르 계곡 주민은 '산 중의 제왕'이라는 뜻의 디아미르로 부른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 희생을 요구했기에 낭가파르 바트는 '비극의 산'으로 부름직하다.

희망 원정대는 1962년 오스트리아·독일 합동대가 개척한 킨스호퍼 루트로 등반을 시작했다. 쾌청한 날씨의 도움을 받고 한 달 먼저 등반을 시작한 폴란드대가 설치한 고정 로프 덕분에 디아미르 벽을 수월하게 올라 4일 만에 해발 6850m의 캠프2에 진출했다. 하지만 정상 일대에 몰아친 제트기류가 물러가지 않았다. 일주일 만에 강풍을 무릅쓰고 등반을 재개했다. 베이스캠프 도착 보름 만인 7월 7일 서성호는 김창호 김진태와 함께 디아미르 벽 공략에 나섰다. 평균 50도를 넘나드는 가파른 경사였지만 이어진 폭설에 눈이 무릎까지 빠졌다. 7시간의 악전고투 끝에 캠프1(6000m)에 올라섰다. 8일 캠프2에 이어 9일 정오께 7300m의 마지막 캠프까지 진출해 잠깐 눈을 붙인 뒤 자정을 지나 새벽 1시께 강풍이 잦아든 틈을 타 텐트를 나섰다.

▶ 디아미르 벽 상단부 능선에 설치된 캠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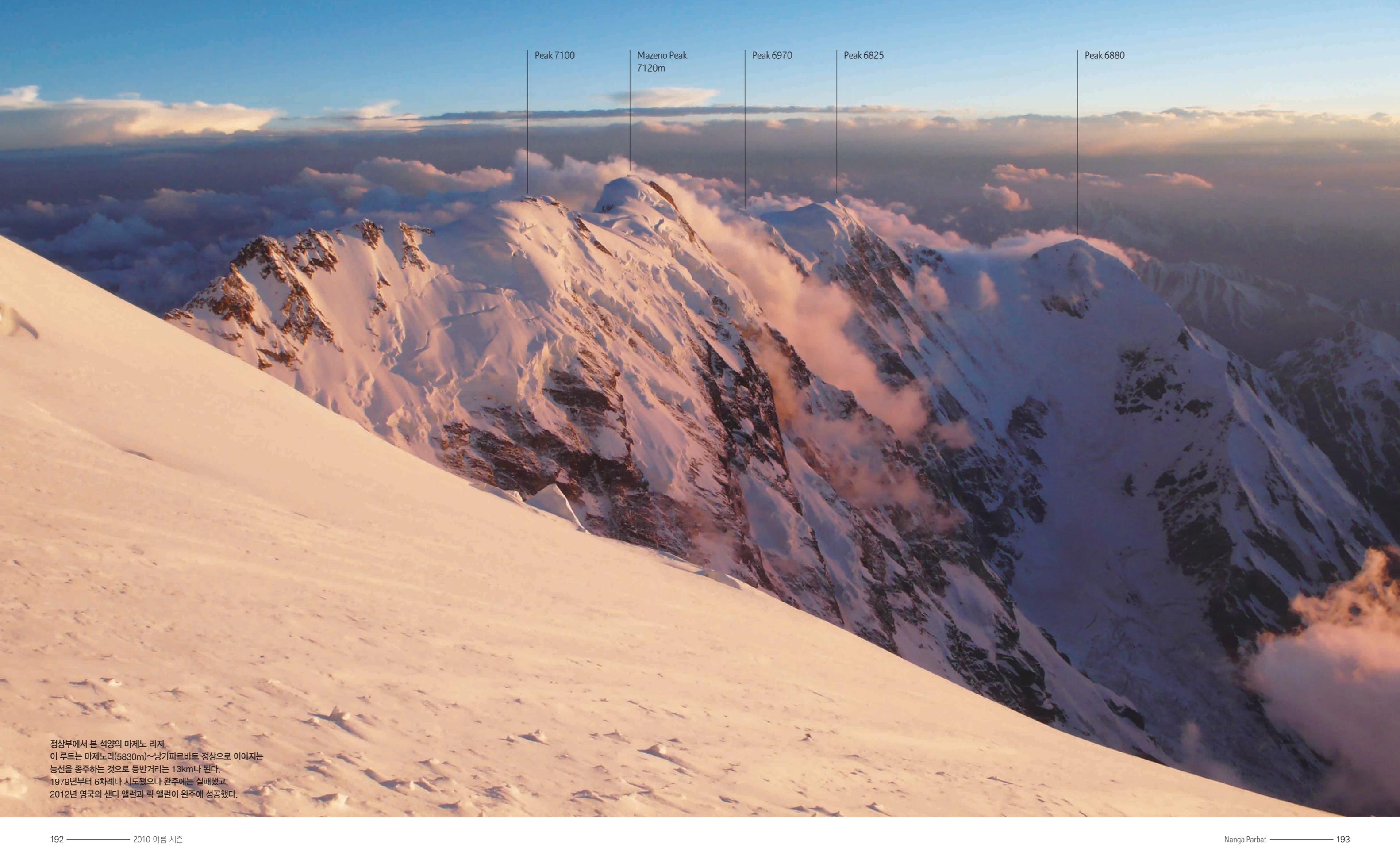
심설을 뚫고 5시간 만에 해발 7650m에 있는 '아일랜드'로 불리는 바위지대에 진출한 이들은 정상으로 이어지는 암릉으로 올라갔다. 북풍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풍향이 바뀌면서 몸을 가눌 수 없는 강풍이 앞을 막아섰다. 기온도 함께 떨어졌다. 서성호를 비롯해 김창호 김진태도 강풍과 흑한에 후퇴를 몇 번이나 머리에 떠올렸다. 하지만 당장의 강풍과 흑한보다 후퇴한다면 이를 뚫고 다시 올라와야 한다는 게 더 어렵게 느껴졌던 이들은 거의 탈진 상태에서도 정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이어갔다.

마지막 캠프를 출발한 지 12시간 15분이 흐른 10일 오후 1시 30분께 서성호는 800여 m의 고도 차를 극복하고 헤르만 불의 묘사와는 달리 넓고 평퍼짐한 낭가파르바트 정상에서 김창호 김진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카라코람과 힌두쿠시 산군의 장엄한 파노라마가 시야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등정의 기쁨을 누릴 사이도 없이 대원들은 강풍에 쫓기듯이 바쁘게 하산했다. 초등자 헤르만 불처럼 초죽음이 된 상태로 어둠을 맞았지만 다행히 이들은 그와는 달리 마지막 캠프까지 내려와 밤을 보낼 수 있었다. 날이 밝자 구름으로 뒤덮인 사면을 뚫고 고난의 하산을 계속한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캠프2를 거쳐 베이스캠프로 돌아왔다. 출발 6일 만에 다시 디아미르 계곡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었다.



정상에 선 김창호와 서성호(오른쪽).

◀ 정상 등정 시도를 위해 정상부 아래로 진입 중인 대원들.



Peak 7100

Mazeno Peak
7120m

Peak 6970

Peak 6825

Peak 6880

정상부에서 본 석양의 마제노 리지.
이 루트는 마제노라(5830m)~낭가파르바트 정상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종주하는 것으로 등반거리는 13km나 된다.
1979년부터 6차례나 시도됐으나 완주에는 실패했고,
2012년 영국의 샌디 앨런과 릭 앨런이 완주에 성공했다.



Shisha Pangma

2010 가을 시즌

시사팡마 — 8012m — 등정



악천후의 뗏을 뚫고 오른 거봉들의 막내

서성호는 2010년 9월 이 해 세 번째 출국 길에 나섰다. 물론 희망 원정대의 대원으로서다. 봄 시즌 네팔의 칸첸중가, 여름 시즌 파키스탄의 낭가파르바트에 이어 가을 시즌을 맞아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시샤팡마로 향했다. 히말라야 산맥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갔다가 다시 네팔 히말라야 주갈히말에 위치한 시샤팡마가 이 해의 마지막 목표였다. 봄과 여름 시즌 때와 달리 일행이 더욱 단출해졌다. 희망 원정대는 두 번의 원정을 함께 한 김진태가 시샤팡마 등반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홍보성 대장과 김창호 서성호 대원 3명만 장도에 올랐다.

서성호의 8번째 8000m 봉인 시샤팡마는 희망 원정대가 10번째로 등정한 고봉으로 유일하게 티베트에 속해 있다. 에베레스트에서 북서쪽으로 120km 떨어진 티베트 고원에 솟은 시샤팡마는 해발 4000m 대의 고원에서 다시 4000m를 우뚝 솟아 멀리서도 눈에 들어온다. 1960년 난공불락의 다울라기리 I이 스위스대에 의해 초등되자 세계 산악계의 관심은 8000m급 14좌 가운데 가장 낮은 막내 봉 시샤팡마로 쏠렸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64년 중국 원정대가 국가적 차원의 '등정 사업' 끝에 초등에 성공했다. 가장 늦게 초등된 것은 다른 나라와의 국경이 아닌, 중국이 점령한 티베트 땅에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시샤팡마의 초등을 위해 외국 원정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경쟁 없이 차근차근 준비해 국가적 사업을 벌여 초등의 영예를 가져갔다.

티베트어로 시샤팡마는 '풀밭이 있는 산'이라는 의미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성스러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뜻의 '고사인탄'으로 불린다. 시샤팡마의 존재가 알려진 건 20세기 초반부였다. 1921년 영국의 1차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32km 거리까지 접근했지만 더 이상의 접근은 거부당하고 사진 촬영조차 금지당했다. 1950년이 되어서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소개됐다. 이후 차츰 이 산의 전모가 알려졌지만 여전히 등반은 할 수 없었다. 중국은 외국 원정대의 입국을 막으면서 1955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산 활동을 시작해 1960년에

◀ 석양의 시샤팡마 남서벽 전경.

시사쌍마 남면 베이스캠프(5300m) 전경.
뒤 봉우리는 왼쪽부터 시사쌍마(8012m),
풍파리(7445m), 나남리(7071m),
아이스투스(6200m).



는 에베레스트를 세계 3번째로 등정했다. 이어 1961년 두 차례에 걸친 정찰 등반에서 시사쌍마 산군의 정확한 지형도를 완성하고 1963년 정찰대를 파견하여 등반 준비에 들어갔다.

이듬해인 1964년 중국은 206명의 대규모 원정대를 조직해 시사쌍마 초등을 위해 나섰다. 이 가운데 대장 쉬징을 포함한 10명이 정상에 올랐다. 해발 5000m에 설치한 북면 베이스캠프에서 정상까지는 수평거리로 36km에 달했다. 5월 1일 7700m의 최종 캠프에 도달한 중국 등반대는 2일 오전 어둠 속에서 최종 캠프를 출발해 무릎까지 빠지는 심설을 뚫고 매서운 추위 속에 50도의 급경사를 올랐다. 오전 10시 20분께 대원들이 올라선 정상은 넓이 5㎡를 조금 넘는 좁은 세모꼴이었다.

중국의 시사쌍마 등정은 1956년 일본의 마나슬루 초등에 이어 아시아 국가가 이룬 8000m 봉의 두 번째 초등이었다. 동시에 8000m급 14좌의 초등 레이스에 마침표를 찍었다. 시사쌍마 초등은 히말라야 8000m 거봉 초등 시대의 막을 내림과 동시에 등로주의 등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시사쌍마는 중국의 초등 이후 14년이 지난 1978년에야 비로소 외국 등반대에 개방됐다. 2등을 노리고 20개국 이 신청해 등반 허가를 받은 독일 원정대가 1980년 6명의 대원을 초등 루트를 통해 정상에 올렸다. 1982년에는 더그 스코트를 대장으로 하는 영국 원정대가 알파인 스타일로 4일 만에 남서벽을 통해 정상에 올라 시사쌍마에 두 번째 루트를 탄생시켰다. 한국은 중국이 초등한 지 27년 만인 1991년 대한산악연맹이 파견한 원정대의 김창선과 김재수가 남서벽 영국 루트를 재등하면서 국내 초등을 기록했다.

Leonpo Kang
(Big White Peak)
6979m

Gurkarpo Ri
6889m

Triangle
6600m





캠핑 아래 암벽지대를 오르고 있는 서성호.

희망 원정대는 네팔 카트만두를 거쳐 티베트로 들어갔다. 8000m급 14좌 대장정의 시작이 됐던 2006년 에베레스트 노스콜~북동릉 등반을 위해 들어간 이후 4년 만이었다. 산사태로 도로가 끊기면서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져 9월 16일이 되어서야 시샤판마 남면 호숫가의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 여기서도 날씨가 발목을 잡았다. 여름 계절풍의 영향으로 짙은 가스와 비, 폭설이 이어지며 입성 일주일 만에 비로소 시샤판마 산군을 바라볼 수 있었다. 원정대는 베이스캠프 도착 열흘 만인 9월 25일 루트 개척에 나섰다. 서성호는 첫 루트 개척 등반에서 해발 6950m까지 진출한 뒤 하산하다 남서벽 하단부의 고정로프가 끝나는 곳에서 아이젠에 생긴 스노우볼을 털다 미끄러져 200m 넘게 추락했다. 다행히 카메라만 잃어버리고 다친 데는 없었다(이후 김창호가 그 부근에서 카메라를 찾았다).

서성호와 김창호는 달이 바뀌고 10월의 첫날 정상 공략에 나섰다. 남서벽에 몰아닥친 폭풍으로 해발 7200m의 캠프2에 오르는 데 그쳤다. 이후로도 조석으로 급변하는 날씨 탓에 텐트를 벗어나지 못했다. 8000m급 14좌의 막내 봉이라고는 하지만 시샤판마는 엄연한 8000m 봉우리다. 다른 고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어렵다는 것이지 결코 쉬운 산은 아니다. 라인홀트 메스너에 이어 8000m급 14좌를 완등한

▶ 날카로운 설릉 위에 설치된 캠프1(6600m)로 하강하고 있는 김창호.





예지 쿠쿠츠카가 마지막으로 오른 산이 시샤팡마다. 그는 1987년 가을 시즌 서릉에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며 알파인 스타일로 등정에 성공했는데 당시 곳은 날씨와 눈사태에 애를 먹었다. 그는 등반 기록을 담은 <14번째 하늘에서>에 “날씨는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눈이 내렸다.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중국 측이 시샤팡마 등반을 허락한 기간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미리 5일을 연장하고 허가받은 원정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야에 해가 비치며 등반에 나서 정상을 밟을 수 있었다.

희망 원정대는 쿠쿠츠카처럼 악천후의 뒷에 걸려 8일간 텐트에 갇혀 무료하게 보낸 끝에 제트기류의 북상으로 바람이 다소 약해진다는 예보를 받아 들었다. 10월 12일 서성호는 김창호와 함께 다시 베이스캠프를 박차고 나섰다. 간발의 차로 눈사태를 피하고 조심스럽게 고도를 높였다. 다음 날 새벽 2시께 캠프2를 출발한 서성호와 김창호는 3시간 동안 암흑을 헤치며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고도를 높여갔다. 하늘이 밝고도 한참을 지난 오전 9시 30분께 ‘지옥의 문’이라 불리는 대협곡을 벗어났다. 영하 30도의 혹한을 뚫고 정오께 정상으로 이어지는 동릉에 올랐다. 드디어 마지막 캠프를 출발한 지 10시간 15분 만인 오후 2시 15분 서성호는 김창호와 함께 고도차 800m를



남서벽 해발 7200m의 날카로운 설릉 위에 데팔 대원 치링 도르제 세르파와 함께 캠프2를 만들고 있는 서성호(오른쪽).

◀ 캠프1(6600m)~캠프2(7200m) 구간의 설벽을 등반 중인 김창호.

Leonpo Kang(Big White Peak)
697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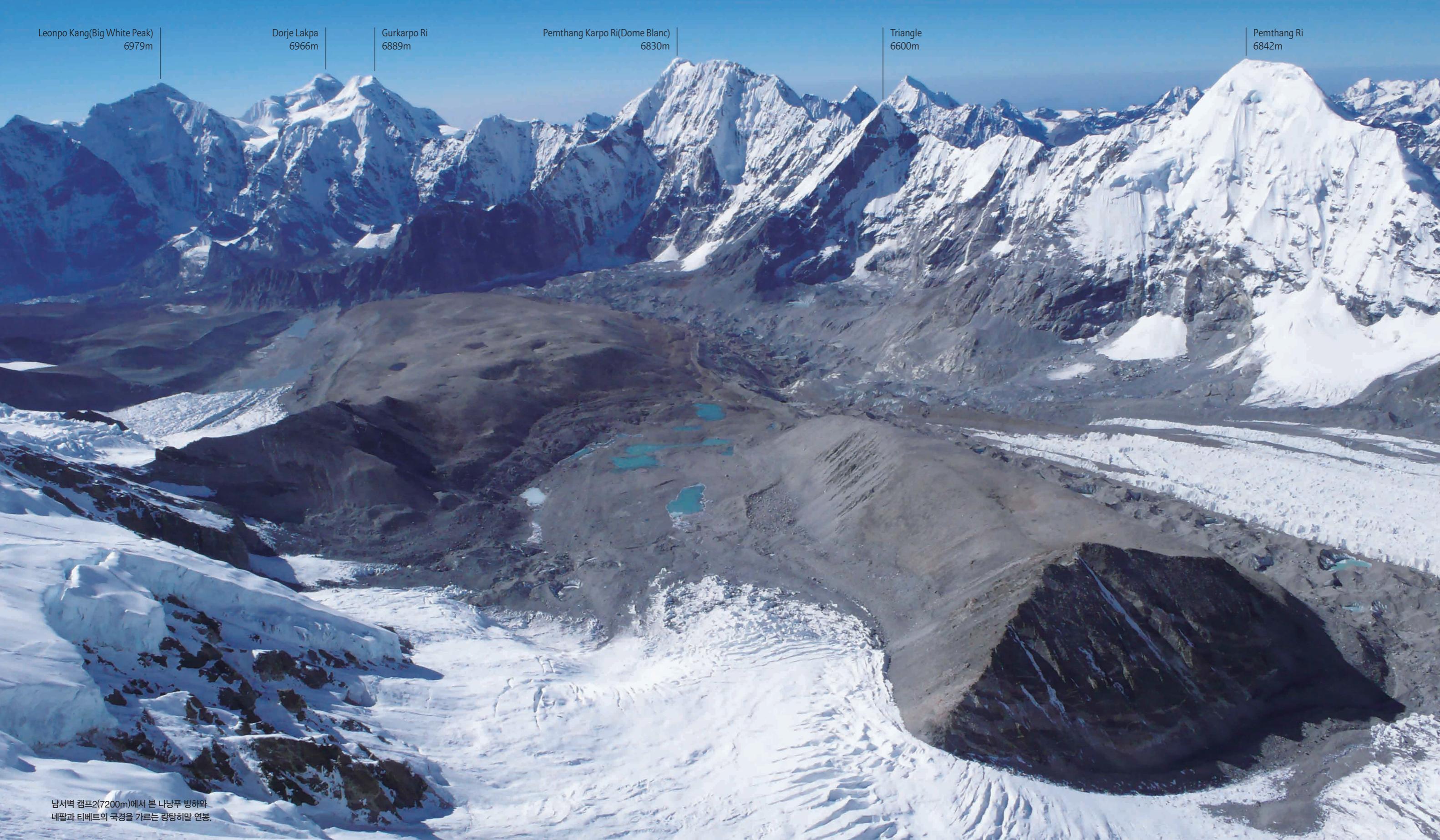
Dorje Lakpa
6966m

Gurkarpo Ri
6889m

Pemthang Karpo Ri(Dome Blanc)
6830m

Triangle
6600m

Pemthang Ri
6842m



남서벽 캠프2(7200m)에서 본 나랑푸 빙하와
네팔과 티베트의 국경을 가르는 광랑히말 연봉.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서성호. 오른쪽 날카로운 설릉이 끝나는 곳이 시샤팡마 중앙봉(7998m)



시샤팡마 주봉에 오른 김창호와 서성호(오른쪽)

극복하고 시샤팡마의 정상을 딛고 섰다. 멀리 남동쪽으로 짙게 깔린 구름층을 뚫고 솟은 에베레스트가 한낮의 햇살에 빛났다.

등정의 기쁨은 잠시, 쾌청하던 날씨가 돌변해 정상부 일대에는 순식간에 짙은 가스가 에워쌌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까지 몰아치자 더는 정상에 머물 수 없었다. 로프로 서로를 묶은 두 사람은 3시간 30분간의 고통스러운 하산 끝에 캠프2로 무사히 내려와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랑탕지역에 머물던 먹구름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시샤팡마 정상부를 에워쌌다. 또한 마나슬루와 안나푸르나 산군에 걸쳐져있던 제트기류가 남하하면서 폭풍설을 몰고 와 시샤팡마 산군은 회색지대로 변하고 말았다. 다행히 그때는 서성호와 김창호가 남서벽을 내려서고 난 후였다. 행운이 따른 것이다. 하루만 늦었어도 시샤팡마 등정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원정대는 애초 남서벽 등정에 이어 남서벽~동릉을 통해 정상에 도달하는 새로운 루트 개척을 계획했지만 급격하게 겨울로 접어드는 날씨에 미련 없이 욕심을 접었다. 그렇지만 2010년은 행운의 해였다. 봄부터 숨가쁘게 한국과 नेपाल, 파키스탄, 중국을 오가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시샤팡마를 오르면서 서성호뿐만 아니라 희망 원정대도 2006년 에베레스트 등정 이후 처음으로 한 해 세 개의 8000m 거봉 등정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 남서벽 상단부 대협곡 일명 '지옥의 문'을 벗어나 동릉에 올라선 김창호.



Cho-Oyu 8201m

Mount Everest 8848m

Lhotse 8516m

시사팡마 정상부에서 본 티베트 고원.
구름 위에 솟은 봉우리는 왼쪽부터 초오유(8201m),
에베레스트(8848m), 로체(8516m).



Annapurna I

2011 봄 시즌

— 안나푸르나 I — 8091m — 등정



두 번째 도전에서 오른 희망 원정대의 난제

누구에게나 살아가며 가장 빛나는 시기가 있다. 서성호에게는 2011년이 바로 그런 해였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합류한 희망 원정대의 일원으로 본격적인 고산 등반에 나서 신들의 영역이라는 8000m 위의 세상에서 마음껏 그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등반에 나선 그는 어느덧 8000m 8개 봉을 올라 주목받는 고산 등반가로 성장했다. 히말라야에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는 그가 보낸 최고의 시기는 한 해 8000m 4개 봉을 오르면서 희망 원정대가 14좌 완등을 이룬 2011년이었을 것이다.

2006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시작으로 2010년 시샤판마까지 5년 동안 8000m 10개 봉 등정에 성공한 희망 원정대는 2011년에는 나머지 4개 봉을 모두 올라 단일팀 세계 최초 8000m급 14좌 완등의 마침표를 찍을 계획을 세웠다. 봄 시즌 안나푸르나 I을 시작으로 여름 시즌에는 파키스탄으로 넘어가 가셔브룸 Ⅲ를, 가을 시즌에는 중국-네팔 국경에 솟은 초오유 연속 등정에 도전한다. 그 첫 번째 목표는 서성호



안나푸르나 북면 베이스캠프(4190m)에서 무사 등반을 기원하는 서성호(왼쪽)와 김창호.

▶ 전진 캠프 아래 북안나푸르나 빙하 모레인 지대에서 정상부를 바라보고 있는 서성호.





는 물론 희망 원정대에게 여러 차례 좌절을 안겨준 안나푸르나I이었다. 11번의 도전으로 10개 봉을 올랐는데 그 한 번의 실패가 안나푸르나I이다.

서성호와 희망 원정대는 2009년 봄 마나슬루와 다올라기리I에 이어 안나푸르나I을 등정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두 봉우리를 오르는 동안 조금씩 늦춰진 일정과 때이르게 다가온 몬순의 영향으로 안전을 위해 안나푸르나 앞에 서 보지도 못하고 봄 시즌의 등반을 접었다. 이어 그해 가을 한국의 다른 3개 팀과 함께 도전에 나섰지만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설과 계속되는 강풍으로 7200m를 최고점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어 2010년 봄 시즌에 캄첸중가와 안나푸르나I 연속 등정을 노렸다. 캄첸중가 등정 후 안나푸르나로 이동하려 했으나 히말라야 전역을 덮은 악천후로 아쉬움을 안고 또 한 번 안나푸르나I 정상의 꿈을 접어야 했다.

서성호는 2011년 봄 시즌 다시 안나푸르나를 찾았다. 2009년 가을 안나푸르나I 원정 때와 같이 정예 대원 3명(홍보성, 김창호, 서성호)으로 구성된 희망 원정대는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루트로의 등정을 목표로 했다. 나머지 세 개 봉도 마찬가지였다. 안나푸르나I은 눈사태의 위험이 상존하는 북동 버트레스 루트를 배제하고 난이도가 높은 북벽 직등 루트를 택했다.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서성호와 김창호라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희망 원정대는 익숙해진 경로인 인천과 방콕을 거쳐 시야캉마 등반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카트만두에 들어섰다. 최근 내린 폭설로 안나푸르나 북면 베이스캠프로 연결되는 고개가 막혀 길이 끊긴 상태였다. 희망 원정대는 함께 등반하기로 한 코오롱 스포츠팀과 의논 끝에 도보 캐러밴을 포기하고 헬리콥터를 이용하기로 했다.

국내선 항공편으로 포카라에 도착한 뒤 차량으로 안나푸르나 푼힐 전망대로 가는 기점인 따포바니에 닿았다. 다음 날 소형 헬리콥터로 8차례 왕복 운항으로 두 팀의 대원과 고용인 10여 명, 2톤이 넘는 장비와 식량을 베이스캠프로 옮겼다. 한 번 비행에 걸린 시간은 고작 10여 분으로 3시간 남짓한 비행으로 꼬박 4~5일은 발품을 팔아야 하는 베이스캠프에 수월하게 올라갔다. 비록 하늘을 가린 원시림과 야생화가 만발한 초원, 히말라야 연봉을 조망하는 즐거움을 누리진 못했으나 대원들의 안전과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두 팀은 성공적인 등반을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 희망 원정대는 신루트 등반

◀ 새로운 루트로의 등반을 위해 북벽 아래로 나아가고 있는 서성호.

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코오롱스포츠팀은 고소 포터 2명을 고용했다. 여러 차례 등반을 위해 연구하고 직접 등반한 경험을 살려 두 차례의 운행으로 500여 m의 대암벽을 올라 해발 5000m에 전진 캠프를 세웠다. 그 후 북벽을 직등해 정상에 이르는 새로운 루트로의 등반에 나섰다. 하지만 북벽 하단부에는 너비 100여 m, 높이 30~40m의 대형 세락이 길을 막고 있었다. 봄으로 접어들어 차츰 기온이 오르는 상황에서 장기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신루트 등반의 꿈을 접었다.

결국 등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세락보다는 앞서 피하려고 했던 북동면의 눈사태 위험과 맞닥뜨리기로 했다. 등반 루트를 변경해 북동 버트레스 공략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천후가 앞을 가로막았다. 첫 시도는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에 막혔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해발 6400m에 등정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캠프2를 설치했다. 하지만 폭설과 제트기류가 몰고 온 강풍을 피해 베이스캠프에 내려오면서 두 차례에 걸친 등정 시도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일주일간의 휴식으로 원기를 회복한 서성호는 김창호와 함께 베이스캠프 도착 한 달 만에 다시 정상 등정에 나섰다. 여러 날 쌓인 심설을 뚫고 강풍을 극복하면서 7050m의 캠프3에 진출했다. 그곳부터 정상까지는 수직으로 1000m가 넘게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의 등반 능력으로 정상까지 10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하산 시간을 고려하면 오전 10시까지 정상에 도달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등정 시도에 앞서 많은 변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북면 노멀 루트는 정상부 헤드월 암벽지대 아래를 횡단하여 정상으로 이어지는 꼴르와르를 통해 정상에 오른다. 이 루트는 눈도 깊고 하산 때 화이트아웃 속에서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난이도는 높지만 안전을 고려해 동릉을 통해 정상에 이르는 루트를 택했다.

다음 날인 26일 오전 0시 30분께 드물게 포근하고 바람도 불지 않는 날씨에 마지막 캠프를 나선 서성호는 김창호와 함께 정상으로 향했다. 이어 코오롱스포츠팀과 이탈리아팀도 그 뒤를 따랐다. 무릎까지 빠지는 심설을 뚫고 오르다 보니 운행 속도가 차츰 느려지면서 체력 소모도 심해졌다. 새벽 4시께 여명이 밝아오자 남면 저지대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정상부로 가스가 뿌연게 차올라와 가시거리가 50m도 채 되지 않았다. 서성호는 오전 11시께 눈에 덮인 동릉을 따라 바위와 눈이 섞인 좁은 협곡으로 올라섰다. 구름은 더욱 짙어져 10m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조심스

▶ '북벽 직등 루트'의 청빙 구간(6300m)을 선등하고 있는 김창호.





북동벽 캠프1(5400m)~캠프2(6400m)
구간의 설벽을 등반 중인 한국팀 대원들.



정상부 커니스(8084m) 아래에 도착한 이탈리아팀과 한국팀.

렵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눈 덮인 능선을 올라 드디어 눈처마가 형성된 능선의 최고 정점에 올라섰다. 마지막 캠프를 출발한 지 13시간이 지난 오후 1시 45분이었다.

1950년 안나푸르나를 초등한 모리스 에르조그는 등반기 <최초의 8000m 안나푸르나>에서 정상에 오른 순간을 이렇게 전했다. “정상의 한 면은 얼음으로 된 눈처마를 이루고 있고 또 다른 면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찔하고 깊은 절벽이 바로 내 발아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다. … 그리고 우리 머리 위로는 푸른 하늘만 보일 뿐 아무 것도 없다.” 그때로부터 51년이 지나 서성호의 머리 위엔 푸른 하늘 대신 하얀 가스와 구름만이 에워쌌지만 ‘더 위로는 아무것도 없는’ 정상을 밟은 감흥은 다를 바 없었다. 에르조그가 말한 대로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찾아간 안나푸르나는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살아갈 보배’를 안겨줬다. 이로써 서성호는 9번째 8000m 거봉 정상에 올랐다.

이날 서성호는 한꺼번에 두 등반기의 8000m급 14좌 완등 자리에 함께 했다. 코오롱스포츠팀의 김재수 대장은 1990년 에베레스트 등정 이후 21년 만에, 이탈리아의 아벨레 블랑은 2002년부터 여섯 번의 도전 끝에 이날 등정에 성공하면서 14좌 완등의 꿈을 이뤘다. 큰 난제를 해결한 서성호와 희망 원정대는 다음 목표인 가셔브롬 III 원정에 앞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부산으로 돌아왔다.

▶ 정상부로 이어지는 동릉을 등반 중인 한국팀 대원들.





Dhaulagiri I
8167m

Mukt Himal
6639m

Sita Chuchuta(Tukuche West)
6611m

French Pass
536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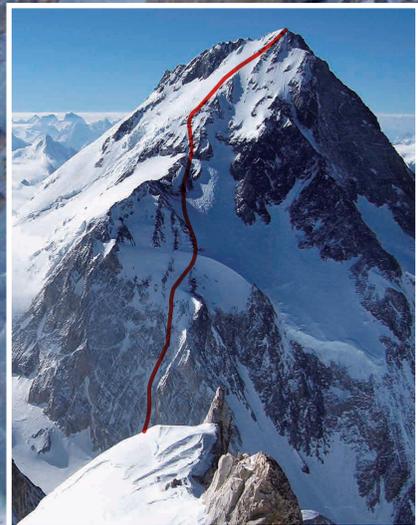
Nilgiri South
6839m

North-east Col
5877m

안나푸르나 I 북동벽
캠프3(7050m)에서 본 다올라기리 산군.

Gasherbrum I

2011 여름 시즌 — 가셔브룸 I — 8068m — 등정



삼세번 시도... 마지막에 하늘이 열어준 길

서성호는 유일하게 실패를 안겨줬던 안나푸르나를 기어이 등정하고 귀국했다. 그러나 다시 한 달 만에 희망 원정대의 일원으로 가셔브룸Ⅰ과 가셔브룸Ⅱ 등반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떠났다. 희망 원정대가 파키스탄을 찾은 것은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였고, 서성호는 한 해 전 낭가파르바트 등정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 해 8000m급 14좌 완등을 끝내려는 희망 원정대에게 남은 봉우리는 이제 세 개였다. 봄 시즌 안나푸르나Ⅰ에 이어 여름 시즌 가셔브룸 산군의 2개 봉우리와 티베트의 초오유까지 등정 계획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를 수 없는 여정이었다. 이제 설산의 텐트가 집 못지않게 익숙해진 서성호에게 8000m 거봉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오래 호흡을 맞춘 파트너 김창호와의 등반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손발이 맞는 두 사람은 가셔브룸 Ⅱ를 단시간 안에 연속 등정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원정에는 천성진이 합류해 대원이 4명으로 늘었다.



▲ 카라코람의 등반 기점인 아스콜리 마을 노인의 기도. 파키스탄인 95%는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으로 하루 다섯 번 기도한다.



▲ 카라코람의 오아시스 파유(3368m)에서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자신들의 행운과 원정대의 무사 등정을 알라신에게 기원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포터들.



그레이트 카라코람을 상징하는 네임리스 타워(6239m).

Paiyu 6610m

Uli Biaho Tower 6527m

Trango Towers 6545m





희망 원정대는 이슬라마바드에서 등반 준비를 마치고 카라코람의 등반 기점인 스카르두와 아스콜리를 거쳐 본격적인 캐러밴에 나섰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유역이 가장 넓고 58km 길이를 자랑하는 발토로 빙하를 거슬러 트랑고 타워(6545m), 마셔브룸(7821m), 무즈타그 타워(7273m) 사이를 지나 콩코르디아(4600m)를 거쳐 일주일만인 6월 20일 해발 5030m의 가셔브룸 베이스캠프에 입성했다.

카라코람의 거봉 가셔브룸 I은 발토로 빙하를 곁에 두고 하늘의 제약 K2와 브로드피크, 가셔브룸 II와 어깨를 견주며 섰다. 어렵기로 손꼽는 K2(8611m)의 곁에 있지만 8000m를 간신히 넘어 높이로 111213번째인 가셔브룸 I(8068m)과 브로드피크(8047m), 가셔브룸 II(8035m)는 쉽게 등반할 수 있는 산으로 여긴다. 실제로도 다른 거봉에 비하면 등정이 쉬운 산이다. 하지만 가셔브룸 산군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등반 조건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기상이 안정적일 때는 수월하게 오르지만 기상이 급변하면 여느 거봉과 다를 바 없이 쉽게 정상에 허락하지 않는다. 이 일대는 술한 고산들이 솟아 있고 발토로 빙하를 비롯한 거대한 빙하가 발달해 네팔 히말라야보다 접근



아브루찌 빙하 모레인 지대의 가셔브룸 베이스캠프(5030m) 전경. 왼쪽 봉이 가셔브룸 I(8068m), 오른쪽 봉이 가셔브룸 I 남봉(7109m)

◀ 가셔브룸 베이스캠프로 향하고 있는 포터들. 맨 왼쪽 봉우리가 무즈타그 타워(7273m).



남가셔브롬 빙하의 캠프1(5922m) 전경.
설연이 휘날리는 봉이 가셔브롬III(7952m).

하기가 어렵다. 지형도 험한데다 네팔 히말라야의 거봉들보다 위도가 5도 정도 북쪽이라 기온이 더 낮다.

가셔브롬 산군은 1892년 마틴 콘웨이가 이끈 탐험대가 처음으로 찾았다. 현지어로 '아름다운 산'이란 의미의 가셔브롬I은 '히든피크'로 더 잘 알려졌다. 당시 콩코르디아까지 들어왔던 콘웨이가 가셔브롬I을 비롯한 가셔브롬 산군이 다른 거봉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히든피크'로 부른 게 이름의 유래다. 가셔브롬 산군에 원정대가 들어온 것은 콘웨이의 탐험 이후 40여 년이 지난 1934년이다. 독일인 권터 뒤렌푸르트가 이끈 국제 등반대가 가셔브롬II를 처음으로 탐험하면서 남동릉 해발 6200m 지점까지 올랐다. 이어 1936년에는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히말라야에 뛰어든 프랑스가 최초의 히말라야 등반대를 가셔브롬I에 파견했지만 악천후로 두 달 만에 7070m를 최고점으로 철수했다.

이후 카라코룸은 한동안 잊혔다가 1953년 독일의 낭가파르바트를 시작으로 차례로 초등됐다. 1954년 이탈리아대의 K2에 이어 오스트리아대가 1956년 가셔브롬II와 1957년 브로드피크를 잇달아 초등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미국이 1958년 가셔브롬I을 초등하면서 파키스탄 거봉의 초등 경쟁은 막을 내렸다. 미국은 앞서 K2를 비롯해 여러 차례 거봉 초등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다. 체면을 구긴 강대국 미국은 초등 대열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니콜라스 클린치가

▶ 남가셔브롬 빙하의 크레바스를 통과하고 있는 서성호.





북릉~북벽을 통해 정상에 오르는 새로운 루트로의 등반을 위해 심설을 헤치며 가셔브룸라(6600m)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김창호.

이끈 미국대는, 1934년 뤼렌푸르트 원정대가 탐색했던 남동릉 공략에 나서 폭설, 강풍, 혹한을 극복하고 대장 닉 클린치의 표현대로 '하늘 위에서 기나긴 산책'을 한 끝에 초등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체면을 살렸다. 한국 초등은 1990년 여름 시즌 '대전·충남 산악연맹 가셔브룸 III 원정대'의 박혁상이 이뤘다.

2011년 희망 원정대는 보름 안에 알파인 스타일로 새로운 루트를 통해 정상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웠다. 폴란드대가 루트를 개척해 둔 덕분에 베이스캠프에 입성한 이후 해발 5922m의 캠프1에 힘들이지 않고 올라갔다. 이후 가셔브룸VI에서 흘러내린 눈사태의 후폭풍에 휩싸이고 크레바스에 몇 번이나 빠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서성호는 김창호와 함께 가셔브룸II 남서릉의 해발 6200m까지 올라 고소 적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날씨가 호전된다는 예보에 두 사람은 등정 시도를 위해 캠프1로 진출했으나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습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눈은 쉽게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등반은 더디기만 했다. 7월 초가 되자 예정했던 등반 일정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가셔브룸 III의 연속 등정을 마치고 가을 시즌에 초오유 원정에 나서야 하는 원정대로서는 여유를 부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7월 10일 제트기류가 물러나고 날씨가 좋아진다는 예보에 서성호와 김창호는 지체 없이 배낭을 꾸려 베이스캠프를 박차고 나섰다. 캠프1을 거쳐 북면으로 올라갔지만 여러 날 쌓인 깊은 눈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예정에 없이 6350m 지점에서 캠프를 설치하고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출발했지만 여전히 심설이 발목을 붙잡았다. 더욱이 북면에서는 작은 눈사태가 빈발했고 세락 붕괴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었다. 알파인 스타일로 북면 스피에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려던 야심찬 계획은 두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했다. 신루트로의 등반은 서성호와 김창호의 능력과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했다. 행운이 따라줘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미련 없이 발길을 되돌린 두 사람은 북벽 노멀 루트상의 캠프2로 다시 내려왔다. 여기서 재패니즈 쿨르와르로 진입했다. 이 루트는 오스트리아팀을 비롯해 이미 10여 명이 등반 중이라 정체가 빚어졌다. 간간이 흘러내리는 눈사태와 수시로 떨어지는 낙석으로 인해 루트 개척이 지연되면서 임시 캠프를 나선 지 12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 30분에야 쿨르와르를 벗어나 7050m의 캠프3에 도달했다. 루트를 변경하며 소중한 하루를 보낸 이들은 정상 공략을 위한 휴식에 들어갔다.



등반 시작 30일 만에 가셔브룸 | 정상에 오른 서성호.

다음 날인 12일 두 사람이 눈을 뜨자 밤새 세차게 텐트를 뒤흔들던 바람이 잦아들고 기온도 영하 20도를 넘나들어 등반하기에 나쁘지 않은 날씨가 반겼다. 오전 6시께 텐트를 나섰다. 두 사람은 함께 등반한 이래 처음으로 별빛이나 달빛, 헤드램프의 도움 없이 환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등반을 시작했다. 둘은 빠른 운행을 위해 서로 로프를 묶지 않고 각각의 리듬과 페이스를 유지하며 고도를 높였다. 오전 8시께 정상으로 향하는 협곡을 벗어나 바위 능선 위에서 모처럼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다. 그러나 햇살이 눈을 녹이며 발이 빠져 오히려 등반이 어려워졌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심설을 뚫고 무너져 덮칠 듯한 세락을 지나 정상으로 향하는 완만한 능선에 올라섰다. 먼저 정상에 선 서성호는 눈 앞에 펼쳐진 카라코람의 산군을 바라보며 오른손에 든 피켈을 높이 들어 올려 등정의 기쁨을 표현했다. 마지막 캠프를 출발한 지 8시간 10분이 지난 오후 2시 10분이었다.

고도차 1000여 m를 극복하고 오른 정상에서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구름을 허리에 감고 도열하듯 둘러선 카라코람의 고봉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북서쪽에 K2가 웅자를 드러냈고 가셔브룸Ⅱ와 브로드피크, 마셔브룸, 무즈타그 타위가 주변에 둘러섰다. 바람은 고요하고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청명했다. 노멀 루트로 올라 다른 팀이 설치한 고정 로프를 이용하고 기막힌 날씨의 도움까지 받아 베이스캠프 출발 사흘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북서쪽 지척에 솟은 다음 목표 가셔브룸Ⅱ를 바라보며 각을 다진 두 사람은 베이스캠프로 되돌아가는 하산길을 서둘렀다.

◀ '재패니스 폴르와르'를 등반 중인 서성호(맨 뒤).



Gasherbrum IV
7925m

Broad Peak
8047m

Broad Peak North
7538m

Gasherbrum II
8035m

K2
8611m

Gasherbrum II East Peak
777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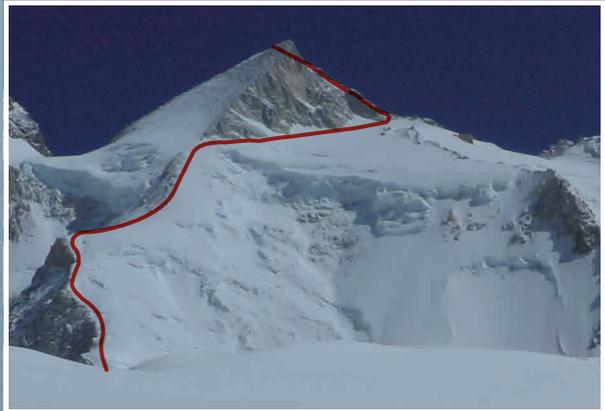
가셔브룸 I (8068m) 정상에서 본 발트로 무즈타그 산군의 고봉들.



Gasherbrum II

2011 여름 시즌

가셔브룸II - 8035m - 등정





허락된 시간은 보름, 기회는 단 한 번

여러 차례 전진과 후퇴를 거듭한 끝에 등정에 나서 베이스캠프 출발 3일 만에 가셔브롬 I 을 오르고 다시 베이스캠프까지 돌아온 서성호는 시선을 돌려 눈앞에 솟은 가셔브롬 II 를 바라봤다. 어느덧 7월도 절반 가까이 지난 14일의 일이었다. 곧바로 가셔브롬 II 등반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트기류의 영향으로 불어닥친 강풍과 눈보라에 일주일 동안 발이 묶였다. 마지막 목표인 초오유 등반을 위해 가셔브롬 II 등반에 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보름 남짓이었다. 애초 남서릉에서 알파인 스타일로 신루트로의 등반을 계획했지만 시즌이 막바지로 치닫는 데다 다시 제트기류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등정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희망 원정대는 8000m급 14좌 완등을 이 해 안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등정 가능성이 높은 남서릉 ~ 동릉 루트로 방향을 틀었다.

항상 웃음 띤 얼굴로 함께 오르는 고소 포터들과는 물론 다른 원정대와도 뭐든 도와주며 격의 없이 잘 어울리는 서성호가 이때 외국 원정대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한 일이 있었다. 바로 날씨 때문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기상 예보 때문이었다. 외국팀이 등반을 준비할 때 희망 원정대는 국내에서 보내온 기상 예보에 따라 며칠 더 기다릴 참이었다. 이때 낯익은 외국 등반가들이 한국의 기상 예보는 부정확해 믿을 수 없다고 하자 흥분한 서성호가 등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기상 예보가 맞아 악천후가 계속되기를 바란 것이다. 엉뚱한 데서 애국심을 발휘한 셈이다. 한국 기상 예보를 믿고 며칠 뒤늦게 출발했지만 서성호와 김창호는 앞서 올라간 외국 원정대를 따라잡고 끝내는 이들을 이끌고 정상에 올랐다.

높이로 13번째 고봉인 가셔브롬 II 는 가셔브롬 I 보다 2년 빠른 1956년 오스트리아 등반대에 의해 초등의 역사가 씌어졌다. 1954년 초오유에 이은 오스트리아의 두 번째 8000m 초등이다. 오스트리아는 이듬해 브로드피크까지 초등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세 개의 8000m 거봉 초등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가셔브롬 II 는 가

◀ 남가셔브롬 빙하 아이스폴 지대를 통과하고 있는 대원들.

Baltoro Kangri I
7312m

Gasherbrum VI
7003m



남서릉 캠프2(6400m) 전경.

셔브룸 I과 마찬가지로 1934년 스위스의 권터 뒤렌푸르트가 처음 답사해 세상에 알렸다. 가셔브룸 산군은 8000m가 넘는 가셔브룸 Ⅲ를 비롯해 가셔브룸 Ⅲ(7952m), 가셔브룸 Ⅳ(7925m)와 같은 7500m가 넘는 25개의 봉우리가 웅장하게 모여 섰다.

1957년 브로드피크와 1960년 다올라기리 I을 초등한 쿠르트 디엠베르거는 그의 다섯 번째 8000m 산인 가셔브룸 Ⅱ를 등정하러 갔을 때 바라본 가셔브룸 산군을 이렇게 묘사했다. “가셔브룸은 아름답게 빛나는 산이라는 말이다. 해가 질 무렵이면 석양을 받아 황금빛 수정체로 빛나는 그 환상적인 석회암 벽을 볼 수 있다. 가셔브룸 Ⅳ는 이 산군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아니지만, 그 이름에 가장 어울린다.” 이렇게 가셔브룸 Ⅳ를 가셔브룸 산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로 꼽으면서 그는 가셔브룸 Ⅱ는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운 피라미드’라고 표현했다.

1956년 가셔브룸 Ⅱ 초등에 도전한 오스트리아 원정대는 1934년 이 산의 남쪽을 답사한 독일인 권터 뒤렌푸르트의 보고서를 토대로 남서릉 루트를 골랐다. 대원 8명과 로컬 포터 270명, 다수의 발티 출신 고소 포터로 구성된 대규모 원정대는 아브루찌 빙하와 가셔브룸 빙하가 합류하는 곳에 베이스캠프를 세웠다. 해발 6000m에 설치한 캠프 1이 눈사태로 쓸려갔지만 철수하는 대신 무산소 경량 등반으로 전진을 택한 이들은 3일 만에 고소 캠프 3개를 설치하며 7150m까지 진출했다. 이어 프리츠 모라벡 대장을 포함한 3명의 대원이 정상 공략에 나서 7500m에서 한 차례 비바크한 뒤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께 정상에 섰다. 가셔브룸 Ⅱ 초등 루트는 매우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등정이 이 루트를 통해 이뤄진다. 가셔브룸 Ⅱ 한국 초등은 1989년에 이어 1991년 두 번째 도전한 성균관대산악회의 김창선 한상국 김수홍 유석재가 이뤘다.

가셔브룸 Ⅱ 한국 초등 20년이 되는 해, 서성호는 기상 예보를 두고 발끈하기는 했지만 냉정하게 기상 상황을 지켜보며 등정을 준비했다. 다른 원정대가 먼저 출발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이미 가셔브룸 I 등정으로 고소 적응이 돼 있는 상태라 소위 ‘원 푸시 스타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 사흘 만에 등정과 하산을 마칠 계획이었다.

정상 등정 시도 첫날인 7월 20일 자정을 조금 지난 새벽 눈이 날리는 가운데 서성호는 김창호와 함께 베이스캠프를 나서 새벽 4시께 가셔브룸 Ⅲ의 전진 캠프 구실을 하는 해발 5922m의 캠프 1에 도착했다. 다행히 눈이 내리고 가스로 가득했던 날



정상부 피라미드 아래를 횡단하고 있는 외국팀 대원들.



베이스캠프 출발 이틀 만에 시속 100km의 강풍을 뚫고
가셔브룸II 정상에 오른 김창호와 서성호(왼쪽)

씨는 차츰 맑아지고 있었다. 다시 등반에 나선 두 사람은 베이스캠프에서 하루 만에 고도 2000m를 극복하고 오후 4시께 해발 6950m의 캠프3에 진출했다. 때마침 골드윈 코리아의 강기석팀이 올라와 서성호와 하룻밤을 보냈다. 서성호와 강기석은 산에서의 인연이 깊다. 둘은 2004년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의 대원으로 함께 훈련했고, 그해 여름 북미 데날리 등반 때는 조난한 강기석팀의 구조에 서성호가 나서기도 했었다.

자정을 넘겨 21일로 날씨가 바뀌자마자 정상 등정을 위해 캠프3에 올라온 원정대들의 텐트가 부산해졌다. 서성호와 김창호는 다른 팀보다 조금 늦은 새벽 2시께 텐트를 나섰다. 출발 1시간 만에 앞선 그룹을 만났지만 30여 명이 몰리는 바람에 정체가 빚어져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 둘은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전에 등정하기 위해 고정 로프가 설치된 등반로를 벗어나 가파른 설사면과 바위지대를 올라 외국팀을 추월해 선두에 나섰다. 교대로 앞장서 심설을 뚫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정상으로 이어지는 동릉의 설원에 올라섰다. 서성호는 선두 그룹을 이끌고 김창호는 후미 그룹을 독려하며 정상으로 나아갔다.

어느 고봉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등반이었다.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폭풍이 몰아쳤다. 기상이 좋은 날이라면 가볍게 오를 수 있는 루트였지만 이날

▶ 가셔브룸II 정상에서 본 발트로 무즈타그 산군의 고봉들.



정상으로 향하는 설사면은 죽음의 지대였다. 서성호는 오전 11시 50분께 휘몰아치는 강풍을 뚫고 마지막 칼날 능선을 벗어나 먼저 정상에 올라섰다. 김창호도 40분 뒤에 서성호의 곁에 섰다. 가셔브룸 I을 등정한 지 9일 만이었다. 북쪽으로 넘실대는 구름 위로 K2와 브로드피크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의 강풍을 맞으며 풍광을 감상하는 건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서로 얘기조차 나누기 힘든 상황에서 바람을 피해 카라코람의 고봉들을 걸논길로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짧게 사진 촬영을 마친 두 사람은 서둘러 하산에 나서 어렵게 올라섰던 정상 부 설사면을 빠르게 벗어났다. 동릉 안부에 내려와서야 잦아든 바람에 간신히 숨을 돌리고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었다. 둘은 정상에서 3시간 만에 캠프3에 돌아왔다. 오르기 쉬운 산으로 꼽히는 가셔브룸 II가 이날 만큼은 두 사람이 이전에 힘겹게 올랐던 칸첸중가나 낭가파르바트에 못지않게 어렵고 두려운 산이었다. 마지막 캠프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셋째 날 무사히 베이스캠프로 귀환했다.

희망 원정대는 이른 시기 안에 완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은 끝까지 잊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의 봉우리를 오르는 것도 아쉬운 상황에서 2009년 안나푸르나 I 등반 때 기상이 악화되자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비록 새로운 루트로의 등반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등반으로 착실하게 정상을 하나씩 밟아 나갔다. 특히 고소에 적응한 상태에서의 연속 등반에서는 기록적으로 빠른 속공 등반을 해냈다. 2007년 K2 등정에 이어 브로드피크는 4일 만에 올랐고, 2008년 마칼루 등정에 이어 로체는 3일 만에 정상에 섰다. 또 2009년에는 마나슬루에 이어 6일 만에 다올라기리 I을 올랐다. 네 팔과 파키스탄, 티베트를 옮겨 다닌 2010년에는 그런 속공 등반은 못했지만 2011년에는 가셔브룸 III에서 또다시 속전속결 등반을 해냈다. 가셔브룸 I 등정 후 가셔브룸 II는 베이스캠프 출발 이틀 만에 정상에 올라 2개 봉 연속 등정에 성공한 것이다.

가셔브룸 II 등정으로 8000m급 14좌 완등에 초오유만 남겨둔 희망 원정대는 두 팀으로 나뉘 곧바로 철수를 단행했다. 고용인들은 상행 캐러밴 루트인 발토르 빙하로 하산하고, 대원들은 곤도고로 패스(5940m)를 넘어 후쉐를 거쳐 스카르두로 내려왔다. 이슬라마바드의 파키스탄 알파인클럽에서 등반 브리핑을 마친 원정대는 방콕을 거쳐 출국 61일 만인 8월 5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하행 캐러밴 중 비그네 빙하에서 본 발토르 무즈타그 산군의 고봉들.

Laila Peak(Hushe Valley)
6096m

Masherbrum
7806m

하행 캐러밴 중 곤도고로 패스(5940m)에서 본
마셔브룸 산군의 고봉들.



Cho-Oyu

2011 가을 시즌 ——— 초오유 — 8201m — 등정



희망 원정대와 오른 12번째 거봉

2011년 그 대단했던 한 해의 등반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봄 시즌 안나푸르나 I, 여름 시즌 가셔브롬 III 를 올라 2010년에 이어 8000m 3개 봉을 오른 서성호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을 시즌 네 번째 거봉에 도전한다. 희망 원정대는 8000m급 14좌 완등을 위해 이제 하나만을 남겨뒀다. 초오유 정상에 올라 이 해가 가기 전에 완등을 마무리 지을 작정이었다. 서성호에게는 12번째 8000m 거봉 도전이었다.

희망 원정대는 가셔브롬 III 등정 후 귀국했다가 보름 만에 다시 출국해 네팔 카트만두를 거쳐 티베트로 들어갔다. 니알람과 텅그리를 거쳐 초오유 북면 베이스캠프에 들어선 건 9월 4일이었다. 8000m 거봉 베이스캠프 가운데 가장 높은 해발 5700m에 있는 초오유 북면 베이스캠프에서는 남동쪽으로 5km 떨어진 초오유 북서면과 네팔-티베트 국경의 고개인 낭파라(5716m) 일대에 펼쳐진 설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네팔과 티베트의 국경을 이루는 히말라야 주산맥에 자리한 초오유는 8000m급 14좌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다. 초오유라는 이름은 티베트어로 '터키석의 여신'을 뜻하는데



초오유 등반기점인 티베트의 텅그리 고성에서 촬영 중인 김창호



텅그리 사원 입구의 마니차(윤경통)를 돌리며 무사 등반을 기원하는 서성호(맨 앞)와 한국팀 대원들.

▶ 초오유 북면 베이스캠프(5700m) 전경.





캠프1로 운행 중인 서성호. 뒤 봉우리는 파상라무출리(7350m·Jasamba)

이는 보석처럼 아름답고 기품있는 여신이 사는 산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1952년 에릭 심튼이 이끈 영국 원정대가 처음으로 여신의 산에 도전했다. 이들은 등정보다는 다음 해 있을 에베레스트 초등 도전에 대비한 전지훈련 성격의 등반대로 대원의 고소 적응 훈련과 새로운 장비의 시험이 주목적이었다. 이들은 낭파라를 넘어 북서면을 정찰한 뒤 몰래 티베트 국경을 넘어 해발 6800m의 아이스폴 지대까지 진출하지만 세락 장벽이 가로막아 등반을 단념하고 돌아섰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54년 오스트리아대가 초오유를 노렸다. 이들은 영국인들과는 달리 낭파라를 넘어 당당하게 티베트로 들어가 북서면 아래에 베이스캠프를 세웠다. 당시 8000m 거봉 초등 경쟁은 대부분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전 형태로 시도됐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대는 헤르베르트 티히가 개인적으로 꾸린 등반대였다. 대원 3명의 소박하고 검소한 등반대는 고소 캠프 4개를 설치하며 북서벽을 통해 정상 공략에 나섰다. 하지만 거세게 불어닥친 제트기류에 밀려 돌아섰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의 라이벌 원정대인 프랑스·스위스 합동대의 도전에 맞닥뜨렸다. 식량이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경쟁자의 등장에 지친 몸을 일으켜 재공략에

◀ 북서벽 캠프1(6400m) 전경.



북서벽 캠프1(6400m)~캠프2(7100m) 구간의
설벽을 오르고 있는 각국의 대원들.



나섰다. 마지막 캠프를 떠난 이들은 9시간의 고군분투 끝에 처음으로 초오유의 정상에 올라 8000m 거봉 가운데 다섯 번째 초등에 성공했다. 또 히말라야 등반 사상 처음으로 문순 이후인 가을 시즌에 정상에 오른 등반대로 기록됐다. 한국은 1992년 울산·서울 합동대의 남선우 김영태가 티베트 쪽의 서릉 노멀 루트를 통해 초등에 성공했다.

희망 원정대의 마지막 목표인 초오유는 다른 8000m 고봉에 비하면 손쉽게 초등을 허락했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오스트리아가, 그것도 전체 대원이 단 세 명인 단출한 등반대가 곧바로 정상에 올라섰다. 희망 원정대의 바람도 그들처럼 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정상을 오르는 것이었다. 초등한 오스트리아 원정대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구성된 희망 원정대가 한국의 송원대팀(대장 김홍빈), 코오롱스포츠팀(대장 김재수)과 함께 베이스캠프에 들어서자 이미 자리를 잡은 미국대와 오스트리아·러시아 합동대가 고소 적응 중이었다.

한국 등반대는 자연스럽게 합동으로 북서벽 등반에 나섰다. 당시 초오유 베이스캠프에 모인 30여 개 팀 가운데 한국대가 가장 먼저 해발 7100m의 캠프2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매일 같이 눈이 내리는 데다 기온이 올라가 표층 눈사태의 위험이 커져 더는 전진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상업등반대를 이끄는 티베트등산협회 소속의 중국대가 개설한 루트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 등반의 제약이 컸다. 그런 와중에 히말라야 지역에 강진이 발생해 초오유 베이스캠프에도 몇 분간 지면이 진동하면서 대혼란이 일어났다. 다행히 그 강도가 약해 베이스캠프 건너편에 있는 늑체강 북면에서 소규모의 산사태만 발생했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 또한 초오유 북서면 캠프1~캠프2 구간의 세락지대 아이스폴이 붕괴해 눈사태가 발생했으나 고소 포터를 비롯한 현지 고용인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희망 원정대는 국내에서 보내온 기상 예보를 분석해 등정 예정일을 정했다. 서성호는 베이스캠프 도착 17일 만인 9월 21일 김창호와 함께 베이스캠프를 출발해 캠프2까지 올라갔다. 다음 날 7550m까지 진출해 설사면에 캠프3을 마련했다. 오후에는 송원대팀과 코오롱스포츠팀이 합동으로 캠프3 위의 록밴드 상단부에 고정 로프를 설치하면서 정상 등정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23일 새벽 4시 20분께 서성호와 김창호는 텐트를 나섰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눈이 깊이 쌓여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서성호는 코오롱스포츠팀의 손병우와 번갈아가며 앞장서 길을 뚫었다. 영하 20도

◀ 북서벽 해발 6800m에 있는 얼음 장벽을 등반 중인 한국팀 대원들.

의 혹한이었지만 다행히도 바람은 잠잠했다.

오전 9시가 지날 무렵 해발 7800m의 서쪽 상단부에 올라섰다. 날은 밝았지만 설사면의 등반로에는 햇빛이 들지 않았다. 힘겹게 눈으로 덮인 둔덕에 올라서자 부드러운 경사를 이루며 동쪽으로 이어지는 정상부 설원이 눈앞에 나타났다. 심설은 무릎 위까지 빠졌고 태양은 이들의 힘든 발걸음을 자주 멈추게 했다. 정상까지 300m 거리를 1시간 30분 동안 나아간 서성호와 김창호는 마지막 캠프를 출발한지 7시간 40분 만인 정오께 축구장만큼 넓은 설원의 초오유 정상에 도달했다.

희망 원정대의 8000m급 14좌 완등의 마침표를 찍는 봉우리였지만 정상은 그런 극적인 드라마를 찍기에는 미묘한 곳이었다. 코오롱스포츠팀과 송원대팀도 잇달아 정상에 올라 등정의 기쁨을 나눴다. 1985년 2월 예지 쿠쿠즈카는 파트너 지그문트 하인리히와 힘겹게 초오유 정상에 오른 후 동상과 부상으로 힘겨운 등반이었지만 “정상이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겼다”고 묘사했다. 희망 원정대의 8000m급 14좌 완등 레이스의 결승선인 초오유 정상은 서성호와 김창호도 자석처럼 끌어당겼으리라.

희망 원정대의 8000m급 14좌 완등은 2006년 에베레스트에서 시작해 2011년 초오유를 마지막으로 5년 4개월 만에 이뤄낸 세계적인 기록이었다. 희망 원정대는 세계 산악계의 축하를 받았다. 서성호도 그 가운데 한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했다. 이해 10월 7~9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국제산악연맹 총회에서 마이크 모티머 국제산악연맹 회장은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의 14좌 완등은 세계 등반사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원 구성에서 매년 약간씩의 변화는 있었지만 12개 봉을 오른 서성호와 13개 봉을 오른 김창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2007년 K2에서 네팔인 고소 포터 한 명만을 잃고, 2009년 안나푸르나I에서 단 한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14좌를 완등해 낸 희망 원정대의 기록은 어느 완등자나 원정대의 등반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이를 두고 김병준 원로 산악인은 최근에 펴낸 책 <산을 바라보다>에서 희망 원정대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원정대”라고 부르며 그들의 등반을 “한 편의 위대한 드라마”라고 치켜세웠다. 희망 원정대의 대장정이 끝나며 2006년 에베레스트에서 시작된 서성호의 8000m 거봉 도전도 K2(8611m)와 브로드피크(8047m) 2개 봉을 남겨두고 12번째 초오유 등정으로 일단락을 지었다.

▶ 정상 등정을 시도하기 위하여 캠프3(7550m)으로 진출하고 있는 서성호(맨 앞)와 한국팀 대원들. 아래 캠프지는 해발 7100m의 캠프2.





Jobo Rabzang
6666m

Nangpa La
5716m

Palung Ri
7012m

초오유 정상부에서 본 티베트 퉁그리 평원.



초오유 정상에 오른 한국팀 대원들.
오른쪽부터 서성호 손병우 김재수.

Mount Everest

2013 봄 시즌

에베레스트 — 8848m — 등정



두 번째 찾은 최고봉에서의 성공과 실패

“죽음은 흔히 등산가의 바로 곁에 있다. 산은 바다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적으로 여기고, 인간이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힘과 민첩성과 기술—그리고 이끌어주는 이성의 힘 덕택이다.… 자신과 죽음의 무게를 저울의 양쪽에다 달아보려는 욕망이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것인데, 그러다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너무나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저울을 들고 있던 운명이 죽음 쪽으로 그것을 기울어지게 한다.”

영국의 등반가 프랭크 스마이드는 <산의 환상>에서 죽음은 등산가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문턱을 밟았다가 되돌아서기도 하지만 마침내는 그 문턱을 넘어서고 마는 것이다.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산의 높이가 아니며, 등반 횟수도 아니다. 저마다의 운명의 시기가 있는 것이다. 서성호의 운명의 시기는 2013년이였다.

2011년 초오유를 끝으로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의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이 마무리되자 서성호의 등반도 휴지기에 들어갔다. 2006년 에베레스트 등



해발 9m인 인도 벵골만을 출발해 네팔로 향하는 여정 중에 현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서성호.

▶ 인도 벵골만을 출발해 갠지스강을 따라 카약으로 이동 중인 서성호.





인도 콜카타를 출발해 네팔 툽링타르까지 자전거로 이동 중인 서성호(왼쪽)와 김창호.



도보 여행의 기점인 네팔 툽링타르에서 출발 전 열의를 다지고 있는 대원들. 왼쪽부터 안치영 오영훈 김창호 전푸르나 서성호.

정 후 '먹고 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이듬해 K2와 브로드피크 원정 대신 생활인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헛수로 6년에 걸친 히말라야 설산에서의 삶을 접고 다시 생활인의 길로 돌아갔다.

그렇게 2012년을 보내고 운명의 2013년을 맞았다. 보통 사람으로 살던 그에게 히말라야에서 8000m 11개 봉을 함께 오르며 생사를 같이했던 김창호가 도움을 청했다. 김창호는 8000m급 14좌 완등에 에베레스트 하나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김창호는 에베레스트 8848m의 높이를 오롯이 오르려고 했다. '0 to 8848' 즉 '해발고도 0m에서 에베레스트 정상 8848m까지' 프로젝트였다. 김창호는 8000m급 14좌 완등에 마침표를 찍는 등반 파트너로 서성호 외에 다른 사람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랜 원정 등반을 접고 산 아래의 세계로 돌아와 자리를 잡으려던 서성호는 한 번 더 일을 그만두고 산으로 가는 걸 망설였다. 잘 웃고 장난도 잘 치는 그가 김창호의 부탁을 받고 고민하던 때는 웃음 대신 마냥 진지하고 신중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꺼이 김창호가 내민 손을 잡았다. 그렇게 서성호는 에베레스트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마지막 등반에 나섰다.

'0 to 8848' 프로젝트는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무동력과 무산소로 인도양 바닷가에서부터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 수단은 카약과 자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서
무사 등반을 기원하고 있는 서성호.

거,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두 다리였다. 서성호는 김창호를 따라 3월 14일 인도 벵골만에서 카약을 타고 갠지스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닻새 동안 노를 저어 156km를 올라가 콜카타에 닿은 뒤에는 자전거로 바꿔 타고 인도 평원과 네팔 테라이 평원을 가로질러 893km를 이동했다. 해발 410m의 툼링타르에서부터는 도보로 루클라, 남체, 팡보체를 거쳐 162km의 거리를 걸어 벵골만에서 출발한 지 38일 만인 4월 20일 해발 5350m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

긴 여정 끝에 당도한 쿵부 빙하 위 베이스캠프에는 에베레스트 초등 60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봉과 로체 정상에 노리는 120여 개 팀의 600명에 가까운 등반가들로 북적였다. 원정대는 첫 고소 적응 등반에서 6450m의 캠프2까지 올랐고, 열흘 후 두 번째 등반에서는 7080m의 캠프3보다 500m 정도 위인 옐로밴드까지 다녀왔다. 대원들의 체력과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등반에서 서성호는 초오유 등반 이후 1년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등반 능력을 발휘했다. 김창호와 같은 스피드를 보여준 것이다. 이후 해발 4270m에 있는 페리체로 내려가 나흘 동안 휴식하며 갠지스강에서부터 방전된 체력을 끌어올렸다. 이들은 꿀맛 같은 휴식 후 베이스캠프 출발 4일 만에 에베레스트에 오른다는 등정 계획을 세웠다.

좋은 날씨의 도움으로 서성호와 김창호를 비롯한 대원들은 차근차근 고도를

▶ 에베레스트 등반의 첫 번째 난관인 쿵부 빙하 아이스폴 구간을 새벽에 통과하고 있는 서성호와 대원들.





▶ 캠프2(6450m) 근처 빙하에서 등반 열의를 다지는 대원들.

높인 뒤 5월 19일 오후 8시께 사우스콜에 있는 해발 7950m의 마지막 캠프를 나섰다. 김창호 안치영 서성호는 무산소 등정을 시도하고, 전푸르나는 인공산소를 사용하며 다음 날 새벽 4~5시께 8500m에 있는 일명 '발코니' 아래에 진출했다. 그곳부터 안치영은 무산소 등정을 포기했고, 김창호 서성호는 인공산소의 도움 없이 정상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 서성호가 인공산소의 도움 없이 올랐던 가장 높은 고도인 캄첸중가의 8586m를 지나 8600m를 넘어서자 처음으로 겪어보는 고도에 차츰 속도가 느려졌다. 김창호는 당시의 느낌을 "숨이 목까지 넘치다 못해 멈출 것 같다"고 표현했다. 20일 오전 8시께 전푸르나를 시작으로 9시께 김창호, 10시께 안치영이 정상에 섰다. 서성호는 다른 대원들보다 1~3시간 늦은 오전 11시 15분께 무산소로 정상에 도달했다.

정상에 오른 대원들은 각자 하산을 시작했고, 서성호는 일행보다 3시간 이상 뒤쳐져 내려갔다. 동행한 나텐지 세르파가 이때 이미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지친 서성호의 하산 속도가 너무 느려 응급 상황에 대비해 달라는 구조 요청을 했다. 로체 등정 시도를 위해 로체 캠프4에 머물던 오영훈이 무선 교신을 듣고 날이 어두워지기 직전인 오후 7시 30분께 해발 8300m에 올라가 서성호를 이끌고 10시 30분께 사우스콜의 마지막 캠프로 돌아왔다. 서성호는 힘겨워 보이기는 했으나 인사말까지 건네고 안치영과 함께 텐트에 들어갔다. 다음 날 새벽 1시께 고소 포터가 산소 사용을 권했지만 서성호는 괜찮다며 사양했다. 이것이 그가 살아서 보인 마지막 모습이였다. 오전 5시께 안

◀ 쿨부 빙하 아이스폴 구간에 설치된 가파른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대원들.

치영이 텐트 측면에 기댄 채 숨진 그를 보고 대원들에게 알렸다. 2시간에 걸친 산소 공급과 심폐소생술에도 끝내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2013년 5월 21일의 일이다.

동료 대원 오영훈은 “서성호가 카약, 자전거, 도보 이동이 체력에 부담이 돼 에베레스트에 무산소로 오르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되었으리라는 추측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성호는 자전거 이동이 힘들었다기보다는 험하게 달리는 차량 때문에 불편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또 도보 이동 중에 서성호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다만 에베레스트 등반에서 고소 적응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7600m까지 올랐다가 바로 내려온 게 전부였다. 원래 계획은 7950m의 캠프4까지 올랐다가 내려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정 로프 미설치, 운행 일정 등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김창호 대장이 이 정도로도 충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서성호의 마지막 등반은 비록 세계 최고봉 무산소 등정에는 성공했지만 무사히 하산하지는 못한, 그래서 절반의 성공으로 끝을 맺었다. 라인홀트 메스너는 그의 14번째 8000m인 로체를 오른 뒤 “마침내 나는 마지막 8000m 봉우리에 발을 디뎠지만, 우리에게겐 아직 ‘성공적인 하산’이 남아 있었다. 무사히 내려가야 삶이 계속될 수 있고,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이다”라고 성공적인 등산은 성공적인 하산과 같은 의미라는 걸 강조했다.



캠프4(7950m)로 향하는 도중 해발 7600m의 엘로밴드 구간에 도달한 서성호.



사우스콜(7906m)의 캠프4 전경. 서성호를 포함한 대원들은 5월 19일 낮 이곳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뒤 오후 8시께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한국인 최초로 인공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김창후.

당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서 만난 선배 산악인이 서성호에게 “왜 에베레스트 무산소를 택했나? K2와 브로드피크만 오르면 14좌 완등인데?”라고 하자 그는 “어떤 등반을 해야 하나 당연히 고민했다. 14좌 완등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 대신 세계 최고봉 무산소 등정으로 제 한계를 극복하는 길을 택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끝내는 그 한계에 부딪혀 넘어서지 못하고 이 선택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걸 그때는 알 수 없었다.

에베레스트를 처음 무산소로 오른 라인홀트 메스너는 “인공산소를 사용하면서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은 8000m급 산을 6000m급으로 낮추는 행위다”고 일침을 가했다. 에베레스트 초등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프랭크 스마이드는 그의 책 <산의 환상>에서 “에베레스트에서 산소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과 편의에 입각해서는 타당한 행동이겠지만, 감정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많은 등산가가 그런 것을 가지고 성공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실패하는 쪽을 더 좋아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등산은 모험으로 남아 있어야 하므로, 인공산소처럼 인위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동원되지 말아야 하고, 만일 그것이 없이는 등반이 불가능할 때는 그 등반은 시도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는 얘기다”고 무산소 등반의 가치를 전파했다. 그는 산소를 배제한으로써 등반은 자연스러운 모험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의 믿음대로 서성호는 무산소 등정에 목숨을 걸며 자신의 등반을 순수한 모험의 영역에 남겨뒀다.

▶ 에베레스트 남봉(8749m)에서 본 정상부 등반 행렬.
위쪽이 힐러리 스텝(8790m).



After that





그 후

■ 2013년, 서성호는 두 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딛고 내려오던 도중 5월 21일 새벽 캠프4에서 숨을 거뒀다. 대원들이 두 시간 넘게 그를 살리기 위해 애썼지만 무위였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날이 밝자 김창호를 비롯해 에베레스트 등정으로 몹시 지쳐있던 대원들은 하산하고 로체 등정을 포기하고 서성호를 마지막 캠프까지 데리고 내려온 오영훈 대원이 나서 고소 포터들을 동원해 다음 날 시신을 후송했다. 이날 캠프2(6450m)까지 내린 뒤 23일 오전 헬리콥터를 이용해 베이스캠프로 옮겼다. 이어 다음 날 다시 헬리콥터를 불러 김창호 대장과 오영훈 대원이 그와 함께 카트만두로 이동해 트리부반 대학병원으로 운구해 안치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에서 날아온 유가족과 산악계의 선후배들도 같은 날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이들은 김창호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슬픔을 누르고 오히려 힘겨운 등반 후에 서성호를 운구해 온 대원들을 격려했다. 26일 오전 네팔 최고



2013년 5월 30일 부산의료원에서 열린 '고 서성호 부산산악연맹장' 영결식.

◀ 2013년 5월 26일 네팔 카트만두 몽키 템플에서 세르파 의식으로 거행된 고 서성호 화장 장례.



▲ 2013년 2월 22일 부경대 장보고관에서 열린 (사)서성호기념사업회 '제1차 정기총회 및 서성호 추모기념 다큐멘터리 상영회'. 왼쪽부터 임일진 안치영 전푸르나 오영훈 김창호 김영주.

의 사원 스와얌부나트 인근의 화장장에서 티베트 불교 라마가 주재해 열린 화장 장례에는 유가족과 원정대원, 교민 등 50여 명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그의 유골은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다음 날인 30일 부산시립의료원에서 부산산악연맹장으로 치른 영결식 후 금정산 국청사에 봉안됐다.

이 해 12월에는 서성호를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출범했다. 탁월한 등반 능력으로 누구보다 짧은 기간에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하리라 기대를 모았지만 완등보다는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에 더 큰 가치를 둔 그였다. 인위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등반을 순수한 모험의 영역에 남겨두기 위해 목숨을 건 그의 산악정신을 기리고 원정에서 항상 누구보다 희생적이었던 그를 오래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성호기념사업회는 산악인의 이름을 딴 추모 기념사업회로는 부산에서 처음이었고, 전국에서도 4번째였다. 기념사업회 발족에는 원정 당시 후원사였던 LS네트웍스사로부터 받은 위로금 1억원 전액을 회사한 유가족의 도움이 컸다.

기념사업회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후배 산악인에 대한 지원이다. 산악계 후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기념사업회는 서성호기념사업회가 국내에서 유



▲ 2017년 4월 16일 금정산에서 열린 '2017 코리안 웨이 인도 원정대 환송 산행 및 고 서성호 추모 산행'.

일했다. 이는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 대학에 다니면서도 산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불태웠고 생전에 입버릇처럼 “나중에 나처럼 어려운 후배 산악인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던 그의 마음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 2014년, 서성호가 속했던 부경대산악회가 그를 기억하고자 만든 추모 동판이 이 해 4월 금정산에 설치됐다. 그의 ‘첫 바위’였던 무명암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금정산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화강암 덩어리 가운데 하나에 붙은 그의 동판에는 ‘고 서성호/1979.11.3-2013.5.21’이라 새긴 아래 에베레스트를 필두로 초오유까지 그가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의 일원으로 오른 8000m 12개 봉의 이름이 적혔다. 이어 ‘2013.5.20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 후 하산하다 사우스콜에서 잠들다’라고 그의 마지막 등반을 기록했다. 그 아래에는 ‘사랑하는 약우여 무거운 짐 내리고 편히 쉬어라’고 적어 그의 영면을 기원했다. 서성호의 추모 동판에는 이웃이 있다. 바로 2005년 푸모리에서 앞서 떠나간 정상군 김도영을 기리는 동판이다. 그에게 크나큰 아픔과 좌절을 안겨준 푸모리에서 헤어진 선배들의 영혼을 이곳에서 다시 만난 셈이다.

■ 2018년, 서성호의 '영혼의 자일 파트너' 김창호는 그와 함께 한 2013년의 에베레스트 등정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했다. 김창호는 세계 31번째이자 한국 5번째 완등자이다. 무산소로는 한국 최초 기록을 세웠고 세계에서는 14번째 무산소 완등에 성공했다. 그의 완등은 2005년 7월 14일 낭가파르바트 루팔벽 등정 이후 7년 10개월 6일 만에 이룬 기록이다. 그런 대기록의 마침표를 에베레스트에서 찍었지만 그 결과는 기쁨 대신 서성호를 떠나보낸 슬픔이었다. 이후로도 오래도록 그는 '성호와 함께 볼 것'이라는 마음으로 서성호가 남긴 카메라를 가지고 산행에 나섰다. 2014년 3월 엄홍길휴먼재단이 주는 제2회 도전상을 받은 자리에서 그는 "서성호가 추구한 등반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창호는 다시 '모험으로의 출발'에 나섰다. 8000m급 14좌 완등에 나서기 전 5000m급과 6000m급 봉우리의 세계 초등과 신루트에 도전했던 것처럼 다시 서성호가 추구한 '모험적 등반'으로 돌아왔다. 김창호는 2016년 10월에는 최석문 박정용과 함께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군의 강가푸르나(7454m) 남벽을 직등해 정상에 오르는 신루트인 코리안웨이를 뚫었다. 이어 2017년 6월에는 안치영 김기현 구교정 이재훈과 함께 '2017 코리안웨이 인도 원정대'를 구성해 인도 히말라야의 다람수라(6446m)와 팝수라(6451m)에 신루트를 개척했다.

하지만 김창호의 모험적 등반 활동도 오래가지 못했다. 김창호는 2013년 9월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산악상 산악대상을 받은 자리에서 "산에 가지 않는 산악인은 의미가 없다"는 소감을 남겼다. 그가 산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잘 보여준 말이었는데 이 말처럼 산악인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간 그는 2018년 10월 그 산에서 생을 마감했다. '2018 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를 꾸려 네팔의 구르자히말(7193m) 등반에 나선 김창호와 동료 산악인 4명, 네팔인 4명이 머물던 해발 3500m의 베이스캠프를 예상 못한 돌풍과 눈사태가 덮쳤다. 서성호를 떠나보낸 지 5년 만의 일이었다.

■ 2020년,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탐방지원센터를 거쳐 5분 남짓 올라가면 만나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접어드는 길의 입구에 수수한 안내비가 서 있다. '길손이여/잠시 걸음을 멈추자/여기 산이 좋아서/그냥 산이 좋아서/산처럼 살다 간/티 없는 영혼들이/잠들고 있나니/길손이여/산이 좋았든(넌) 그들/잠시 그



강가푸르나(7454m) 남벽 직등 루트를 등반 중인 최석문 박정용(촬영 김창호). 정상 능선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이 뒤에서 마차푸치레(6993m)가 구름을 뚫고 솟구쳤다.



알파인 스타일로 4박5일 만에 다람수라(6446m) 북서벽 신루트로 정상에 오른 대원들. 왼쪽부터 구교정 이재훈 안치영(촬영 김창호).



2018년 10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2018 코리아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 합동 영결식.



2023년 10월 14일 금정산 금정산성 동문 광장에서 열린 고 서성호 김창호 합동 추모 산행.

리워하자'라고 새겨진 안내비는 작은 계류를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북한산 산악인 추모공원으로 안내한다. 이 해 4월 25일 산악인 추모공원의 추모탑에 서성호의 추모비가 더해졌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직사각형의 오석 판에는 '고 서성호/소속 부경대 산악회/2013.5.21/에베레스트 캠프4'라고 사망 날짜와 장소를 알리는 간단하면서도 건조한 글귀가 새겨졌다.

■ 2022년, 김창호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되던 이 해 10월 8일 북한산 무당골 산악인 추모공원에서는 김창호 대장 추모제와 추모 산행이 열렸다. 김창호를 비롯해 그와 함께 구르자히말에서 유명을 달리한 4명의 산악인, 그리고 그와 생사를 같이 했던 서성호를 함께 기리는 자리였다. 구르자히말 원정대에는 부경대산악부의 이재훈도 있었다. 부경대산악회와 부산산악포럼을 중심으로 한 부산 산악인들이 추모제와 추모 산행에 함께 했다. 이날 추모제가 열리기 한 달 전 '김창호기념사업회'가 창립됐다. 한국적 알피니즘을 추구한 그의 유지를 잇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산악인 추모탑의 서성호 추모비에서 오른쪽으로 팔을 뻗으면 닿을 자리에 김창호의 추모비가 있다. 그 오른쪽으로는 그의 벗 임일진을 비롯해 구르자히말에서 함께 숨진 4명의 산악인 추모비가 나란히 붙어 있다.

■ 2023년, 서성호가 에베레스트에 잠든 지 10년, 김창호가 구르자히말에서 유명을 달리한 지 5년이 되던 이 해 10월 부산에서는 서성호와 김창호를 기리는 '고 서성호·김창호 합동 추모 산행'이 열렸다. 14일 금정산과 15일 해운대에서 열린 행사는 서성호기념사업회와 김창호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성호기념사업회와 부경대산악회가 준비해 열렸다. 금정산은 서성호가 산을 처음 만나 산을 배우고 산과 사랑에 빠진 곳이다. 히말라야 8000m 거봉 12개를 함께 오르면서 생사를 같이 했고 끝내는 하늘에서 함께한 두 사람을 기리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을 것이다. 금정산성 동문에서 한자리에 모인 부산과 서울의 산악인들은 금정산 주능선을 거쳐 서성호가 바위를 배웠던 무명암 아래 추모 동판을 찾아 험난한 산을 함께 오르내리며 산악 활동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함께했던 두 사람을 기리고 기억했다.

서성호 참여 원정대

순번	년도/시즌	원정대 명	대상지	등반 루트	높이거리	원정 기간		원정 결과	등정자	원정 대원	
										대장	대원
1	2004/여름	부경대 데날리 원정대	데날리	웨스트 버트레스	6194m	2004.05.02~05.27(26일간)		5615m 도달	-	박준범	장종욱 소진호 강대희 안소현 서성호
2	2004/여름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	파미르고원	알라이 산군 탐사	-	2004.07.20~08.10(22일간)			-	이병철	김종욱(단장) 박아숙 김병권 홍보성(지도위원) 김재우 이동훈 김광섭 홍민진 이지연 권지선 서성호(대원)
3	2005/봄	한국 푸모리 원정대	푸모리	남동벽~동릉	7161m	2005.03.06~04.14(40일간)		등정(정상군 김도영 추락사)	서성호 정상군 김도영 유항미 김명수	홍보성	정상군 이종휘 김도영 유항미 김명수 서성호
4	2006/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임자체	남벽	6189m	2006.03.15~03.31(17일간)		등정	서성호 김진태	홍보성	조창래 박종일 김진태 권경일 정응석 서성호
5			에베레스트	노스콜~북동릉	8848m	2006.04.01~05.25(55일간)		등정	서성호 김진태		
6	2008/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마갈루	마갈루라~북서벽	8463m	2008.03.29~05.07(40일간)		등정	서성호 김창호 박정용	홍보성	김창호 박정용 유항미 이세현 서성호
7			로체	서벽	8516m	2008.05.08~05.27(20일간)		등정	서성호 김창호		
8	2009/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마나슬루	북동벽	8163m	2009.03.16~04.30(45일간)		등정	서성호 김창호	홍보성	김창호 남정환 서성호
9			다올라기리 I	북동릉	8167m	2009.05.01~05.28(28일간)		등정	서성호 김창호		
10	2009/가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안나푸르나 I	북동 버트레스	8091m	2009.09.08~10.23(46일간)		7200m 도달	-	홍보성	김창호 서성호
11	2009/가을	몽벨리스트 원정대	타르푸출리	북서릉	5663m	2009.10.24~11.04(12일간)		등정	서성호 외 9인	김창호	강신숙 김영주 박종석 서기석 오현호 이계원 이수연 이희기 한영돈 한필석 황상규 홍보성 서성호
12	2010/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캄첸중가	남서벽 영국	8586m	2010.03.09~05.13(66일간)		등정	서성호 김창호	홍보성	김진태 김창호 서성호
13	2010/여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낭가파르바트	디아미르벽 킨스호퍼	8125m	2010.06.11~07.18(38일간)		등정	서성호 김창호 김진태	홍보성	김진태 김창호 서성호
14	2010/가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시사팡마	남서벽 영국	8012m	2010.09.06~10.22(47일간)		등정	서성호 김창호	홍보성	김창호 서성호
15	2011/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안나푸르나 I	북동 버트레스	8091m	2011.03.16~05.05(51일간)		등정	서성호 김창호	홍보성	김창호 서성호
16	2011/여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가셔브룸 I	일본 골라와르	8068m	2011.06.06~07.14(39일간)		등정	서성호 김창호	홍보성	김창호 천성진 서성호
17			가셔브룸 II	남서릉~동릉	8035m	2011.07.15~08.05(22일간)		등정	서성호 김창호		
18	2011/가을	다이내믹 부산 희망 원정대	초오유	서릉~북서벽	8201m	2011.08.22~10.10(50일간)		등정	서성호 김창호	홍보성	김창호 서성호
19	2013/봄	한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인도	카약(바칼리~콜카타)	156km	2013.03.11~03.18(8일간)		완주	서성호 김창호	김창호	서성호 전푸르나(지원)
			인도~네팔	자전거(콜카타~통링타르)	893km	2013.03.19~04.01(14일간)		완주	서성호 김창호		서성호 전푸르나(지원)
			네팔	도보(통링타르~에베레스트 BC)	162km	2013.04.02~04.20(19일간)		완주	서성호 김창호		임일진 안치영 오영훈 전푸르나 서성호
			에베레스트	사우스콜~남동릉	8848m	2013.04.21~05.29(39일간)		등정	전푸르나 안치영 김창호(무산소) 서성호(무산소)		

서성호 약력

	1979년 11월 3일 부산 출생
학력	1992 우암초등학교 졸업 1995 배정중학교 졸업 1998 금성고등학교 졸업 1998 부경대학교 제어계측학과 입학 2007 부경대학교 제어계측학과 졸업
산악경력	1998~2006 부경대학교 산악부 활동 2007 부산학생산악연맹 이사 2011 부산산악포럼 회원 2013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총무이사
산악활동	2003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산악」 남자대학부 1위 제36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남자대학부 1위 2004 데날리(6194m) 등반. 5615m 도달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타지키스탄 파미르고원 탐사대원 2005 푸모리(7161m) 등정 2006 임자체(6189m) 등정 에베레스트(8848m·노스콜~북동릉) 등정 2008 마칼루(8463m) 등정 로체(8516m) 무산소 등정 2009 마나슬루(8163m) 무산소 등정 다울라기리 I (8167m) 무산소·무세르파 등정 안나푸르나 I (8091m) 등반. 7200m 도달 타르푸출리(5663m) 등정 2010 캄첸중가(8586m) 무산소 등정 낭가파르바트(8125m) 무산소·무세르파 등정 시사팡마(8012m) 무산소·무세르파 등정 2011 안나푸르나 I (8091m) 무산소·무세르파 등정 가셔브롬 I (8068m) 무산소·무세르파 등정 가셔브롬 II(8035m) 무산소·무세르파 등정 초오유(8201m) 무산소·무세르파 등정 2013 에베레스트(8848m·사우스콜~남동릉) 무산소 등정
수상	2012 부산광역시장 표창 2012 체육훈장 맹호장 2013 부산산악상 고산등반상 2014 대한민국산악상 고상돈특별상 2015 금정대상

사단법인 서성호기념사업회

서성호가 에베레스트에 잠든 해인 2013년 12월 그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산악인들을 주축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산악인의 이름을 딴 기념사업회로는 부산에서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네 번째다. 기념사업회 발족에는 원정 후원사로부터 받은 위로금 전액을 회사한 유가족의 도움이 컸다. 설립 당시 202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학생산악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등산을 순수한 모험의 영역에 남겨두고자 했으며 산에서 누구보다 희생적이었던 서성호의 헌신과 산악정신을 기리는 추모제와 추모산행을 열고, 청소년·대학산악인의 육성을 위한 등산 학교와 해외 원정대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 대학산악인·단체에 산악장학금을 지급했다. 기념사업회는 서성호 추모집 발간을 끝으로 10년 만에 해산한다.

9 791195 652532  03690 **ISBN** 979-11-956525-3-2
03690
값 40,000원